

올바른 기사문장론



| Part I . 문장 |

1 문장 성분의 호응 _____ 6

주어 갖추기 // 주술 관계를 명료하게 // 주어가 둘이면 술어도 둘 // 생략할 수 없는 주어 // ‘무엇은 무엇이다’ 꼴 만들기 // ‘무엇은 무엇이다’ 꼴 피하기 // ‘무엇은 무엇이 있다’ 꼴 피하기 // ‘무엇은 무엇 때문이다’ 꼴의 함정 // 목적어와 서술어의 짝 // 생략할 수 없는 목적어 // 부사와 서술어의 짝 // 부사어와 서술어의 짝 // 부사어가 서술어를 잘못 만나면 //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

2 문장의 연결 _____ 15

단어끼리 구끼리 절끼리 // 서술 형태의 일치 // 생략된 주어 따라가기 // 부당한 서술어 공유 // 인수분해가 잘못되면 // 부사어가 끼어들 때 // 서술부를 침표로 대체할 때 // 앞뒤 주어를 같게 하는 ‘-려다’, ‘-려고’ // 앞뒤 주어를 같게 하는 ‘-다가’ // 앞뒤 주어를 같게 하는 ‘-고도’, ‘-며’ // 앞뒤 주어를 다르게 하는 ‘-니’

3 조사의 쓰임 _____ 23

‘은/는’과 ‘이/가’의 구별 // 종속절의 주어엔 ‘이/가’ // 유정물엔 ‘에’, 무정물엔 ‘에게’ // ‘~에’와 ‘~에서’의 쓰임 // ‘은/는’을 생략하면 // ‘의’를 생략해야 할 때 // ‘의’를 넣어야 할 때 // 같은 조사가 연이어지면

4 연결어미의 쓰임 _____ 28

‘-고’와 ‘-며’의 구별(1) // ‘-고’와 ‘-며’의 구별(2) // ‘-라고’와 ‘-라며’의 구별 // ‘-며’와 ‘-면서’의 구별 // ‘-며’를 잘못 사용한 경우 // 부정문과 못 어울리는 ‘-도록’ // 동사와만 어울리는 ‘-려면’ // 같은 연결어미가 연이어지면

5 수식 구조 _____ 34

수식 형태의 일치 // 이중 수식 피하기 // 수식 대상을 확실히 //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 // 문맥과 동떨어진 수식어 // 부사어의 바른 위치 // 의문형과 어울리는 ‘얼마나’ // 부정문과 어울리는 ‘결코’, ‘좀처럼’ // ‘왜냐하면… 때문이다’

6 시제, 상, 능동·피동, 부정 표현 _____ 40

‘~고 있다’ 가려 쓰기 // ‘…중이다’ 가려 쓰기 // ‘…중이다’와 ‘…중에 있다’ // 잡은 물고기와 잡힌 물고기 //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 부정 표현에 어울리는 ‘때문에’ // 부정문이 지닌 중의성

7 겹말, 중복, 번역 투, 명사화 _____ 45

겹말, 사족 // 주술 동어 반복 // 같은 용언의 반복 // 과장 표현 // ‘들’을 붙이지 않는 경우 // ‘가지다’ 남용 // ‘것이다’ 남용 // 세 개의 사과, 사과 세 개 // 명사화 문장 풀어쓰기 // ‘X를 Y하다’와 ‘XY를 하다’

8 기타 _____ 52

권위적이 되다 // ‘추운 등’, ‘했는 등’ // ‘…하는 등’과 결합하는 말 // ‘등’으로 이어지는 앞뒤 말의 품사 // ‘…하는 가운데’와 결합하는 말 // 경쟁력을 잃은 ‘…할 시’ // ‘때문’과 ‘까닭’의 상반된 결합력 // ‘-ㄴ까’와 ‘-ㄴ까 봐’ // 어순만 바꾸어도 // 지시어를 잘못 사용하면 // ‘…보다’와 ‘…에 비해’의 구분 // ‘보다’와 ‘제일’의 불편한 동거 // 쉼표를 잘못 사용할 때 // 쉼표로 나열할 수 없을 때

목 차

CONTENTS

| Part II. 어휘 |

1 주의해 써야 할 어휘 및 표현 _____ 62

가. 헛갈리는 어휘-표현

나. 금기어 및 피해야 할 어휘-표현

다. 일본어 투 어휘-표현

2 외래어 표기 기본 원칙 _____ 107

3 틀리기 쉬운 어휘-표현(목록) _____ 109

Part I . 문장

글 이병갑



주어 갖추기

시장에는 행인들만 오갈 뿐이어서 을씨년스러웠다.

제시문의 '시장에는'은 '시장에' 뒤에 조사 '는'이 덧붙은 형태이다. 주어로 쓰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어는 아니다. 즉 제시문은 '시장엔...을씨년스러웠다'라는 구조로서, 필수 성분인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다.

• 시장은 행인들만 오갈 뿐이어서 을씨년스러웠다.

간단한 해결 방법은 이처럼 '시장에는'을 '시장은'으로 바꾸어 주어를 갖추게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주술 관계는 매끄럽지만 앞부분 종속절이 따로 노는 느낌이 들기는 한다. 이 점까지 감안하면 '시장에는'을 살려두고 다른 주어를 내세우는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

⇒ 시장에는 행인들만 오갈 뿐이어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더 알아보기

- 가게엔 찾아오는 손님이 없어 늘 한가했다.(→ 가게는)
- 제주도에는 돌이 많아 농사짓기에 적합지 않다.(→ 제주도는 돌이 많은 곳이어서)

주술 관계를 명료하게

이 동굴은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폭격했다.

주어와 서술어는 긴밀한 연결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 제시문은 ‘동굴은 북한군이 폭격했다’라는 구조인데, 주어인 ‘동굴은’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동굴은…폭격을 받았다’로 하면 뚜렷한 주술 구조가 된다. 한편, 문법 학계에서는 ‘동굴은’처럼 ‘은/는’이 붙은 말이 문두에 나오면 그것을 주제어로 보아 ‘동굴의 경우’, ‘동굴로 말하자면’ 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제시문은 다소 불안정한 느낌이 들 뿐 비문은 아니다.



더 알아보기

- 그는 남들이 손가락질을 했다.(→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했다)
- 그는 로또 1등에 당첨돼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

주어가 둘이면 술어도 둘

그는 주먹이 최선처럼 생각했다.

일반적으로 한 문장에 주어가 두 개 있으면 서술어도 두 개 있기 마련이다. 각각의 주어가 그에 대응하는 서술어를 따로 갖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주어는 둘이고 서술어는 하나인 문장이 있는데, 이때는 두 주어가 서술어 하나를 공유하게 된다. ‘김치는 신 김치가 맛있다’와 같은 문장이 그러한 예다. 제시문도 주어 ‘그는’과 ‘주먹이’가 서술어 ‘생각했다’를 공유하는 형태인데 ‘주먹이 생각했다’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먹이’에 대응하는 서술어를 따로 갖추어 ‘2주어 2서술어’ 문장을 만든다.

⇒ 그는 주먹이 최선인 것처럼 생각했다.



더 알아보기

-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저씨가 이곳으로 이사 오셨다.(→ 5학년일 때)
- 그런 점에서 나이 든 사람들은 보수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생략할 수 없는 주어

철수는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다고 말했다.

제시문은 아래의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꾼 것이다.

- 철수는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직접 인용문의 인용절에 주어가 없다. 누가 1등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철수가 1등을 했다면 “내가 이번 시험에서 1등을 했다”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꿀 때는 아래의 수정문처럼 ‘내가’를 ‘자기가’로 바꾼다. 요컨대 간접 인용문 내의 인용절은 독립된 문장이므로 자체적으로 주어와 술어가 갖추어져야 한다.

⇒ 철수는 이번 시험에서 자기가 1등을 했다고 말했다.



더 알아보기

- 그 회사는 이번 브랜드 평가에서 1위를 했다고 밝혔다.(→ 자사가 1위를)
- 그는 늘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라고 말한다.(→ 자기가 세상에서)

‘무엇은 무엇이다’ 꼴 만들기

이는 지난해보다 20% 늘어났다.

모든 문장은 세 유형으로 나뉜다. ① ‘무엇이(은) 어찌한다’, ② ‘무엇이(은) 어떠하다’, ③ ‘무엇이(은) 무엇이다’ 꼴이다. ①은 동작성을 띠는 동사 문형, ②는 상태성을 띠는 형용사 문형, ③은 서술성을 띠는 ‘체언+이다’ 문형이다. 그런데 특정 단어가 주어가 되면 ①, ②의 형태는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컨대 추상명사인 ‘원인’은 동작성이나 상태성을 띌 수 없으므로 ‘원인이 어찌한다’나 ‘원인이 어떠하다’라는 문형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같은 이유에서 제시문도 ③의 문형인 ‘이는 무엇이다’ 형태일 때 가장 안정적이다.

⇒ 이는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것이다.



더 알아보기

- 그 기계의 장점은 사용하기 편리하다.(→ 편리하다는 것이다)
- 행정력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잡겠다는 것은 → 잡을 경우에는 [또는] 많다 → 많은 무모한 일이다)
- 아파트에서 개를 기르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 기르면)

‘무엇은 무엇이다’ 꼴 피하기

이 회로도 는 아주 간단한 형태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꼴의 문장에서 서술부의 ‘무엇’은 흔히 주어의 속성(또는 부류)을 나타낸다. 예컨대 ‘철수는 학생이다’에서 ‘학생’은 ‘철수’의 속성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시문의 서술부에 쓰인 ‘형태’는 주어인 ‘회로도’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므로 ‘무엇은 무엇이다’ 꼴의 문장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회로도의 모양을 설명하는 내용임을 고려하여 ‘무엇이(은) 어떠하다’ 꼴을 사용하는 게 좋다.

⇒ 이 회로도는 형태가 아주 간단하다.



더 알아보기

- 이 책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다.(→ 내용이 매우 흥미롭다)
- 이 커피는 쓴맛이다.(→ 맛이 쓰다 [또는] 쓴맛이 난다)

‘무엇은 무엇이 있다’ 꼴 피하기

- 서울은 구청이 25개 있다.

제시문은 ‘무엇은 무엇이 있다’ 꼴로써, 주어는 둘인데 술어는 하나밖에 없다. 이 형태는 ‘나는 돈이 있다’와 같이 소유를 나타낼 때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그런데 제시문의 ‘있다’는 소유가 아닌 존재를 나타낸다. 이 경우에는 주어를 하나만 내세워 ‘무엇에는 무엇이 있다’ 꼴로 한다. 한편, ‘그 집은 차가 없다’와 ‘그 집엔 차가 없다’가 모두 가능한데, 이는 ‘있다(없다)’가 소유와 존재의 경계 영역에 있기 때문이다.

⇒ 서울에는 구청이 25개 있다.



더 알아보기

- 지하철 안에서 지켜야 할 예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예절**에는)
- 그 회사의 사무실은 책상이 없다.(→ **사무실**엔)

‘무엇은 무엇 때문이다’ 꼴의 함정

- 철수의 합격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다.

‘때문이다’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때문이다’의 문형으로 실현된다. 예컨대 ‘그것은 너 때문이다’라는 문장은, ‘그것은’이 ‘그 이유는’이라는 의미를 지니므로 위의 문형에 해당한다. ‘빙판길이 된 것은 차가 계속 다녔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이 매끄럽게 느껴지는 것도 ‘빙판길이 된 것은’이 ‘빙판길이 된 이유는’이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를 ‘빙판길은 차가 계속 다녔기 때문이다’라고 바꿀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빙판길은’이 ‘빙판길이 된 이유는’이라는 의미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제시문도 ‘철수의 합격은’이 ‘철수가 합격한 이유는’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바른 문장이 될 수 없다.

⇒ 철수가 합격한 것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다.



더 알아보기

- 요즘 학생들의 일탈은 인성 교육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일탈하는 것은**)
- 교회의 침체는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침체된 것은**)

목적어와 서술어의 짝

- 요즈음엔 피 한 방울로 질병을 진단이 가능하다.

목적어는 타동사로 된 서술어와 짝을 맺는다. '무엇을 어찌한다' 꼴로 실현된다. 그런데 제시문은 목적어와 짝을 이루는 타동사가 없다. '질병을'이 '진단 가능하다'라는 서술어와 결합된 형태인데, 이 서술어가 타동사 기능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 요즈음엔 피 한 방울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 요즈음엔 피 한 방울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 승리를 선부른 만끽은 안 된다.(→ 선불리 만끽해서는)
- 단시간에 많은 문제를 해결이 어렵다.(→ 해결하는 것이)
- 실탄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실탄의 [또는 전체를 바꾸어] 실탄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생략할 수 없는 목적어

- 한국과 일본이 우승컵을 놓고 대결하여 한국이 차지했다.

‘철수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에서 ‘밥을’을 생략하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먹다’는 타동사이고,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취한다. 제시문에는 타동사 ‘차지하다’와 짝이 되는 목적어가 없다. 목적어 ‘우승컵을’이 앞 절에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앞 절 ‘놓다’의 목적어일 뿐 뒤 절 ‘차지하다’의 목적어 노릇까지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아래 첫 번째 수정문처럼 목적어를 연이어 써야 한다. 두 번째 수정문처럼 문형을 달리할 수도 있다.

⇒ 한국과 일본이 우승컵을 놓고 대결하여 한국이 그 컵을 차지했다.

⇒ 한국이 일본과 우승컵을 놓고 대결하여 승리했다.



더 알아보기

- 여아가 소득세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한 끝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기로)
- 시청에서는 쓰레기 매립장에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공원으로 만들었다.(→ 설치한 후 그곳을)

부사와 서술어의 짝

- 너무 오만의 극치라고 본다.

부사는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 뒤에 나오는 말을 꾸밀 뿐이다. 주로 용언(동사, 형용사)을 꾸민다. 제시문에 쓰인 부사 ‘너무’를 예로 들면 ‘너무 오른다’는 동사를 꾸미고, ‘너무 예쁘다’는 형용사를 꾸민다. 그런데 제시문의 ‘너무’는 꾸며 줄 짝을 찾지 못하고 봉 뜯 채로 있다. ‘너무 오만하다’는 식으로 뒤에 동사형이 오도록 해야 한다. 원리는 이처럼 아주 간단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용언 대신 체언을 꾸미게 할 때가 많다.



더 알아보기

- 이게 가장 고가의 물건이다.(→ **가장 비싼**)
- 계약금은 굳이 반환의 필요가 없다.(→ **굳이 반환할**)
- 적극 협조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또는] 적극적인 협조가 아니면**)

부사어와 서술어의 짝

- 그들은 선착장에 도착 후 곧바로 배를 탔다.

제시문에서 ‘선착장에’는 문장 성분으로 치면 부사어이다. 부사어는 문장 내에서 부사와 마찬가지로 용언을 꾸미는 기능을 한다. 부사어의 유형으로는 ① ‘잘 놀다’의 ‘잘’처럼 부사가 그대로 부사어가 된 경우, ② ‘철수와’, ‘철수에게’, ‘철수처럼’과 같이 명사(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경우, ③ ‘가서’, ‘가니’, ‘가자마자’와 같이 용언에 연결어미가 붙은 경우가 있다. 요컨대 문장의 주성분인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가 아닌 것은 다 부사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중요한 점은, 이런 말들은 문장 내에서 용언과 짝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②의 유형에서 이 원칙을 위반할 때가 많다. 예컨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카드로 결제 시’ 등처럼 부사어가 체언을 수식하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각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카드로 결제할 때’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제시문도 ‘도착 후’를 ‘도착한 후’로 바꾸어야 한다.



더 알아보기

- 난장판으로 변질 가능성이 높다.(→ **변질될 가능성**)
- 제품의 하자를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확인할 수 있다**)
- 직장에서 큰 어려움은?(→ **겪는 큰**)

부사어가 서술어를 잘못 만나면

- 잔금 1억 원은 3월 1일에 지불을 약속한다.

부사어가 용언과 결합한다는 사실을 간과할 경우 자칫 의미의 왜곡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제시문에는 부사어 '3월 1일에'와 호응하는 용언이 '약속한다'밖에 없다. 그래서 '3월 1일에 지불한다'라는 본래 의도와 달리 '3월 1일에 약속한다'라는 뜻이 되고 말았다. 문구대로 한다면 지금일을 무한정 늦춰도 될 것이다.

⇒ 잔금 1억 원은 3월 1일에 지불하기로 약속한다.



더 알아보기

- 그 회사는 내년까지 1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 그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국회 차원에서 제명하도록)
- 현대차가 미국에 30만 대 생산 기지 건설 계획을 확정했다.(→ 30만 대 생산 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

- 철수는 영화를 좋아해서 꽃을 주었다.

부사어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서술어는 부사어를 필수 성분으로 요구하기도 한다. '그 사람은 (대전에) 산다', '그 여자는 (엄마와) 닮았다', '그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등에서 서술어 '살다', '닮다', '넣다' 등은 괄호 안에 들어 있는 부사어를 필히 요구한다. 이때 괄호 안의 말을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제시문의 '주다'도 '누구에게'라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한다.

⇒ 철수는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에게 꽃을 주었다.



더 알아보기

- 나와 자연의 관계를 알고 자연을 이용하며 조화롭게 살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롭게)
- 그는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선생을 무서워했다.(→ 선생에게 맞은)

단어끼리 구끼리 절끼리

- 그곳은 맑은 물과 숲이 잘 어우러져 있다.

말을 나열할 때는 나열어끼리 형태상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게 좋다.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절은 절끼리 맺어 주는 것이다. 제시문은 앞말인 '맑은 물'이 절이고, 뒷말인 '숲'은 홀 단어여서 짝이 안 맞는다. 이 경우 접속의 형평성이 깨져 흐름이 불안하고 의미 전달력도 떨어진다. 나아가 단어, 구, 절 단위로 짝 지어 읽으려는 습관 때문에 '맑은'이 '물'과 '숲'을 동시에 수식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 그곳은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잘 어우러져 있다.



더 알아보기

- 공부 시간과 잠자는 시간의 비율이 거꾸로 되었다.(→ 공부하는 시간)
- 서로 존중하는 마음과 믿음이 약해졌다.(→ 믿는 마음이 [또는 문장 전체를 바꾸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믿음도 약해졌다)

서술 형태의 일치

-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을 읽거나 음악과 같은 예술 작품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제시문에 들어 있는 ‘읽거나’의 ‘-거나’는 앞뒤 말을 대등하게 이어 주는 말(연결어미)이다. 곧 앞말이 동사형이면 뒷말도 동사형, 앞말이 형용사형이면 뒷말도 형용사형이 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웃거나 울다’는 앞뒤 말이 모두 동사이고, ‘예쁘거나 귀엽다’는 앞뒤 말이 모두 형용사이다. 이와 달리 ‘예쁘거나 웃는다’, ‘웃거나 울음이다’ 등처럼 앞뒤 말의 품사를 다르게 하면 짜임이 엉성해진다. 제시문은 앞말(‘읽거나’)은 용언으로 되어 있고 뒷말(‘작품에서’)은 체언으로 되어 있다. 앞뒤 말의 형태를 같게 해야 한다. 한편, 대등하게 이어 주는 말에는 연결어미 ‘-고’, ‘-며’, ‘-지만’ 등이 있고, 조사 ‘와/과’, ‘보다’, ‘나’ 등이 있다.

⇒ 소설 같은 문학 작품을 읽거나 음악 같은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더 알아보기

- 학자들은 퇴비와 같은 천연 비료의 사용이나 해충의 천적인 오리, 우렁이 등을 이용하는 유기 농법을 권장한다.(→ 천연 비료를 사용하거나)
- 지금 당장의 실력보다는 꾸준히 연습하는 선수들이 더 가능성이 크다.(→ 당장 실력을 갖춘 선수보다는)
- 그는 떠난다는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까.(→ 기분이 들었을까)
- 오른쪽 뇌는 음악이나 미술을 할 때 느끼는 정서와 관계가 깊고, 왼쪽 뇌는 계산 등의 논리와 관계가 있다.(→ 관계가 깊다)

생략된 주어 따라가기

-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나만의 제빵 비법이 탄생했어.

이 문장은 주어가 두 개이고 앞 절의 주어는 생략된 형태이다. 그런데 생략된 주어 '내가'를 넣고 보면 문맥이 잘 통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중간에 주어가 바뀐 것이 어색함을 자아내는 원인이다. '~를 겪은 끝에'는 주어의 행위가 지속되다 어느 결과에 다다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앞 절의 주어가 뒤 절의 서술어까지 거느려야 한다. 주어가 생략된 문장이 문법적으로 바른지 확인하려면 이처럼 생략된 주어를 넣어 보면 된다.

⇒ 수차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나만의 제빵 비법을 개발했어.



더 알아보기

- 취업용 스펙 쌓기에 올인하느라 역사와 사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애초부터 없었다.(→ 하지 않았다)
- 이런 개인 정보를 노리고 끊임없이 해킹이 시도되고 있다.(→ 해킹을 시도하고)

부당한 서술어 공유

- 그는 축구는 물론이고 노래도 잘 부른다.

제시문은 '축구'와 '노래'가 목적격으로 쓰여 '잘 부른다'라는 서술어를 공유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즉 '그는 축구를 잘 부르는 것은 물론이고, 노래도 잘 부른다'를 줄인 것이다. 그런데 '축구를 잘 부른다'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예문은 바른 문장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표현이 늘어지더라도 '축구'와 짝을 이루는 서술어를 따로 갖추어 주어야 한다.

⇒ 그는 축구를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래도 잘 부른다.

⇒ 그는 축구는 물론 노래도 잘한다.



더 알아보기

- 이웃 간의 도리와 예절을 지켜야 한다. (→ 이웃 간의 도리를 다하고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 최근 IT 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 최근 IT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수분해가 잘못되면

- 칼숨 섭취 또는 신체 활동이 부족한 사람은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

‘칼숨 섭취 또는 신체 활동이 부족한 사람’은 ‘칼숨 섭취가 부족하거나 신체 활동이 부족한 사람’을 줄인 형태이다. ‘부족한’을 공통 인수로 묶어, ‘또는’으로 이어지는 앞뒤 말이 이를 공유토록 한 것이다. 이 형태가 안정성을 띠려면 ‘또는’으로 이어지는 앞뒤 말이 의미상, 형태상 동질적이어야 한다. 예컨대 ‘음악 또는 미술’은 ‘음악 또는 국어’보다 훨씬 안정돼 있다. 제시문의 경우 ‘칼숨 섭취’와 ‘신체 활동’은 매우 이질적이다. 구조적으로도 ‘칼숨 섭취’는 목적어+서술어 형태이고 ‘신체 활동’은 명사형 수식 구조이다.

⇒ 칼숨이 부족하거나 신체 활동이 적은 사람은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



더 알아보기

- 도시나 부잣집 출신이 배움에 유리하다.(→ 도시 출신이나)
- 직업이나 능력이 좋아야 성공할 기회가 많다.(→ 직업이 좋거나 능력이 뛰어나야)

부사어가 끼어들 때

- 이 물체는 숨을 쉬기 때문에 생명체다.

이 문장은 ‘무엇은 무엇이다’ 꼴이다. 서술어가 ‘체언+이다’의 형태를 띤다. 이 경우 서술어 앞에 놓일 수 있는 말은 체언을 꾸미는 말, 곧 관형어이다. 즉 ‘이 물체는 어떤 생명체다’ 꼴이 되어야 안정적이다. 그런데 제시문은 관형어 ‘어떤’ 대신 부사어 ‘...때문에’가 놓인 형태다. 부사어는 주로 용언형 서술어를 꾸미므로 ‘...때문에’를 살려 두려면 서술부를 용언 형태로 만든다.

⇒ 이 물체는 숨을 쉬기 때문에 생명체로 분류된다.



더 알아보기

- 그 회사의 올해 매출액은 신상품 개발에 힘입어 1억 원이다.(→ 1억 원을 기록했다)
- 그는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가수이다.(→ 가수 소리를 듣는다)

서술부를 심표로 대체할 때

- 반장 선거에서 철수는 영수를, 영화는 민희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철수는 산으로 가고 영화는 바다로 간다’를 줄이면 ‘철수는 산으로, 영화는 바다로 간다’가 된다. 즉 앞뒤 절의 서술어가 같을 때는 앞 절의 서술어를 심표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약 조건이 따른다. 서술어 ‘간다’를 공유하는 앞뒤 말의 형태가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산으로’와 ‘바다로’가 이에 해당한다. 제시문도 앞뒤 절의 서술어가 같아 앞 절의 서술어를 심표로 대체했다. 그런데 서술어를 공유하는 ‘영수’와 ‘민희에 대해’가 형태상 동일하지 않다. 이 경우 서술어를 온전히 공유하지 못해 문맥이 틀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 반장 선거에서 철수는 영수를, 영화는 민희를 지지했다.



더 알아보기

- 여당은 전면 개정을, 야당은 일부만 개정하자고 주장한다.(→ **일부 개정을** [또는 앞부분을] **야당은 전면 개정을 주장하는 반면**)
- 하급 노조는 파업 선언을, 상급 노조는 연대 투쟁에 나서면서 사측을 협공했다.(→ **파업을 선언하고**)

앞뒤 주어를 같게 하는 ‘-려다’, ‘-려고’

-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사람들이 만류했다.

연결어미 ‘-(하)려다’는 앞뒤 절의 주어가 같을 때 쓴다. 즉 ‘철수가 울려다 영희가 웃었다’라는 문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하)려고’도 마찬가지로 ‘철수가 물을 먹으려고 영희가 도와주었다’ 식의 표현은 성립되지 않는다.

⇒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려는데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다.(주어를 달리한 경우)

⇒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해서 못했다.(주어를 같게 한 경우)



더 알아보기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이) 다 타겠다.(→ **초가삼간 다 태우겠다**)
- 강력 접촉제를 만들려다 포스트잇이 만들어졌다.(→ **만드는 과정에서 [또는] ...만들려다 포스트잇을 발명했다**)

앞뒤 주어를 같게 하는 ‘-다가’

- 나는 가끔 글을 쓰다가 문득 독자들이 내 의도를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연결어미 ‘-(하)다가’도 앞뒤 절의 주어가 같을 때 쓴다. 즉 ‘누가/무엇이 A하다가 B하다’의 형태를 나타낸다. 제시문은 ‘나는…쓰다가…생각이 들다’의 형태로서 앞뒤 절의 주어가 다르다.

⇒ 나는 가끔 글을 쓰다가 가끔 독자들이 내 의도를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더 알아보기

- 밥을 지으려다 떡이 됐다.(→ 지으려던 것이)
-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관련 데이터가 지워졌다.(→ 데이터를 지웠다)

앞뒤 주어를 같게 하는 ‘-고도’, ‘-며’

- 정부는 이 사건을 외면했다. 관련자들을 기소해 놓고도 얼마 뒤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났다.

연결어미 ‘-(하)고도’는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한 뒤에 추가적인 행위를 하거나 그와 상반된 행위를 할 때 쓴다. 그러므로 이 말이 들어간 문장은 하나의 주어가 문장 전체를 이끌게 된다. 앞뒤 절의 주어가 다른 문장이 성립되기 어렵다. ‘-고도’ 외에 행위의 동시성을 나타내는 ‘-며’도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 관련자들을 기소해 놓고도 얼마 뒤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도록 수수방관했다.



더 알아보기

- 그 음식점은 손님이 주문하지 않고도 음식이 나온다.(→ 주문하지 않아도)
- 펜션이 부동산 시장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며 많은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투자자가 관심을 끌고 있다)

앞뒤 주어를 다르게 하는 ‘-니’

- 주인에게 연락을 해 보니 이미 팔렸다는 대답만 들었다.

‘내가 쳐다봤더니 모른 체했다’라는 문장을 보자. 주어가 ‘내가’이므로 ‘모른 체했다’의 주체도 ‘나’일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모른 체했다’에서 ‘그는’이 생략된 형태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연결어미 ‘-니’가 나오면 앞뒤 주어가 달라진다는 것을 무의식중에 인지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연결어미 ‘-니’는 앞뒤 절의 주어가 다를 때 쓸 수 있다.

- ⇒ (내가) 주인에게 연락을 해 보니 (그 집은) 이미 팔렸다는 것이었다.(주어를 달리함)
- ⇒ (내가) 주인에게 연락했다가 이미 팔렸다는 대답만 (내가) 들었다.(연결어미 ‘-다가’를 써서 주어를 같게 함)



더 알아보기

- 차량 밑을 보니 바닥에 누워 있는 아이를 발견하여 재빨리 그 아이를 구출했다.(→ **아이가 누워 있어**)
- 한국에 와 보니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와서야** [또는 서술부를] **친절하더라**)

‘은/는’과 ‘이/가’의 구별

- 옛날에 한 농부는 산길을 걷고 있었다.

주어에 붙는 조사 중 대표적인 것은 ‘은/는’과 ‘이/가’이다. 이 둘은 쓰임이 약간 다르다.

첫째, 주어를 처음 소개할 때는 ‘이/가’를 쓴다. 예문이 그런 경우로서, 이때는 ‘농부는’ 대신 ‘농부가’를 써야 한다.

둘째, 이미 아는 주어라도 그 주어를 강조할 때, 곧 관심의 초점을 주어에 둘 때는 ‘이/가’를 쓴다. ‘이번 시험에서 철수가 1등을 했다더라’가 그러한 예이다.

반면 ‘은/는’은 술어부를 강조할 때, 곧 관심의 초점을 서술부에 둘 때 쓴다. ‘영수는 꼴찌라더라’가 그러한 예이다.

셋째, ‘은/는’은 비교, 대조를 나타낼 때 쓴다. ‘철수는 거기에 가지 않았다’가 그러한 예이다.

넷째, ‘은/는’은 설명문, ‘이/가’는 묘사문에 쓴다. ‘사람은 누워서 잔다’와 ‘사람이 누워 있다’가 그러한 예이다.



더 알아보기

-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는데 영희는 철수를 싫어한다.(→ **철수는** : 비교/대조)
- 서울시 관계자가 이번 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관계자는** : 술어부에 초점)

종속절의 주어엔 ‘이/가’

- 남편은 노래를 부르면 아내가 춤을 추었다.

문장이 주절과 종속절로 되어 있을 때, 종속절의 주어는 ‘이/가’로 표시된다. 주절의 주어는 상황에 따라 ‘은/는’으로 표시될 수도 있고 ‘이/가’로 표시될 수도 있다. 예컨대 ‘철수가 오면 영희가 갈 것이다’의 경우 ‘철수가 오면’은 종속절이므로 ‘철수는’ 대신 ‘철수가’를 쓴다.

⇒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가 춤을 추었다.



더 알아보기

- 서양은 지는 해라면 동양은 뜨는 해다.(→ 서양이)
- 우리 부부는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 타이어가 펑크 나고 말았다.(→ 부부가)
- 정부는 아무리 훌륭한 일자리 정책을 구사해도 기업이 호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정부가)

유정물엔 ‘에’, 무정물엔 ‘에게’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을 전수한다.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조사로 ‘에’와 ‘에게’가 있다. ‘에’는 무정물 뒤에, ‘에게’는 유정물 뒤에 붙는다. ‘꽃’은 무정물이므로 ‘꽃에 가까이 가다’라 하고, ‘나비’는 유정물이므로 ‘나비에게 가까이 가다’라고 한다. 제시문의 ‘중소기업’은 무정물이므로 ‘에게’ 대신 ‘에’를 붙이는 게 옳다. 단, 예외도 있다.

– 그는 독재 정권에겐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이 문장에서 ‘독재 정권’은 무정명사이지만 ‘에’를 붙이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독재 정권’이 ‘독재 정권을 휘두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더 알아보기

- 복지 단체에게 쌀을 전달했다.(→ 단체에)
- 독일 국민에 고함(→ 국민에게)

‘~에’와 ‘~에서’의 쓰임

- 지하철은 습기가 많아 벽면에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조사 ‘에’와 ‘에서’는 반대 개념으로 쓰일 때가 많다. ‘서울에 간다’와 ‘서울에서 간다’에서 알 수 있듯 ‘에’는 도착지를, ‘에서’는 출발지를 표시한다. 또 ‘에’는 정적인 상황에, ‘에서’는 동적인 상황에 쓰이기도 한다. ‘서울에 산다’는 서울에 거주한다는 뜻이고, ‘서울에서 산다’는 서울에서 삶을 영위한다는 뜻이다.

⇒ 지하철은 습기가 많아 벽면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더 알아보기

- 아이들이 공부를 외면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점에**)
- 아마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이 동네 원주민일 것이다.(→ **집에**)

‘은/는’을 생략하면

- 체벌은 결코 해서 안 된다.

이 문장은 ‘체벌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장에서 ‘해서는’의 ‘는’을 생략한 것이다. ‘체벌은…해서는’이 조사 ‘은/는’의 중복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한 음절이라도 줄여 간결하게 표현하고자 한 의도도 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의미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해서 안 된다’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 ‘해서 안 된다’는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뜻이다. 즉 이유나 근거를 뜻한다. 반면 ‘해서는 안 된다’는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다. 이때는 금지를 뜻한다.

– 모국어를 소홀히 대접해서 안 된다.

이 문장은 ‘모국어를 소홀히 대접하면 안 된다’라는 본래 의도와 달리 ‘모국어를 소홀히 대접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읽힌다. 조사 ‘는’의 쓰임을 간과한 채 ‘대접해서는’을 ‘대접해서’로 줄였기 때문이다.

‘의’를 생략해야 할 때

- 실업률이 늘어나자 정부가 일자리의 창출에 팔을 걷어붙였다.

체언과 체언이 수식 관계로 이어질 때 조사 ‘의’를 넣을 수도 있고 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은 양자의 결합 유형에 따른다. 예컨대 ‘그녀의 아름다움(그녀가 아름답다)’, ‘친구의 도움(친구가 돕다)’ 등처럼 주술 구조로 이어질 때는 ‘의’를 넣으면 자연스럽다. 그러나 ‘군비 감축(군비를 감축하다)’, ‘상장 수여(상장을 수여하다)’ 등처럼 목술 구조로 이어질 때는 ‘의’를 넣으면 부자연스럽다. 제시문의 ‘일자리의 창출’은 목술 구조이므로 ‘의’를 넣지 말아야 한다.



더 알아보기

- 미국에는 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법률이 잘 갖추어져 있다.(→ 장애인 지원)
-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목적 달성)

‘의’를 넣어야 할 때

- 이것은 현대인 건강에 획기적인 제품이다.

체언과 체언이 수식 관계로 이어질 때 ‘의’를 넣고 빼는 문제는 두 체언의 친밀성과도 연관된다. 예컨대 ‘옷 단추’, ‘신발 끈’ 등처럼 전체와 부분의 관계로 이어질 때, 즉 친밀도가 강할 때는 흔히 조사 ‘의’를 생략한다. 반면 ‘책의 저자’, ‘한국의 미(美)’ 등처럼 친밀도가 약할 때는 ‘의’를 넣는다. ‘철의 여인’ ‘어둠의 자식’ 등처럼 비유를 나타낼 때, ‘서울의 대표 여행지’처럼 뒤에 오는 체언 앞에 수식어가 놓여 있을 때는 ‘의’를 생략하면 안 된다. 제시문의 ‘현대인 건강’도 ‘의’를 넣어 ‘현대인의 건강’으로 적어야 의미 구조가 명확해진다.



더 알아보기

- 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져 침몰 위기이다.(→ 저성장의 늪)
- 경기 침체로 가게 부채 질이 나빠지고 있다.(→ 부채의 질)
- 노인 인구가 전체 30%에 달한다.(→ 전체의 30%)
- 인문계 경우 사탐의 비중이 높다.(→ 인문계의 경우)

같은 조사가 연이어지면

- 세상에서는 흔히 가정은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같은 조사가 연이어지면 조사끼리 음의 간섭을 일으킨다. 예컨대 ‘결국은 그는 떠났다’라는 문장은 ‘은’이 연속되어 읽기가 걸쭉하다. ‘결국은’을 ‘결국’으로 바꾸면 매끄럽게 된다. ‘아파트를 분양을 완료했다’는 ‘아파트 분양을 완료했다’로 바꾼다. 단, 같은 조사의 중첩이 불가피할 때도 있다. ‘그는 학교에 가기는 했다’라는 문장에서 각각의 ‘는’은 자신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없앨 수 없다. 요컨대 글의 의미를 해치면서까지 음의 간섭을 피하려 할 필요는 없다. 제시문은 ‘세상에서는’을 삭제하면 ‘은/는’ 반복이 해소된다.



더 알아보기

- 한국산 제품의 중국 시장 내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 시장 내 위상)
- 철수가 그동안 감기로 고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기 때문에)
- 이번 말고도 과거에도 실패한 적이 있다.(→ 이번 말고)

‘-고’와 ‘-며’의 구별(1)

- 그 사건은 우리와 무관하고 우리는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떤 행위나 상태를 나열할 때는 대등적 연결어미 ‘-고’나 ‘-며’가 쓰인다. 둘 중 어느 것을 써도 의미상 차이는 없지만 상황에 따른 선호도 차이는 있다.

- ① 그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부산에서 취직을 했다.
- ② 그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으며 부산과는 별다른 인연을 맺지 않았다.

①은 성격이 비슷한 두 가지 내용이 같은 무게로 대등하게 연결되었다. 이 경우에는 ‘-고’를 사용한다.
 ②는 화제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했다. 즉 의미상 대등 관계가 아니다. 이 경우에는 ‘-며’를 사용한다. 제시문도 화제가 이동하는 형태이므로 ‘무관하고’보다는 ‘무관하며’가 더 어울린다.



더 알아보기

- 이 병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특별한 약도 없다.(→ **없고**)
- 이 병은 특별한 증상이 없고 종합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없으며**)

‘-고’와 ‘-며’의 구별(2)

- 한때 대기업에서 근무했으며 지금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철수 씨.

‘오고 가는 정’과 ‘오며 가는 정’을 비교하면 전자가 훨씬 익숙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높고 낮은 산봉우리’와 ‘높으며 낮은 산봉우리’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즉 ‘A하며 B하는 C’의 형태보다는 ‘A하고 B하는 C’의 형태가 더 자연스럽다.

- ① 남편은 친절하고 아내는 상냥한 편이다.
- ② 남편은 친절하며 아내는 상냥한 편이다.

①은 ‘남편은 친절한 편이다. 그리고 아내는 상냥한 편이다’라는 뜻으로 읽힌다. ‘친절하다’와 ‘상냥하다’가 ‘편이다’를 동시에 꾸민다. ②는 ‘친절하며’ 뒤에 쉼표가 있어서 한번 쉬어 읽게 하는 느낌을 준다. 그래서 ‘남편은 친절하다, 그리고 여자는 상냥한 편이다’라는 뜻으로 읽힌다. 이는 ‘-며’가 화제의 이동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보다는 ‘-며’가 더 강한 휴지 기능을 한다. 실제로 한 문장에 ‘-고’와 ‘-며’가 같이 쓰였을 때, 둘 중 한 군데에만 쉼표를 넣는다면 ‘-며’ 뒤에 넣는 게 좋다.



더 알아보기

- 공부도 잘하며 운동도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잘하고**)
- 명문대를 나왔으며 좋은 직장에 다니는 청년을 사위로 삼았다.(→ **나오고**)

‘-라고’와 ‘-라며’의 구별

- 증인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다.

인용문 뒤에 붙는 ‘-라고’와 ‘-라며’는 쓰임이 다르다. ‘-라며’는 ‘-라고 (말)하며’의 준말이다. 즉 ‘-라고’는 인용된 사실을 그대로 전할 때 쓰고, ‘-라며’는 인용된 사실과 더불어 다른 행동을 한 사실을 전할 때 쓴다. 제시문의 ‘모른다고 발뺌하다’는 ‘모른다고 말하다’로 대체되므로 ‘발뺌하다’는 ‘말하다’ 부류에 속한다. 따라서 ‘모른다고’가 더 적절한 표현이다.



더 알아보기

- “잘했다”(라)며 칭찬했다.(→ (라)고)
- “사실과 다르다”(라)며 해명했다.(→ (라)고)
- “예쁘다”(라)고 쓰다듬었다.(→ (라)며)
- “유감스럽다”(라)고 불편한 안색을 감추지 못했다.(→ (라)며)

‘-며’와 ‘-면서’의 구별

- 찬바람이 불며 매미 소리가 사라졌다.

‘-면서’는 크게 두 가지 쓰임을 보인다. 첫째는 ‘웃으면서 말하다’처럼 앞뒤 말이 동시적임을 나타낸다. 이때는 ‘-며’와 쓰임이 같아서 ‘웃으면서’를 ‘웃으며’로 대체할 수 있다. 둘째는 다음 예문처럼 ‘…하자’ 또는 ‘…함에 따라’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 ① 봄이 오면서 만물이 가지개를 켜다.(오면서=오자)
- ② 경기가 좋아지면서 음식점들이 활기를 되찾았다.(좋아지면서=좋아지자)

하지만 ‘-며’는 이런 의미로 쓰이지 않으므로 ①, ②에 쓰인 ‘-면서’는 ‘-며’로 바꿀 수 없다. 제시문도 ‘찬바람이 불자 매미 소리가 사라졌다’라는 의미이므로 ‘불며’ 대신 ‘불면서’를 쓰는 게 옳다.



더 알아보기

- 영희가 집을 나서며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나서면서)
- 일본이 프랑스를 꺾으며 8강 진출국을 점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꺾으면서)

‘-며’를 잘못 사용한 경우

-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으며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

‘-며’는 앞뒤 말을 나열할 때 쓰는 연결어미이다. 나열의 기본 속성은 앞뒤 말의 대등성에 있다. 즉 앞말이 동사형이면 뒷말도 동사형, 앞말이 형용사형이면 뒷말도 형용사형이어야 구성이 탄탄하다. 예컨대 ‘그는 시를 잘 쓰며 교수이다’라는 문장은 동사형과 ‘체언+이다’ 형의 조합이므로 어색하게 느껴진다. 제시문 역시 부정문과 긍정문의 결합이어서 ‘-며’로 연결하기가 어렵다. 이럴 땐 두 문장으로 나누는 게 좋다.

⇒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 없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



더 알아보기

- 그 음식점은 맛의 원조로 불리며 많은 사람이 찾는다.(→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
-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자유이며 빵이 필요하지 않다.(→ 빵이 아니라 자유이다)

부정문과 못 어울리는 ‘-도록’

-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서는 안 된다.

제시문은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면 안 된다’, 곧 지원하지 말라는 의미로 읽히기 십상이다. 왜냐하면 ‘-도록’이 바로 뒤에 나오는 서술어까지만 수식하려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이다. 즉 ‘성장할 수 있도록’이 뒷부분 전체인 ‘지원을 아끼지 말라’가 아닌 ‘지원을 아끼다’까지만 수식하는 것이다. 이는 ‘-도록’이 그 뒤에 나오는 부정어와는 잘 호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도록’은 긍정문과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더 알아보기

-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규 인력 충원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인력을 꾸준히 충원해야 한다**)
-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거름을 주어야 한다**)

동사와만 어울리는 ‘-려면’

- 대기업이려면 직원이 3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려면’은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말로서 동사 뒤에만 붙는다. 즉 ‘먹으려면’, ‘가려면’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예쁘려면’, ‘고우려면’ 등의 형태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명사+이다’ 꼴과도 결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시문의 ‘대기업이려면’은 동사형 ‘대기업이 되려면’으로 표현한다. 한편 ‘-려면’이 동사와 결합할 때도 제약이 따른다.

– 꽃이 잘 자라려면 햇빛을 자주 쏘여야 한다.

‘-려면’이 의도를 나타낸다고 했거니와 이 문장에서 주어인 ‘꽃’은 무정물이므로 의도를 나타내는 말과 어울릴 수 없다. 그러므로 ‘꽃이 잘 자라려면’은 어색한 표현이 된다. 이 문장은 사동 표현인 ‘꽃이 잘 자라도록 하려면 햇빛을 자주 쏘게 해 준다’로 표현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 꽃이 죽지 않으려면 물을 제때 주어야 한다.(→ **죽지 않게 하려면**)
- 얼굴이 예쁘려면 마음이 착해야 한다.(→ **예뻐 보이려면**)

같은 연결어미가 연이어지면

- 그 회사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해외에 판매하여 위기를 극복했다.

한 문장에 같은 연결어미가 연속으로 나오면 중언부언하는 느낌이 든다. 또 연결어미끼리 음의 간섭을 일으키기도 한다. 제시문은 ‘-(하)여’가 연속으로 나왔다. 다음의 여러 형태로 바꿀 수 있다.

- ⇒ 그 회사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해외에 판매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다.
- ⇒ 그 회사는 신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해외에 판매하여 위기를 극복했다.

다른 연결어미도 마찬가지다.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더 알아보기

- 그 회사는 주주총회를 열고 새 이사를 선임하고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열어**)
-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상품 판매가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다.(→ **줄어들자**)
- 형제가 싸우지 않도록 동생을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살도록 했다.(→ **이사 가게**)
- 날씨가 추우므로 감기에 걸릴 수 있으므로 문을 꼭 닫아야 한다.(→ **추워**)
- 어제 과로해서 병이 나서 연습장에 못 갔어.(→ **병이 나는 바람에**)

수식 형태의 일치

- 우리는 긍정적이고 창조적 자아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긍정적이고 창조적 자아상’은 관형어 두 개가 명사 하나를 동시에 수식하는 구조이다. 이 경우 두 수식어의 형태를 같게 하면 일종의 대구를 이루어 읽기 편해진다.

⇒ 우리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자아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더 알아보기

- 키가 크고 미모인 여자(→ **얼굴이 예쁜**)
- 생산비가 높고 비효율적인 시스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중 수식 피하기

-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가 큰 지진들에 대해 알아보자.

글의 흐름을 방해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겹 수식 구조이다. 겹 수식 구조란 수식어 두 개가 피수식어 하나를 공유하는 구조를 말한다. ‘찌는 듯한 무더운 날’이 그러한 예이다. 이 형태는 ‘찌는 듯한’이 이웃한 뒷말 ‘무더운’을 건너뛰고 그 뒤의 ‘날’을 수식한다. 그런데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수식어는 이웃한 뒷말을 수식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 이 고정관념을 깨는 표현이 나오면 일순 긴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찌는 듯한’을 ‘찌는 듯이’로 바꾸어 이웃한 뒷말을 수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서 규모가 큰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더 알아보기

- 눈길을 끄는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 디자인이 돋보여 눈길을 끄는 제품)
- 가입 신청을 한 20명이 넘는 고객.(→ 20여 명의)

수식 대상을 확실히

- 날로 증가하는 화재 예방을 위해 노력하자.

‘화재가 증가한다’라는 의미를 담고자 한 것이 ‘화재 예방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되었다. 수식어(관형어)는 이웃한 명사를 꾸미는데, 명사가 여러 개 나열돼 있으면 나열된 말 전체 또는 맨 뒤의 말을 꾸미려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식어가 꾸미는 대상을 확실히 지정해야 의미가 명확해진다.

⇒ 날로 증가하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자.



더 알아보기

- 처녀 때부터 다니던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이어 왔다.(→ **처녀 때부터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계속해 왔다**)
- 회사 측은 밤 10시까지 하던 잔업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잔업을 금지하도록 명령했다**)

수식의 범위에 따른 중의성

- 극적으로 살아난 농부의 아들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몰락한 제국의 해군 장교’에서 ‘몰락한’이 꾸미는 것은 앞말인 ‘제국’이다. 반면 ‘시커먼 화산의 재’에서 ‘시커먼’이 꾸미는 것은 뒷말인 ‘재’이다. 이처럼 관형어가 조사 ‘의’로 연결된 두 명사를 꾸미는 형태에 서는 그 관형어가 꾸미는 말이 어느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문맥에 따라 선택된다. 그런데 문맥상으로도 어느 쪽을 꾸미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성공한 철수의 아버지’에서 ‘성공한’이 꾸미는 것은 ‘철수’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다. 제시문도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농부인지 농부의 아들인지 불분명하다. 이 경우에는 수식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더 알아보기

- 미국에서 결혼한 그들 부부의 딸은 미국 땅을 밟아 보지 못했다.(→ **그들 부부는 미국에서 결혼했지만 그 딸은**)
- 대학교를 졸업한 그의 부인은 중졸 출신이다.(→ **그는 대학교를 졸업했고, 그의 부인은 중학교를 졸업했다**)

문맥과 동떨어진 수식어

- 고은 시인은 얼마 전에 발표된 노벨 문학상의 단골 후보이다.

체언이 관형어를 품으면 그 체언은 문장 내에서 관형어와 한 몸을 이루어 다른 문장 성분과 결합한다. 예컨대 ‘영희가 걸어간다’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고 ‘서울에 사는 영희가 걸어간다’라는 표현은 부자연스러운데, 후자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서울에 사는 영희’가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어 ‘걸어간다’와 결합하기 때문이다.

- ① 영희는 어제 1등을 한 철수를 좋아한다.
- ②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다.

①에서 영희가 좋아하는 사람은 ‘철수’가 아닌 ‘어제 1등을 한 철수’이고, ②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오바마’가 아닌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오바마’이다. 즉 글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다. 같은 이유에서 제시문의 ‘얼마 전에 발표된 노벨상의 단골 후보’는 ‘매년 발표되는 노벨상의 단골 후보’로 바뀌어야 한다.



더 알아보기

- 지난해 급락했던 중국 증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시가 올해는 반등할 것이라는)
-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1월 생산자물가 지수는 102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1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102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부사어의 바른 위치

- 그들은 상대 팀에 긴장해서 졌다.

부사어는 문장 내 위치의 이동이 자유롭다. 하지만 간혹 위치가 바뀌면 글의 의도가 달라질 때도 있다. 예컨대 ‘철수는 영희를 진짜 좋아한다’와 ‘철수는 진짜 영희를 좋아한다’는 의미 차이가 크다. 위의 제시 문은 두 부사어 ‘상대 팀에’와 ‘긴장해서’의 위치가 뒤바뀐 경우이다. 이 때문에 ‘긴장해서 (상대 팀에) 졌다’라는 의도를 나타내고자 했건만 ‘상대 팀에 긴장해서’ 졌다는 의미가 되고 말았다.



더 알아보기

- 그는 직장을 졸업도 하기 전에 다닌다.(→ 졸업도 하기 전에 직장을)
- 철수가 생각했던 대로 1등을 했다.(→ 생각했던 대로 철수가)

의문형과 어울리는 ‘얼마나’

- 비행기 사고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으면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을 계산해 주는 앱까지 나왔다.

‘얼마나’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맛있니’ 등처럼 주로 의문형과 결합한다. 물론 반드시 의문형과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얼마나 비싼지 살 엄두를 내지도 못했다’ 등처럼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어울리기도 한다. 다만 제시문처럼 ‘얼마나...하면’으로 시작되는 문장은 대개 의문형을 띠게 된다.

- ⇒ 비행기 사고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컸으면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을 계산해 주는 앱까지 나왔을까.
- ⇒ 비행기 사고에 대한 공포가 크다 보니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을 계산해 주는 앱까지 나왔다.



더 알아보기

- 얼마나 놀랐으면 지금까지 말도 못하는구나.(→ 말도 못할까)
- 얼마나 추웠으면 바닷물이 다 얼었다.(→ 다 얼었을까)

부정문과 어울리는 ‘결코’, ‘좀처럼’

- 경기가 좀처럼 안 풀릴 것 같다.

‘좀처럼’, ‘결코’ 등의 부사는 부정문을 수반한다. ‘좀처럼/결코 ~하지 않다’ 등으로 실현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정을 나타내는 ‘안 하다’, ‘못하다’, ‘않는다’, ‘없다’ 등이 문장의 맨 뒤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① ‘좀처럼 먹으려 하지 않는다’ ② ‘좀처럼 먹지 않으려 한다’ ③ ‘좀처럼 안 먹으려 한다’에서는 ①이 가장 안정적인 표현이 된다. 또 ④ ‘결코 남을 해칠 사람이 아니다’와 ⑤ ‘결코 남을 안 해칠 사람이다’에서는 ④가 안정적이다. 이 밖에 ‘여간’, ‘별로’, ‘차마’ 등의 부사도 이와 유사한 부정 구문을 이룬다.

⇒ 경기가 좀처럼 풀릴 것 같지가 않다.



더 알아보기

- 그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은 일이었다.(→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 가슴팍이 떡 벌어진 게 여간 다부지지 않은 몸매였다.(→ 여간 다부진 몸매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 철수는 지각을 했다. 왜냐하면 아침에 늦잠을 잤다.

‘왜냐하면’은 부사로서 흔히 문두에 놓인다. 그리고 ‘때문이다’라는 서술어와 짝을 이루어 ‘왜냐하면… 때문이다’의 문형으로 실현된다. 이처럼 부사와 서술어가 짝을 이루는 표현은 ‘비록…그러라도’, ‘아마…그러걸’, ‘모름지기…해야 한다’ 등 매우 많다.

그런데 간혹 ‘때문이다’ 대신 단순 종결형 ‘-다’를 쓰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과 ‘때문이다’가 공히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어서 표현이 중복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중복이 아니라 서로 짝을 이루어 붙어 다니는 관계이다.

⇒ 철수는 지각을 했다. 왜냐하면 아침에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더 알아보기

- 나는 그의 실패를 탓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최선을 다했다.(→ 다했기 때문이다)
- 그는 이곳에 오지 않았어.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그는 미국에 있어.(→ 있으니까)

‘~고 있다’ 가려 쓰기

- 하루 한 끼 이상 굶고 있는 사람이 매년 늘고 있다.

우리말은 현재형과 현재 진행형을 구별하지 않고 쓸 때가 많다. 일례로 ‘철수가 밥을 먹는다’와 ‘철수가 밥을 먹고 있다’가 뚜렷한 의미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양자를 구분해서 쓸 때도 많다. 예컨대 ‘좋다, 나쁘다, 즐겁다, 징그럽다’ 등과 같은 심리 동사는 진행형으로 쓰이지 않는다. 반면 ‘증세가 호전되고 있다’처럼 일어나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때는 진행형이 더 어울린다.

제시문은 진행형 ‘-고 있다’가 연이어져 있다. 둘 중 하나를 달리 표현하는 게 좋거니와 이 경우에는 앞부분 ‘굶고 있는’을 ‘굶는’으로 바꾸는 게 좋다. 평소의 행위 양상을 나타낼 때는 현재형을 쓰는 게 낫기 때문이다.

**더 알아보기**

- 그는 평소 커피 대신 주스를 마시고 있다.(→ 마신다)
- 북한산은 서울 시민들이 사시사철 즐겨 찾고 있는 산이다.(→ 찾는)

‘...중이다’ 가려 쓰기

- 그 법안이 심의 중이다.

‘협상, 진행 중인가?’라는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능동문 ‘협상을 진행하는 중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피동문 ‘협상이 진행되는 중인가’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이다’는 ‘...되는 중이다’보다는 ‘...하는 중이다’의 준말로 쓰인다. 예컨대 ‘치료제를 개발/연구 중이다’는 자연스럽지만 ‘치료제가 개발/연구 중이다’는 부자연스럽다. 후자는 ‘치료제가 개발/연구되고 있다’로 표현하는 것이 상례이다.

⇒ 그 법안이 심의되고 있다.

⇒ 그 법안을 심의 중이다.



더 알아보기

- 그 사건의 해결책이 논의 중이다.(→ 논의되고 있다)
- 공안 당국에 억류 중인 탈북자들이 많다.(→ 억류돼 있는)

‘...중이다’와 ‘...중에 있다’

- 그들은 열애 중에 있다.

‘법안이 심의 중이다’가 어색하기는 해도, ‘심의 중’이라는 표현을 버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대체 표현인 피동문 ‘법안이 심의되고 있다’보다 간결하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가 반영되어 생겨난 것이 흔히 외래식 표현이라고 하는 ‘...중에 있다’이다. ‘심의 중에 있다’, ‘확인 중에 있다’, ‘진행 중에 있다’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능동문에 쓰인 ‘중이다’를 ‘중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낭비적이다. 예컨대 ‘회의를 진행 중이다’라는 간명한 표현을 두고 굳이 늘어지는 ‘회의를 진행 중에 있다’를 택할 이유가 없다. 제시문도 ‘그들은 열애 중이다’로 적으면 간결해진다.



더 알아보기

- 구청 측은 현재 ‘장애인 쉼터’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운영 중이라고)
- 보건소마다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 중에 있다.(→ 실시 중이다)

잡은 물고기와 잡힌 물고기

- 오전부터 치르는 시험은 오후까지 이어진다.

능동형 ‘치르는’으로 할 것인가, 피동형 ‘치러지는’으로 할 것인가. 옳고 그름을 떠나 더 자연스러운 문장을 고르려면 ‘치러지는’을 택한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시험은’을 주어로 하는 다음 두 문장이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 시험은 오전부터 치러진다.
- ㉡ 시험은 오후까지 이어진다.
- ㉠+㉡ 오전부터 치러지는 시험은 오후까지 이어진다.

물론 ‘치르는’도 못 쓸 건 아니다. 이 경우에는 관형절의 주어 ‘우리가’가 생략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치러지는’에 비해 덜 안정적일 뿐이다.



더 알아보기

- 1971년 출시한 새우깡은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출시된)
- 새우깡은 1971년 출시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출시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은 사실인 것 같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을 인용한 문장인데, 직접 인용도 아니고 간접 인용도 아닌, 어정쩡한 인용 형태이다.

- 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은 사실인 것 같다.
- ②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다.

직접 인용문은 ①처럼 인용 부분을 따옴표로 쓴 뒤 ‘-라고/-라는’ 등으로 연결하고, 간접 인용문은 ②처럼 따옴표 없이 인용 부분을 ‘-고/-는’으로 직접 연결한다.

• 대통령은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신문 등에서는 직접 인용을 나타낼 때도 이처럼 ‘-라고’가 아닌 ‘-고’를 많이 쓴다. 이는 신문이 구어체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구어체는 직접 인용문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간접 인용문의 틀을 빌린 것이다. 일부 국어학자는 이를 규범 위배로 보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구어체와 문어체의 성격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정 표현에 어울리는 ‘때문에’

• 그는 친구 때문에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다.

‘철수 때문에 졌어’는 자연스럽고 ‘철수 때문에 이겼어’는 부자연스럽다. 후자의 경우 ‘철수 덕분에 이겼어’로 표현한다. ‘때문에’는 긍정 표현과 부정 표현에 두루 쓰이지만 이처럼 사람과 관련된 표현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때문에’는 ‘탓에’로 바꿀 수 있지만, 사람 뒤에는 ‘탓에’가 오기 어렵다.

- 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
- ② 공부를 안 한 탓에 떨어졌다.
- ③ 철수 때문에 실패했어.
- ④ 철수 탓에 실패했어.(?)

이 밖에 ‘-는 통에’도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에 쓰인다.

- ⑤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통에 공부를 못 했다.
- ⑥ 친구들이 웃고 떠드는 통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정문이 지닌 중의성

- 그의 희생은 아름답고 무의미하지 않다.

‘밥을 먹고 학교에 가지 않았다’라는 문장을 보면 밥을 먹었다는 뜻인지 안 먹었다는 뜻인지 헷갈린다. ‘밥을 안 먹고 학교에 갔다’ 또는 ‘밥만 먹고 학교엔 가지 않았다’ 등으로 의미가 뚜렷해지도록 해야 한다. 제시문도 희생이 아름답다는 것인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오히려 의도와 달리 ‘아름답지 않다’는 쪽으로 읽히기 쉽다. ‘아름답고’의 ‘-고’가 뒷말과 직접 결합하려는 특성이 있어서 ‘아름답고 무의미하지’가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어 ‘않다’와 결합하려 하기 때문이다.

⇒ 그의 희생은 아름답다.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 그의 희생은 아름답고 충분히 의미가 있다.



더 알아보기

- 남성성의 가치를 회복하고 여자들에게 편리한 남자가 되지 마라.(→ 회복하라. 그리고)
- 이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없다.(→ 효율적일뿐더러)

겹말, 사족

- 그는 주로 역사책을 자주 애독한다.

흔히들 겹말(이중 표현)을 피하라고 하지만 모든 겹말을 다 피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가(家)’와 ‘집’이 겹친 ‘처갓집’, ‘초가집’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처가’나 ‘초가’보다도 널리 사용된다. ‘피(被)’와 ‘입다’가 겹친 ‘피해를 입다’도 사전에 용례로 나와 있다. 하지만 사족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겹말은 피해야 한다. ‘악취 냄새’, ‘10여 명 이상’, ‘돈을 송금하다’ 등이 그런 예이다. 제시문은 ‘주로’와 ‘자주’와 ‘애(愛)’가 의미상 유사하기 때문에 중언부언한 느낌을 준다. ‘그는 주로 역사책을 읽는다’ 또는 ‘그는 역사책을 애독한다’로 바꾸면 깔끔해진다.



더 알아보기

- 정성과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정성을 다해)
- 서로 돕는 민족만이 번성하고 살아남았다.(→ 번성했다)
- 그들은 열성적으로 학문을 연마하며 열심히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주술 동어 반복

- 그 땅은 조상들이 피땀 흘려 일구어 놓은 땅이다.

이 문장은 ‘땅은…땅이다’의 구성을 보인다. 주술 동어 반복형이다. ① ‘이 시계는 비싼 시계다’나 ② ‘이 돈은 무서운 돈이다’ 등도 같은 형태인데, 어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같은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낭비적인 측면이 있다. 동어 반복을 피하는 방법으로 ①은 ‘이 시계는 비싸다’로 바꾸면 되지만 ②는 ‘이 돈은 무섭다’로 바꿀 수 없다. 그렇다고 ‘이것은 무서운 돈이다’나 ‘이 돈은 무서운 것이다’로 바꾼들 원문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 같은 주술 동어 반복형 문장은 대안적인 표현이 신통치 않을 경우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한편, 제시문은 서술어 ‘땅이다’를 ‘것이다’로 바꿀 수 있어 보인다.



더 알아보기

- 다음 과제는 지금까지 제시된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이다.(→ **훨씬 어렵다**)
- 그 부족은 서로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 부족이었다.(→ **좋아했다**)

같은 용언의 반복

-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이 문장은 ‘맺다’라는 용언이 반복되었다. 이처럼 같은 용언이 반복되면 단조로운 느낌이 든다. 하나를 다른 말로 바꾸어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즉 앞부분 ‘맺기’를 ‘형성하기’로 바꾸거나 뒷부분 ‘맺었다’를 ‘체결했다’로 바꾼다. 다른 말로 바꾸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음 예문처럼 문장의 구조를 바꾼다.

- 그동안 매도에 나선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에 나섰다.

⇒ **그동안 매도로 일관하던 외국인이 오늘도 매도에 나섰다.**



더 알아보기

-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에 대해 논의했다.(→ **반응을 살피고 대책을 논의했다**)
-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다.(→ **얼굴이 아름다운**)
- 통상 4분기에는 재고 조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
(→ **변동성이 커진다**)

과장 표현

- 베이징의 황사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한다.

‘간이 콩알만 해졌다/산더미 같은 파도’ 등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양해된 과장이다. 이와 달리 양해 되기 어려운 뽕튀기 식 과장이 있다. 원문의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도 그중 하나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표현해도 충분하다.

- 가정주부가 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힘도 들어서 직장에서도 돈을 버는 것만 못지않다.

‘가정주부가 하는 일은 대단히 힘이 든다’라는 명제는 참이 되기 어렵다. 힘든 일도 있지만 힘이 들지 않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역시 과장된 표현에 해당한다.



더 알아보기

-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등했다.(→ **올랐다**)
-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한다.(→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한다**)

‘들’을 붙이지 않는 경우

-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영어는 복수 표현이 발달해 있지만 우리말은 그렇지 않다. 예컨대 영어는 ‘책들이 많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말은 ‘책이 많다’라고 한다. 즉 우리말은 문장 속에 복수임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들어 있으면 따로 ‘들’을 붙이지 않는다. 제시문도 ‘사람들이’를 ‘사람이’로 바꾸어야 우리말다운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 ‘들’을 붙여서는 안 되는가. 우리말다움이 덜할 뿐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이런 번역투 표현을 타 문화 흡수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 사회가 복잡해진 현대에는 때로 언어도 좀 더 정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영어처럼 복수를 확실히 밝히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들’이 없어야 더 자연스럽다.



더 알아보기

- 공원에 놀이 기구들이 많다.(→ 놀이 기구가)
- 옛날에 발생한 사건들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다.(→ 사건을)
- 이 성벽은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만들었다.(→ 돌을)

‘가지다’ 남용

- 나와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지다(갖다)’는 본래 ‘소유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지만 쓰임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여러 의미로 분화되었다. ‘모임을 가지다’, ‘개인전을 가지다’ 등도 그중 하나이다. 이는 영어 ‘have’를 ‘가지다’로 직역하는 습관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번역투 표현은 대개 단어 결합력이 약하기 때문에 낱금스러운 느낌을 주기 십상이다. ‘…에 다름 아니다’도 그중 하나로서, ‘…와 다를 바 없다’라는 토종 표현이 훨씬 자연스럽다.

⇒ 나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 알아보기

- 우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 **견해가 다른**)
- 당신은 아주 단단한 코를 가졌으니 이런 구린내쯤은 아무렇지도 않겠지. (→ **코가 아주 단단하니**)

‘것이다’ 남용

- 그가 문제를 잘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문장의 서술부를 ‘-이다/-하다’ 대신 ‘-인 것이다/-하는 것이다’로 끝맺을 때가 있다. 이때의 ‘것이다’는 주로 앞 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기능을 한다. ‘차가 멈췄다. 고장 난 것이다’가 그런 예이다. 물론 이 유형의 ‘것이다’는 ‘고장 난 것인 줄 알았다’처럼 문장 중간에 놓이기도 한다.

앞말을 강조할 때도 ‘것이다’가 사용된다. 예컨대 ‘그게 권력이다’라는 표현에서 ‘권력이다’에 힘을 주려면 ‘그게 권력인 것이다’로 할 수 있다. 이 밖에 확신이나 소신을 나타내기도 한다. ‘담배는 해로운 것이다’, ‘이 제품은 인기를 끌 것이다’ 등이 그런 예이다.

그런데 앞말을 강조할 필요가 없고, 확신이나 소신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것이다’를 쓰는 경우가 많다. 앞의 예문 ‘담배는 해로운 것이다’도 ‘담배는 해롭다’로 표현하면 충분하다. ‘부패는 사라져야 한다’를 ‘부패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로 표현하면 오히려 확신이나 소신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이 밖에 제시문처럼 ‘것이다’를 연이어 쓰는 것도 피할 일이다. 이 문장은 ‘것이다’가 부연 설명하는 기능을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예상된다’로 맺으면 간결하고 힘도 있다.



더 알아보기

- 자전거가 차로로 달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자전거 운전자를 욕한다.(→ **당연한데**)
- 나의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검토해 보자.(→ **올바른지**)

세 개의 사과, 사과 세 개

- ① 내가 하나의 질문을 해 보겠네.
- ② 두 마리의 토끼가 뛰어놀고 있다.

①의 '하나의 질문'은 번역투 표현이다. '한 가지 질문'이나 '질문 하나'로 표현해야 우리말답다. 또 ②의 '두 마리의 토끼'보다는 '토끼 두 마리'가 더 우리말답다.

- 절대다수의 비행기는 놀라울 정도로 적은 사고의 위험이 있다.

위의 문장은 우선 '절대다수의 비행기'가 전형적인 번역투이다. 그렇다고 '대부분의 비행기'로 대체한들 어색함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 문장은 '사실 비행기는...'으로 시작하면 자연스러워진다. '적은 사고 위험이 있다'도 '사고 위험이 적다'로 표현한다.



더 알아보기

- 그래도 오직 한 명의 일꾼만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일꾼 한 명**)
- 개와 고양이는 네 개의 다리를 가진 동물이다.(→ **다리가 네 개 달린**)

명사화 문장 풀어쓰기

- 여름엔 수해 방지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수해 방지 대책 마련’은 명사 4개가 죽 이어져 있어 글이 딱딱한 느낌을 준다. 또 읽어 내려가다 보면 혀가 꼬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처럼 명사가 죽 나열되면 간결하기는 하지만 문법 관계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 모바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 제대로 된 티켓 검사를 하는지 의문이다.(→ 티켓 검사를 제대로)
-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 내 집을 마련하려는)

‘X를 Y하다’와 ‘XY를 하다’

- 그 아파트는 분양 완료를 했다.

목적어와 서술어의 결합은 대개 ‘X를 하다’나 ‘X를 Y하다’의 형태로 실현된다. ‘분양을 하다’가 전자의 경우이고, ‘분양을 완료하다’가 후자의 경우이다. 제시문에 쓰인 ‘분양 완료를 하다’는 이와 달리 ‘XY를 하다’의 구조인데, 이는 ‘분양을 완료하다’에 비해 불안정하다.

다만 ‘실내 정돈’, ‘조직 개편’ 등처럼 하나의 의미 단위로 굳어진 표현은 ‘XY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쓰인다. 예컨대 ‘조직 개편을 밥 먹듯이 한다’를 ‘조직을 밥 먹듯이 개편한다’로 바꾸면 오히려 어색해진다.



더 알아보기

- 기업의 실적을 토대로 옥석 가리기를 하고 있다.
(→ 옥석을 가리고 있다 [또는]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 체계적인 조직 구성을 하면서 회사가 안정됐다.(→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면서)
- 그 회사는 올해 지주사 전환을 했다.(→ 지주사로 전환했다 [또는] 지주사 전환을 마쳤다)
- 그 은행은 ‘우리홈 IoT 뱅킹’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권위적이 되다

- 그 사람 돈 좀 벌더니 제법 권위적이 되었군.

‘적’은 명사 뒤에 붙어 ‘그 성격을 띠는’, ‘그에 관계된’이라는 뜻을 더해 준다. ‘권위적인’, ‘권위적으로’ 등의 표현이 가능하다. 종결형으로 ‘권위적이다’라고도 한다.

하지만 제시문의 ‘권위적이 되다’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 ‘권위적’ 자체를 독립된 명사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 그 사람 돈 좀 벌더니 점점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군.

⇒ 그 사람 돈 좀 벌더니 점점 권위적으로 변해 가는군.



더 알아보기

- 산업혁명으로 비용이 하락해 제조업이 더욱 생산적이 되었다.
(→ 제조업의 생산성이 더욱 높아졌다)
- 수거 배송 시스템이 효율적이게 되었다.(→ 효율성을 갖추었다)

‘추운 등’, ‘했는 등’

- 금년 겨울은 유난히 추운 등 예년 같은 날씨가 아니다.

‘등’은 동사 뒤에 놓여 그 앞에 언급된 것과 같은 유형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낸다. ‘노는 등’, ‘잠자는 등’, ‘떠드는 등’ 등으로 표현된다. 제시문은 이와 달리 ‘등’이 형용사 뒤에 놓였다. ‘등’은 형용사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예쁜 등’, ‘아름다운 등’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 금년 겨울은 예년과 달리 날씨가 유난히 춥다.

한편, ‘등’은 과거형과도 안 어울린다.

- 그는 장난감을 집어던졌는 등 하루 종일 심통을 부렸다.(?)

이 밖에 ‘등’과 잘 어울리지 않는 동사도 있다.

- 총선이 임박하는 등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

‘임박하다’는 주로 과거형과 결합하여 ‘임박했다’, ‘임박했던’ 등으로 쓰인다. 현재형 ‘임박한다’나 ‘임박하는’으로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등’과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하는 등’과 결합하는 말

- 그는 일류대를 졸업하는 등 사회에서 대들보 역할을 했다.

‘...하는 등’의 ‘등’은 뒷말이 앞말을 포괄하는 관계일 때 쓴다. ‘그는 갑자기 웃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뒷말인 ‘이상한 행동’이 앞말인 ‘웃는 행동’을 포괄한다. 또 ‘비가 오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았다’의 경우 ‘날씨가 좋지 않음’이 ‘비가 오름’을 포괄한다. 제시문이 어색한 이유는 ‘대들보 역할’이 ‘일류대 졸업’을 포괄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들보 역할’과 ‘일류대 졸업’은 연관성이 희박하다.

- 불경기 때문에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역시 논리 흐름이 순조롭지 않다. 스스로 등록금을 동결해 놓고 어려움을 겪는다니, 앞뒤가 안 맞는다. ‘불경기를 맞아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하는 등 고통을 감내하는 처방을 내놓았다’ 정도면 되겠다. 이 경우 ‘고통을 감내하는 처방’이 ‘등록금 동결’을 포괄한다.

‘등’으로 이어지는 앞뒤 말의 품사

- 그는 자주 지각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다.

‘등’은 앞뒤 말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준다. 앞말이 명사형이면 뒷말도 명사형, 앞말이 동사형이면 뒷말도 동사형이 된다. ‘서울, 인천 등 각지로 떠돌다’의 경우 ‘서울, 인천’이 명사이고 ‘각지’도 명사이다. ‘그는 돈을 훔치는 등 도둑질을 했다’는 ‘돈을 훔치다’와 ‘도둑질을 하다’가 같은 동사형이다. 의미상으로도 잘 대비되어야 한다. ‘그는 돈을 훔치는 등 도둑을 따라다녔다’는 앞뒤 말이 같은 동사형이지만 돈을 훔치는 행위와 도둑을 따라다니는 행위가 잘 대비되지 않는다.

⇒ 그는 자주 지각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탓에 회사에서 잘렸다.



더 알아보기

- 그 회사가 성공한 것은 판매망을 늘리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이다.
(→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기 때문이다)
- 중소기업이 기업 전체의 99%를 차지하는 등 경제의 뿌리이다.(→ 뿌리 역할을 한다)

‘…하는 가운데’와 결합하는 말

- 살인 개미가 발견된 가운데 정부가 성묘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부도가 난 가운데 사장이 잠적했다’와 ‘부도가 나서 사장이 잠적했다’는 의미가 다르다. 전자는 부도가 난 상황에서 사장이 잠적했지만 그 잠적이 부도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는 뜻이다. 후자는 부도 때문에 잠적했다는 뜻이다. 요컨대 ‘…하는 가운데’는 앞말이 뒷말의 배경임을 나타낼 뿐, 직접적인 원인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저시문은 성묘객에게 주의를 당부한 이유가 살인 개미의 발견 때문이므로 앞말이 뒷말의 원인임을 나타낸다. 이때는 ‘가운데’를 쓰기 어렵다.

⇒ 살인 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정부가 성묘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더 알아보기

- 미국에서 최악의 총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인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발생했지만)
- 유가가 오른 가운데 자동차가 안 팔린다.(→ 오른 탓인지)
- 가슴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된 가운데 친환경 세제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확산되면서 [또는] 확산됨에 따라)

경쟁력을 잃은 ‘…할 시’

- 규칙을 어길 시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할 시’는 옛날식 어투로서 요즘 언어와는 괴리가 있다. 정부 기관 등의 행정 문서에는 아직도 이 말이 성행하지만 일반 글에서는 ‘…할 때’나 ‘…할 경우’를 많이 쓴다.

그렇다고 한자어 ‘시(時)’를 무조건 버릴 일은 아니다. ‘취득 시’, ‘처분 시’, ‘운행 시’ 등과 같은 ‘명사+시’ 꼴은 일반 글에도 널리 쓰인다. 요컨대 명사 뒤에 ‘시’가 붙은 형태는 지금도 널리 사용되는 표현법이고, 용언형 뒤에 ‘시’가 붙은 형태는 옛날식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 학점은행제로 공부할 시 시간 활용도가 매우 높다.(→ 공부하면)
- 자격증을 취득할 시 취업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취득하면 [또는] 취득할 경우)

‘때문’과 ‘까닭’의 상반된 결합력

- 소득이 많았던 때문에 지출도 많았다.

‘때문’은 흔히 명사형 어미 ‘-기’와 결합하여 ‘-기 때문’으로 표현된다. ‘먹기 때문’, ‘웃기 때문’ 등이 그것이다. 예문은 이와 달리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하여 ‘-ㄴ 때문’으로 쓰였는데, 이는 옛날식 언어 습관이라 할 수 있다. 문법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나 때문에’, ‘일 때문에’ 등처럼 ‘때문에’ 앞에는 명사가 놓인다.

‘때문’과 반대로 ‘까닭’은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한다. ‘먹은 까닭’, ‘웃은 까닭’ 등으로 실현된다. ‘...하기 까닭에’와 같은 표현은 비문법적이다.

이 밖에 명사형 뒤에만 놓고 관형사형 뒤에는 놓이지 않는 말로 ‘자체’가 있다. ‘자체’는 ‘모습 자체’, ‘그 자체’ 등처럼 다른 명사 뒤에 놓여 그 명사를 부연하는 기능을 한다.



더 알아보기

- 날씨가 춥기 까닭에 고생을 많이 했다.(→ 추운 까닭에)
- 북한과 미국이 양자회담을 재개하겠다는 자체가 새로운 뉴스다.(→ 재개하겠다는 것 자체가)

‘-ㄴ까’와 ‘-ㄴ까 봐’

- 그 회사는 환율 하락의 직격탄을 맞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ㄴ까’는 말하는 사람의 의심이나 의문을 나타낸다. ‘-ㄴ까 봐’는 의심이나 의문의 단계를 넘어 일이 실현될 수도 있다는 가정 아래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을 나타낸다. 예컨대 단순히 내일의 날씨가 궁금하다면 ‘내일 비가 올까’로 표현한다. 비가 올지 몰라 걱정한다면 ‘내일 비가 올까 봐 걱정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내일 비가 올까 걱정이다’라는 표현은 성립하기 어렵다. 궁금한 일을 두고 걱정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제시문도 직격탄을 맞을 확률이 있다고 여겨 걱정하는 상황이므로 ‘맞을까 봐’로 표현한다.



더 알아보기

- 수출에 타격을 입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입을까 봐**)
- 그가 어제 차를 놓쳤을까 걱정을 했다.(→ **놓쳤을까 봐**)

어순만 바꾸어도

- 북한이 우려했던 대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한국어는 문장 성분의 자리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 ‘손님이 집에 왔다’와 ‘집에 손님이 왔다’가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쓰인다. 하지만 자리가 바뀌면 의미가 바뀌는 경우도 많다. 제시문도 그러한 예이다. 이 문장에서 ‘우려했던 대로’가 놓일 자리는 문장의 맨 앞이다. 그런데 ‘북한이’ 뒤에 놓이는 바람에 로켓 발사를 우려한 주체가 ‘우리’에서 ‘북한’으로 바뀌었다. 물론 이렇게 해석할 리는 없지만 굳이 오해의 소지를 남길 필요는 없다.



더 알아보기

- 언젠가부터 흥행의 변방에 있던 남자 골프가 차츰 살아나고 있다.
(→ **흥행의 변방에 있던 남자 골프가 언젠가부터**)
- 어제부터 고장을 일으켰던 기계가 갑자기 잘 돌아간다.(→ **고장을 일으켰던 기계가 어제부터**)
- 길을 가다 우연히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다면 어떻게 할까?
(→ **쓰러져 있는 사람을 우연히 보았다면**)

지시어를 잘못 사용하면

- 고장이 발생한 원인과 그것을 쉬쉬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문장에서 지시어 ‘그것’이 가리키는 말은 ‘고장’이다. 즉 고장을 쉬쉬한 것이다. 하지만 웬지 고장의 원인을 쉬쉬했다는 말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이것/그것’ 등의 지시어는 대개 자기 바로 앞에 있는 말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지시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는 것이 좋다.

- ⇒ 고장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 또 왜 (그) 고장을 쉬쉬했는가.
- ⇒ 고장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고, 고장이 났는데도 쉬쉬한 이유는 무엇인가.



더 알아보기

-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어도 그것을 엉뚱한 데에 쓰면 소용이 없다.(→ 그 돈을)
- 사람들은 자연에서 자원을 얻기도 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생산하기도 한다.(→ 그 자원을)

‘…보다’와 ‘…에 비해’의 구분

- 이자가 원금의 2배 이상 많은 경우도 있다.

우리말의 비교급은 대개 ‘…보다 (더)’의 형태로 실현된다. 제시문은 ‘보다’ 대신 ‘의’를 넣은 형태인데, 이는 ‘형보다 세 살 적다’를 ‘형의 세 살 적다’로 표현한 셈이어서 문법 범주를 벗어난다. ‘의’를 살리려면 ‘이자가 원금의 2배 이상 되는 경우도 있다’로 한다.

한편 ‘…보다’ 대신 ‘…에 비해’를 쓸 수도 있다. ‘사진보다 실물이 낫다’와 ‘사진에 비해 실물이 낫다’는 의미 차이가 별로 없다. 하지만 ‘나보다 낫다’를 ‘나에 비해 낫다’로 바꿀 수는 없다. 반대로 ‘노력에 비해 성과가 약하다’를 ‘노력보다 성과가 약하다’로 바꿀 수도 없다. 위의 두 예를 보면 ‘…보다’는 양자가 직접적인 비교 대상일 때 쓰고, ‘…에 비해’는 간접적인 비교 대상일 때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알아보기

- A 회사는 B 회사에 비해 월급이 10% 많다.(→ B 회사보다)
- A 회사는 다른 회사보다 월급이 10% 많다.(→ 다른 회사에 비해)

‘보다’와 ‘제일’의 불편한 동거

- 젊은 사람들은 돈보다 사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보다’는 비교급 표현으로서, 최상급 표현인 ‘제일’과는 짝을 맺기 어렵다. 따라서 제시문의 ‘제일’은 ‘더’로 바꾸어야 한다. 만약 ‘제일’을 살려 쓴다면 다음처럼 셋 이상을 비교하는 말로 바꾸거나 문장의 틀을 바꾼다.

- ⇒ 젊은 사람들은 돈이고 뭐고 사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 ⇒ 젊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다.
- ⇒ 젊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더 알아보기

- 철수네 조가 다른 조보다 성적이 제일 나빴다.
(→ ‘다른 조보다’ 삭제 [또는] 다른 어느 조보다 성적이)
- 경험은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또는] 가장 중요한)

쉼표를 잘못 사용할 때

- 시청 앞에 공원이 조성, 시민의 휴게소 기능을 하고 있다.

신문 등의 기사체 문장에서는 앞뒤 절이 연결어미 ‘-하여’로 연결될 때, 이 ‘-하여’를 쉼표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대회에 참가하여 우승했다’를 ‘대회에 참가, 우승했다’로 줄여 쓰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대회에 참가하여 우승하여 상금을 받다’라는 문장은 ‘-하여’가 연이어져 있어 읽기가 껄끄러우므로 ‘대회에 참가, 우승하여...’로 표현하게 된다.

그런데 ‘-하여’ 이외의 다른 연결어미를 쉼표로 대체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왔다’로 표현할 수는 없다.

피동형 ‘-되어’ 꼴도 쉼표로 대체할 수 없다. 위의 제시문이 그런 예로서 이 문장에서 ‘조성,’은 ‘조성되어’로 적어야 한다.



더 알아보기

- 그는 횡령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져 2년간 형을 살았다.(→ **구속된 후**)
- 그는 이번에 회장에 선임, 2년간 조직을 이끌어 가게 되었다.(→ **선임되어**)

심표로 나열할 수 없을 때

- 그 기업은 매출액이 20% 감소, 영업이익은 10% 감소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서 같은 서술어가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생략하고 심표를 넣는 수가 있다. ① ‘개막식은 서울에서(열리고), 폐막식은 부산에서 열린다’, ② ‘철수는 어제(여행을 떠났고), 영희는 오늘 여행을 떠났다’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생략에는 제약이 따른다. 예컨대 ①의 경우 조사 ‘에서’마저 생략하여 ‘개막식은 서울, 폐막식은 부산에서 열린다’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또 맨 위의 제시문처럼 접미사 부분인 ‘했고’를 생략해도 어색해진다. 이 경우 본말인 ‘감소했고’를 살려 써야 한다. 요컨대 접미사나 조사는 다 밝혀 주는 것이 좋다.



더 알아보기

- 우리 반 회장은 철수, 부회장은 영희이다.(→ **철수이고**)
- 그 회사의 최대 주주는 사장, 부사장은 2대 주주이다.(→ **사장이고**)
- 철수는 부산, 영희는 대전으로 떠났다.(→ **부산으로**)

Part II. 어휘

글 여규병



가. 헛갈리는 어휘-표현

가부/여부/유무

‘가부(可否)’는 ‘옳고 그름’, ‘찬성과 반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부(與否)’는 ‘그려함과 그려지 아니함’을, ‘유무(有無)’는 ‘있고 없음’을 아울러 나타낸다. ‘가부’, ‘유무’를 써야 할 자리에 ‘여부’를 쓰는 경향이 있는바 상황에 맞는 말을 골라 써야 한다.

‘여부’를 쓸 때도 앞말이 ‘그려함과 그려하지 아니함’의 뜻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여부’를 덧붙여서는 안 된다. 예컨대 ‘진위 여부’, ‘생사 여부’, ‘존폐 여부’, ‘성패 여부’는 각각 ‘진위’, ‘생사’, ‘존폐’, ‘성패’만으로 써야 한다. 굳이 ‘여부’를 쓰려면 ‘진실 여부/허위 여부’, ‘생존 여부/사망 여부’처럼 쓴다.

앞으로 열릴 행사 등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을 때는 ‘참석 여부’가 아니라 ‘참석 가부’라고 하며, 현재 열리고 있거나 과거에 열린 행사 등에 참석하였는지를 물을 때는 ‘참석 여부’라고 한다.

사물이 있고 없음을 나타낼 때는 ‘유무’를 쓴다.

- ▶ 정부는 올해 말까지 탈원전·탈석탄 공약에 맞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그 계획에 따라 삼척시를 혼란에 빠뜨린 발전사업의 존폐 여부(→ **존폐**)도 갈린다.
- ▶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동시에 보험에 든다면 추가 할인 여부(→ **가부**)를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
- ▶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공적 자료와 연계해 수급자격 여부(→ **유무**)를 확인하지 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편법을 써 빠져나갈 수 있다.

가지다/두다

‘가지다’는 다양한 뜻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지니다’, ‘소유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가지다’를 ‘치르다’, ‘열다’의 뜻으로 쓰는 것은 외국어 투다. 예컨대 ‘회의를 가졌다’는 ‘회의를 했다/회의를 열었다’처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훌륭한 부모를 가졌다’, ‘많은 회원을 가진 단체’ 같은 표현도 피한다. 부모나 회원은 ‘가질’ 대상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부모를 뒀다’ 같은 표현도 피한다. ‘두다’는 배우자나 형제자매, 자식, 친구 등과 어울려 쓸 말이지 부모 조상 등과는 어울려 쓸 말이 아니다.

- ▶ 아시아나항공은 14일 중국 윈난(雲南)성 리장(麗江)시에 있는 ‘룽판씨앙쌍밍 소학교’에서 희망소학교 준공식을 가졌다(→ **열었다/개최했다**).

- ▶ 대도시에서 거주하고 소위 명문고에 다니며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를 둔 학생들에게(→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전형이며 사교육 유발 요인이 많아 대대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갑부

‘갑부’는 ‘첫째가는 큰 부자’라는 뜻이다. 특정 범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을 지칭할 때 쓴다. 따라서 ‘갑부 순위’, ‘최고 갑부’, ‘갑부들’ 같은 표현은 옳지 않다. ‘갑부 순위’는 ‘부자 순위’, ‘최고 갑부’는 ‘갑부/최고 부자’, ‘갑부들’은 ‘부자들’처럼 써야 한다. ‘부산의 갑부’, ‘호남 갑부’ 같은 표현은 문제가 없다.

- ▶ 아시아 최고 IT 갑부(→ **IT 갑부/최고 IT 부호**) 자리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회장인 마윈(馬雲)이 차지했다.

갑절/곱절/배

‘갑절’과 ‘곱절’은 모두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을 나타내며 ‘배(倍)’와 같은 뜻이다. 다만, ‘갑절’은 ‘두’, ‘세’, ‘몇’ 등 수를 나타내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고 홀로 쓰이며 오로지 ‘두 배’만을 나타낸다. ‘배’, ‘곱절’은 ‘두 배’, ‘두 곱절’, ‘몇 배’, ‘몇 곱절’처럼 수를 나타내는 말과 어울려 쓸 수 있다.

‘갑절’, ‘곱절’, ‘배’는 ‘낮다’, ‘줄다’, ‘느리다’, ‘내리다’, ‘싸다’ 같은 말과 함께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값이 두 배 내렸다’에서 ‘두 배’는 기존의 값을 ‘두 번 합한 만큼’을 뜻하므로 의미상 ‘내리다’와 어울릴 수 없다. 이런 때는 ‘반으로’, ‘50%’ 같은 표현을 쓸 수 있다.

- ▶ 보수 정당이 지금 맞닥뜨린 위기는 그때보다 몇 갑절(→ **곱절/배**) 더 엄중하다.

갱신(更新)/경신(更新)

‘갱신’과 ‘경신’은 한자로는 모두 ‘更新’으로 적는다. ‘更’의 뜻이 ‘다시’이면 ‘갱’으로 읽고, ‘고치다’이면 ‘경’으로 읽는다. 면허나 계약 등의 주된 내용은 두고 기간만 연장할 때는 ‘갱신’으로, 어떤 기록을 깨고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것은 ‘경신’이라고 한다. 참고로 ‘更年期’, ‘更衣室’, ‘更正’은 각각 ‘갱년기’, ‘경의실’, ‘경정’으로 읽는다.

- ▶ 3년 전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주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노원구는 올해도 지난 3월 1억 5800만 원을 들여 1년짜리 보험을 경신했다(→ **갱신했다**).

걸맞다/맞다/알맞다

‘걸맞다’는 ‘두 편을 견주어 볼 때 서로 어울릴 만큼 비슷하다’를, ‘알맞다’는 ‘일정한 기준, 조건, 정도 따위에 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한 데가 있다’를 뜻하는 ‘형용사’다. ‘걸맞다’와 ‘알맞다’의 관형사형을 ‘걸맞는’, ‘알맞는’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 ‘-는’은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이기 때문이다. 형용사의 관형사형 어미는 ‘-은’이다. 따라서 ‘걸맞은’, ‘알맞은’이라고 해야 한다.

반면에 ‘맞다’는 ‘동사’이므로 현재를 나타낼 때는 ‘맞는’으로, 과거를 나타낼 때는 ‘맞은’으로 쓴다.

▶ 벤틀스S1 에보2의 강력한 접지력과 내구성, 저소음 타이어 기술력을 통해 최대 260마력 출력에 걸맞는(→ **걸맞은**) 최상의 승차감과 스포티한 드라이빙 환경을 동시에 제공한다.

▶ 버즈피드는 이런 설문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알맞는(→ **알맞은**) 원두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금도

흔히 ‘금도를 지키다’와 같이 표현할 때의 ‘금도’는 우리말에 없는 낱말이다. 이때의 ‘금도’는 대개 ‘한계’, ‘한도’의 뜻으로 쓰이는바 그에 맞춰 다시 표현해야 한다. 다만, ‘금도(襟度)’는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의 뜻을 나타내며 ‘병사들은 장군의 장수다운 배포와 금도에 감격하였다’처럼 쓴다.

▶ 법원 내부에서는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금도를(→ **한도를**) 넘어섰다”라며 불쾌해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금새/금세

‘금새’는 ‘물건의 값’ 또는 ‘물건값의 비싸고 싼 정도’를 뜻하는 말로 ‘요즘 달걀 금새가 어떻게 되는가?’처럼 쓴다. ‘금세’는 ‘금시(今時)에’가 줄어든 말로 ‘지금 바로’를 뜻한다.

▶ 중국과 일본은 이후에도 기술 개발에 매진했지만 한국은 금새(→ **금세**) 포기했다.

기부채납(寄附採納)

‘기부’는 주는 행위이며, ‘채납’은 받아들이는 행위이므로 하나의 주체가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즉, ‘㉠건설회사가 도로를 건설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처럼 쓰는 것은 ‘㉠건설회사’가 ‘기부’도 하고, ‘채납’도 하는 형국이 된다. 이런 때는 ‘기부했다’라고만 표현하면 충분하다.

▶ 건축물의 용도를 공공도서관 및 전시관과 기타 부대시설로 지정하고, 건물이 완성되면 시설 일체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기부하는**) 조건이었다.

깨우치다/깨치다

‘깨우치다’는 ‘깨달아 알게 하다’의 뜻을 나타내므로 남이 깨닫게 하는 것이며, ‘깨치다’는 ‘일의 이치를 깨달아 알다’의 뜻을 나타내므로 스스로 깨닫는 것이다. 특히 ‘깨치다’를 쓸 자리에 ‘깨우치다’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당시를 돌이켜보면 ‘나는 또래와 다르다는 걸 일찌감치 깨우치고(→ **깨치고**) 받아들여야 했다는 아쉬움이 들어요...”

꺼려하다/삼가하다/즐거하다

‘꺼리다’는 동사이므로 ‘공부하다’, ‘생각하다’처럼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사로 만드는 접미사 ‘-하다’를 붙일 수 없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잘못 쓰는 말로 ‘삼가하다(삼가다)’, ‘즐거하다(즐기다)’ 같은 것이 있다. 다만, 형용사는 ‘-어하다’의 꼴로 보조동사 ‘하다’를 붙여 ‘재미있어하다’, ‘어려워하다’처럼 쓸 수 있다.

- ▶ 군 관계자는 19일 “B-2가 출격한다는 건 김정은이 가장 꺼려하는(→ **꺼리는**) 참수 작전이 본격화한다는 의미”라며...
- ▶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관련 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일부 종목에 편중된 투자는 삼가해야(→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 붉은원숭이는 과학자의 얼굴을 보며 ‘입술 삐죽거리기’를 즐거한다(→ **즐긴다**).

깍데기/깍질

‘깍데기’는 ‘달걀, 조개 따위의 겉을 싸고 있는 단단한 물질’, ‘알맹이를 빼내고 겉에 남은 물건’을 뜻하며 ‘깍질’은 딱딱하지 않은 물체의 겉을 싸고 있는 질긴 물질의 커를 뜻한다. 즉, 달걀, 굴, 계의 거죽처럼 단단한 물질은 ‘깍데기’라고 한다. 솜을 빼낸 이불의 거죽이나 베갯속을 빼낸 베갯잇 따위도 ‘깍데기’라고 한다. 사과, 굴, 양파 등의 딱딱하지 않은 거죽은 ‘깍질’이라고 한다. 화투에서, 낫수가 없는 패 짝은 ‘비 깍데기’, ‘홍싸리 깍질’처럼 ‘깍데기’와 ‘깍질’ 어느 것을 써도 상관없다.

- ▶ 연간 40만 t 발생하는 커피찌꺼기(커피박)는 굴 · 땅콩 · 호두깍질과(→ **굴깍질, 땅콩 · 호두 깍데기와**) 같이 고품폐기물연료(SRF) 원료로 사용할 수 없어 단순 소각 또는 재활용만 가능했다.

나름

‘나름’은 의존명사다. 의존명사는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 반드시 체언이나 관형어 뒤에 써야 한다. 근래 들어 ‘나름’을 독립적으로 쓸 뿐만 아니라 아예 품사까지 바뀌 부사처럼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 ▶ 이 의원은 “전술핵 배치에 대한 미 정부와 의회의 견해는 부정적이지만, ‘한국인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나름(→ **제 나름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 ▶ 전술핵 재배치도 있지만 핵추진 잠수함이든 전략자산 배치든 우리도 나름의(→ **우리도 우리 나름의**) 역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난/란

‘구분된 지면’을 나타내는 ‘欄’과 ‘난초’를 뜻하는 ‘蘭’은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서는 ‘난’으로, 한자어 뒤에서는 ‘란’으로 적는다.

- ▶ 어린이난. 스포츠난. 가십난. 광고란. 독자란. 사설란. 투고란/ 감자난. 새우난. 제비난. 동양란. 문주란. 양란. 풍란. 한란.
- ▶ 산비탈이나 숲속 음지에서 진한 노란색의 빛을 발하는 새우란(→ **새우난**)은 남부지방과 제주에 자생하는데 제주에서는 절물자연휴양림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난도/난이도

‘난도(難度)’는 ‘어려움의 정도’를, ‘난이도(難易度)’는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를 뜻한다. 따라서 ‘난이도가 높다’, ‘고난이도’는 ‘어려움과 쉬움의 정도가 높다’라는 뜻이 되므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난도가 높다’, ‘고난도’처럼 써야 한다. 쉬운 고유어로 ‘어렵다’, ‘쉽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 선제 하중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고난이도(→ **고난도/어려운**) 작업이다.
- ▶ 영어 변별력이 이런 수준이니 국어, 수학 등 다른 과목의 난이도는 전부 높아지는(→ **과목의 난도는 전부 높아지는/과목은 전부 어려워지는**) 추세다.

납북자

‘납북(拉北)’은 ‘북한으로 납치해 감’을 뜻하는 말이다. ‘납북’에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자(者)’를 붙이면 ‘납북한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즉, ‘납북자’는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이 아니라 ‘북한으로 납치해 간 사람’이다. 북한으로 납치당한 사람은 ‘피납북자’ 또는 ‘납북 피해자’라고 표현해야 한다. 납북 피해자 관련 가족 단체는 그 단체 이름에 ‘납북자’라는 표현을 넣고 있다. 통일부조차 ‘납북자’와 ‘납북 피해자’를 섞어 쓰는 형편이다. 두 말이 각각 가해자와 피해자를 나타내는 정반대의 표현임을 알고 바르게 써야 한다.

- ▶ 보수 정권에서는 국군 포로, 납북자(→ **피납북자/납북 피해자**)를 데려오는 방안으로 프라이카우프가 거론됐다.

놀라다/놀랍다/놀래다

‘놀라다’는 ‘뜻밖의 일로 가슴이 두근거리다’, ‘갑자기 강하게 무서움을 느끼다’, ‘뛰어나거나 신기한 것을 보고 매우 감동하다’, ‘어처구니가 없거나 기가 막히다’의 뜻이다.

‘놀랍다’는 ‘감동을 일으킬 만큼 훌륭하거나 굉장하다’, ‘갑작스러워 두려움이나 흥분에 휩싸이다’, ‘어처구니없을 만큼 괴이하다’의 뜻이다.

‘놀래다’는 ‘놀라다’의 사동사, 즉 ‘놀라게 하다’라는 뜻이며 주로 ‘놀래 주다’처럼 쓰인다. ‘놀래다’의 뜻으로 ‘놀래키다’를 쓰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 ▶ 18~19세기 아프리카에 들어간 유럽인들은 북소리만으로 강을 오르내리는 사람들과 자유자재로 의사소통을 하는 원주민들을 보고 깜짝 놀랬다(→ **놀랐다**).

늘리다/늘이다

‘늘리다’는 ‘물체의 길이나 넓이, 부피 따위가 본디보다 커지게 하다’, ‘수나 분량, 시간 따위가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다’, ‘힘이나 기운, 세력 따위가 이전보다 큰 상태가 되게 하다’, ‘재주나 능력 따위가 나아지게 하다’, ‘살림이 넉넉해지게 하다’, ‘시간이나 기간이 길어지게 하다’를 뜻하며, ‘늘이다’는 ‘본디보다 더 길어지게 하다’, ‘선 따위를 연장하여 계속 굿다’, ‘아래로 길게 처지게 하다’, ‘넓게 벌여 놓다’를 뜻한다.

- ▶ 창원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보다 6600면이 늘어난 16개소 1만 6200면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 임시 화장실도 늘였다(→ **늘렸다**).

다르다/틀리다

‘다르다’는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다’의 뜻을 나타내며, ‘틀리다’는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 ▶ 장씨는 “이단이다, 스승이 없다, 낙관이 틀렸다(→ **다르다**) 등 비난이 몰아쳤고 오히려 그 덕에 많이 알려졌다”며 씩씩히 웃는다.

다리다/달이다

‘다리다’는 ‘옷이나 천 따위의 주름이나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하여 다리미나 인두로 문지르다’의 뜻을 나타내며, ‘달이다’는 ‘액체 따위를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 ‘약재 따위에 물을 부어 우려나도록 끓이다’의 뜻이다.

- ▶ 국내산 배, 도라지, 은행, 대추, 생강, 맥문동, 겨우살이, 수세미, 10년 이상 된 도라지의 분말, 홍도라지, 산삼 배양근 등을 전통방식인 가마솥에 넣고 4일 밤낮으로 정성껏 다려서(→ **달여서**) 완성한다.

달리다/떨리다

‘달리다’는 ‘재물이나 기술, 힘 따위가 모자라다’의 뜻을 나타내고, ‘떨리다’는 ‘어떤 것에 매이거나 붙어 있다’, ‘어떤 부서나 종류에 속하다’, ‘다른 사람의 뒤에서, 그 사람이 가는 대로 같이 가게 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 ▶ 운 좋게 올라간 아나운서 면접시험에선 타 지원자보다 스펙이 떨려(→ **달려**) 홀대받는다.

담그다/담다

‘담그다’는 액체 속에 사물을 넣거나 김치, 장, 젓갈, 술 등을 만드는 것이다. ‘담다’는 물건을 그릇 따위에 넣는 것이다. 예컨대 ‘김치를 담았다’라고 하면 배추나 무 따위를 양념에 버무려서 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김치를 그릇에 넣는다는 뜻이 된다.

‘담그다’는 ‘담가, 담그면, 담글’처럼 활용한다. ‘담귀, 담구면, 담굴’처럼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슷한 잘못을 자주 저지르는 낱말로 ‘잠그다’가 있다. ‘잠귀, 잠구면, 잠굴’이 아니라 ‘잠가, 잠그면, 잠글’처럼 써야 한다.

- ▶ 박 씨는 “지난겨울에 한 김장 김치가 동났는데 새로 담기가(→ **담그기가**) 번거로워서 주문했다”며 “그동안 나왔던 포장 김치는 찢는데 염도를 조절하니 입맛에 잘 맞아 자주 시켜 먹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기다/댕기다/땅기다

‘당기다’는 ‘마음이 끌리다’, ‘입맛이 돌아’, ‘물건을 가까이 오게 하다’, ‘정해진 시한이나 기간을 가까스로 옮기거나 줄이다’의 뜻이다. ‘댕기다’는 ‘불이 옮겨 붙다’, ‘옮겨 붙이다’의 뜻을, ‘땅기다’는 ‘켁기어지다’의 뜻을 나타낸다. ‘당기다’나 ‘댕기다’를 ‘다니다’의 뜻으로 써서는 안 된다. 이 세 낱말 대신 ‘땡기다’를 쓰기도 하는데 ‘땡기다’는 비표준어이다.

- ▶ 피부가 심하게 당기면(→ **땡기면**) 마스크팩을 이용해 수분을 공급한다.
- ▶ 안 땡기는(→ **당기는**) 쓴 커피를 억지로 마시는 대신 달콤한 주스를 마시며 생각했다.
- ▶ 오랜 세월 품어 왔던 출가의 꿈. 속으로, 속으로만 삼키며 묻어 두었던 도화선에 이 사건이 불을 당겼다(→ **땡겼다**).

-대/-데

‘-대’는 남이 경험한 사실을 간접으로 전하는 ‘-다고 해’가 줄어든 말, 또는 놀라거나 못마땅한 뜻을 나타내는 의문형 종결어미로 쓰인다. ‘-데’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 나중에 전할 때 쓰이는 말로 ‘-더라’와 같은 뜻이다. ‘일이 어렵데’는 말하는 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며, ‘일이 어렵대’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말하는 이가 다시 전하는 것이다. 또 ‘일이 어렵대?’는 제삼자의 경험을 전한 상대방에게 놀랍다거나, 못마땅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대첩

‘대첩(大捷)’의 ‘捷’은 ‘이길 첩’이다. 따라서 ‘대첩’은 ‘크게 이김’ 또는 ‘큰 승리’로 ‘대승(大勝)’과 같은 뜻이다. 따라서 ‘대첩’은 싸움의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지 ‘싸움의 규모’ 즉 ‘큰 싸움’이나 ‘대전(大戰)’의 뜻으로 써서는 안 된다. 근래에 아직 계획 단계이거나 열릴 예정인 스포츠 경기 등을 예고하면서 ‘대첩’으로 표현하는 예가 자주 보이는데 이는 잘못이다.

-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12일 호남 대첩을 벌였다(→ **호남에서 격돌했다/호남에서 각각 지지를 호소했다**).

덕(덕분)/탓

‘덕(德)’, ‘덕분(德分)’은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을 뜻하므로 ‘주로 부정적인 현상이 생겨난 까닭이나 원인’을 뜻하는 ‘탓’과 가려 써야 한다. 즉, 긍정적인 상황에는 ‘덕/덕분’을, 부정적인 상황에는 ‘탓’을 쓴다. 긍정, 부정의 상황 모두에 쓸 수 있는 말로는 ‘때문’이 있다.

- ▶ 말수가 적은 의뢰인을 둔 덕에(→ **탓에**) 그에겐 할 일이 많다.

–던 · –던지 · –던가/–든 · –든지 · –든가

‘–던’은 관형사형 어미, ‘–던지’는 연결어미, ‘–던가’는 종결어미로 쓰이며, ‘–든’은 ‘–든지’, ‘–든가’의 준말로 조사로도 연결어미로도 쓰인다. ‘–던 · –던지 · –던가’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과거의 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물음을 나타내는 표현에, ‘–든 · –든지 · –든가’는 둘 이상의 사물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어느 것이든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에 쓴다.

▶ 그저 모두가 “그러다 망한다”고 말할 때 “그러던가 말던가(→ **그러든가 말든가**)” 정신으로 제 갈 길을 간 사람들이다.

데/–ㄴ데 · –는데 · –은데

‘–데’가 ‘장소’, ‘일’, ‘경우’ 따위를 나타내면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말하려는 내용과 관련되거나 대립되는 상황을 미리 제시할 때 쓰는 어미 ‘–ㄴ데’, ‘–는데’, ‘–은데’는 붙여 쓴다. ‘데’에 ‘도’, ‘에’, ‘는’, ‘가’ 따위의 조사를 붙일 수 있으면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고 기억해 둔다.

▶ 우리 생활이 아파트 위주인데다(→ **위주인 데다**) 벽이 별로 없어 텔레비전이나 가구 말고는 장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돼라/되라/되라고

‘돼라’는 직접명령형으로서 상대방에게 직접 말을 통하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며 ‘되라’는 동사 ‘되다’의 간접명령형으로서 정해지지 않은 독자에게 구호나 인센물 따위의 매체를 통하여 명령의 뜻을 나타낸다. ‘되라고’는 ‘되다’의 어간에 간접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라’에 인용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고’가 결합한 것이다. ‘되라고’는 ‘돼라고’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교장선생님께서 ‘나라의 동량이 되라’라는 제목의 훈시를 하셨다./교장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나라의 동량이 돼라”라고 말씀하셨다./교장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의 동량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등극

‘등극’은 ‘임금의 자리에 오름’이라는 뜻이며 여기에서 ‘어떤 분야에서 가장 높은 자리나 지위에 오름’이라는 뜻이 파생되었다. 따라서 어떤 기관 · 단체의 장이 되거나 스포츠 등에서 우승하거나 1위 자리에 오른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데 쓸 수 있다. 그러나 상위권이라 하더라도 정상, 최고, 우승, 1위 등 외에는 쓸 수 없다.

▶ 올 시즌 5년 만에 가을야구 진출을 확정된 롯데는 23일 넥센에 가을야구 탈락 선고를 내리며 LG를 도왔고, 같은 날 LG도 NC를 잡아 롯데의 3위 등극에(→ **롯데가 3위에 오르는 데**) 힘을 보탰다.

띄다/띠다

‘띄다’는 ‘뜨이다’의 준말로써 ‘눈에 보이다’, ‘다른 것보다 두드러지다’, 또는 ‘띄우다’의 준말로써 ‘간격이 벌어지게 하다’의 뜻이다. ‘띠다’는 ‘물건, 직책, 사명 등을 지니다’, ‘빛깔, 색채, 성질 등을 가지다’, ‘감정, 기운 등을 나타내다’의 뜻이다.

- ▶ 지역 대표 품종인 말뚝이 90% 들어가 특유의 진한 보라색을 띄며(→ **띠며**), 제비꽃 향과 향신료, 허브 향 등이 느껴진다.

량/양

수량이나 분량을 나타내는 ‘量’은 한자어 다음에서는 ‘량’으로, 고유어나 외래어 다음에서는 ‘양’으로 적는다.

- ▶ 갈수량/감소량/강설량/강수량/강우량/공급량/교통량/구름양/구형량/규정량/극대량/극미량/극소량/급식량/급여량/기준량/납부량/노동량/높낮이양/다량/대량/매장량/먹이양/무효량/물동량/물리량/물질량/미달량/바닥흐름양/반입량/반출량/발생량/발열량/발주량/방사선량/방열량/배급량/배기량/배수량/벡터양/보급량/보유량/부족량/분자량/분출량/불변량/비례량/사무량/사용량/산미량/산출량/생물량/생산량/생성량/생육량/생체량/성장량/소량/소모량/소비량/소실량/소요량/소출량/수요량/수확량/순금량/시비량/식사량/쓰레기양/알칼리양/어획량/언어량/연습량/염분량/염소량/예상량/예정량/요구량/용수량/용적량/용출량/운동량/운행량/원자량/유동량/유전자량/유지량/유출량/유통량/유효량/음식량/이슬양/일사량/일일량/일정량/일조량/임계량/입고량/입하량/잉여량/잉양/자금량/자기량/작업량/작용량/잔량/재고량/저수량/저장량/저탄량/적당량/적재량/전기량/전력량/전용량/전하량/절대량/정보량/제조량/조사량/증가량/증발량/채굴량/채취량/채탄량/책임량/첨가량/체화량/초과량/최대량/최소량/추가량/추정량/축적량/축전량/출고량/출하량/출혈량/충격량/치사량/침하량/탑재량/판매량/평균량/포함량/포화량/표준량/풍수량/필요량/하수량/하전량/한정량/할당량/함금량/함수량/함유량/허용량/허파숨양/현존량/호흡량/홍수량/화확량/훈련량/흐름양/흡수량/흡입량/힘양.

(으)로서/(으)로써

‘(으)로서’는 지위나 자격을 나타낼 때, ‘(으)로써’는 재료, 원료, 수단, 도구, 방법 따위를 나타낼 때 쓴다. 이 둘 대신 ‘(으)로’로만 쓸 수 있다.

‘그분은 평생을 교육자로서 후학을 길러 왔다’, ‘경영자로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다’처럼 지위나 자격을 나타낼 때는 ‘(으)로서’를 써야 하는데 ‘그분은 평생을 교육자로 후학을 길러 왔다’, ‘경영자로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다’처럼 ‘(으)로서’ 대신 ‘(으)로’를 쓸 수 있다.

또 ‘쌀로써 떡을 만든다’, ‘말로써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꿀로써 단맛을 낸다’, ‘대화로써 갈등을 풀 수 있을까?’, ‘이제는 눈물로써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처럼 재료, 원료, 수단, 도구, 방법을 나타낼 때는 ‘(으)로써’를 써야 하지만 ‘쌀로 떡을 만든다’,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한다’, ‘꿀로 단맛을 낸다’, ‘대화로 갈등을 풀 수 있을까?’, ‘이제는 눈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처럼 ‘(으)로써’ 대신 ‘(으)로’를 써도 된다.

▶ 유통사로서는(→ 유통사로서는) 이들의 발길을 되돌려 놓을 해법이 절실합니다.

률/율

‘率’, ‘律’, ‘栗’, ‘慄’은 앞 음절이 ‘ㄴ’을 제외한 받침으로 끝나면 ‘률’로 적고, 모음이거나 ‘ㄴ’ 받침으로 끝나면 ‘율’로 적는다.

▶ 가동률/건폐율/결석률/결실률/경쟁률/고율/곡률/공실률/국산화율/굴절률/규율/기준율/누진율/능력률/대명률/도달률/도덕률/득표율/면책률/명중률/문맹률/반발률/발병률/발생률/배당률/배분율/배율/배합률/백분율/번식률/법률/보급률/보충률/부담률/불량률/불임률/비율/사망률/산란율/생률/생산율/생장률/선율/성공률/성장률/세율/소득률/손실률/수익률/수입률/수축률/수출률/수확률/승률/시청률/실업률/실패율/안전율/어획률/오진율/요율/용적률/유병률/유보율/유입률/유출률/음률/이동률/이용률/이율/이익률/이자율/이직률/인상률/인하율/일률/입원율/자급률/재활용률/저율/저축률/적중률/점유율/접속률/정률/증가율/증식률/증폭률/지급률/지급준비율/지준율/지지율/진급률/진학률/천편일률/청약률/체감률/추출률/축적률/출산율/출생률/출석률/취업률/취학률/치사율/탈락률/투과율/팽창률/평균율/폐사율/포함률/할인율/합격률/훈인율/확률/환산율/환율/활착률/황금률/회수율/회전율/효율/희석률.

만

‘동안이 얼마간 계속되었음’을 나타내면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에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나타내거나, ‘앞말이 뜻하는 동작이나 행동이 가능함’을 나타내면 의존명사로서 앞말과 띄어 쓴다. 이 의존명사 ‘만’은 ‘-을 만하다’의 구성으로 보조형용사로 쓰이기도 한다.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 ‘무엇을 강조하는 뜻’, ‘화자가 기대하는 마지막 선’, ‘거우 그 정도’, ‘앞말이 나타내는 대상이나 내용 정도에 이름’, ‘어떤 것이 이루어지거나 어떤 상태가 되기 위한 조건’을 나타내면 보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 ▶ 집채만한(→ **집채만 한**) 지계를 내려놓고 한숨 돌리게 하는 ‘고누놀이’, 재잘거리는 아낙들과 이를 훑쳐보는 선비를 그린 ‘빨래터’도 해학적이다.

맞추다/맞히다

‘맞추다’는 ‘서로 떨어져 있는 부분을 제자리에 맞게 대어 붙이다’, ‘비교하여 살피다’, ‘조화를 이루다’, ‘어떤 기준, 정도에 어긋나지 않게 하다’, ‘어떤 기준에 틀리거나 어긋남이 없이 조정하다’, ‘일정한 수량이 되게 하다’, ‘열이나 차례 따위에 똑바르게 하다’, ‘다른 사람의 의도나 의향 따위에 맞게 행동하다’, ‘정한 시간 따위를 넘기지 않다’, ‘주문하다’, ‘어떤 대상에 달게 하다’의 뜻을, ‘맞히다’는 ‘맞다’의 사동사로서 ‘옳은 답을 하다’, ‘목표에 맞게 하다’, ‘침, 매, 눈, 비 따위를 맞게 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 ▶ 여성 응답자의 36%만 정답(35~39세)을 맞췄고(→ **맞혔고**), 46%는 이보다 늦은 나이에 임신 능력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못되다/못 되다

‘성질이나 품행 따위가 좋지 않거나 고약하다’의 뜻일 때는 한 낱말이므로 붙여 쓰고, ‘되지 못하다’의 뜻일 때는 ‘못’이 부사이므로 띄어 쓴다.

- ▶ 1994년과 달리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배제하고 있고, 자존심과 체면 탓에 서로 마주앉을 상황도 못된다(→ **못 된다**).

못미처/못 미처

‘못미처’는 ‘일정한 곳까지 채 이르지 못한 거리나 지점’을 뜻하는 명사로서 한 낱말이므로 붙여 쓴다. ‘못 미처’는 ‘공간적 거리나 수준 따위가 일정한 선에 닿지 않음’을 뜻하며 부사 ‘못’과 동사 ‘미치다’의 활용형 ‘미쳐’로 이루어진 구이므로 띄어 쓴다. ‘미쳐’를 ‘미처’로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내비게이션에서 오남저수지를 찍고 가다 오남교차로 못 미처(→ **못미처**)에서 팔현계곡 쪽으로 우회 전한다.

못살다/못 살다

‘가난하게 살다’, ‘성가시고 견디기 어렵게 하다’의 뜻이면 한 낱말이므로 붙여 쓰고, ‘살지 못하다’의 뜻이면 구이므로 띄어 쓴다.

- ▶ 개별 기업을 못 살게(→ **못살게**) 구는 건 ‘쇼’일 뿐, 진지한 정책이 아니다.
- ▶ 문 대통령은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게 되고 못 사는(→ **못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이라며 “이런 흐름을 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미망인

‘미망인(未亡人)’은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란 뜻으로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가 스스로를 이르는 말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나온다. 홀로된 여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미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 미망인’이 아니라 (죽은/돌아가신) ○○○의 부인’처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1998년 사망한 미국의 전설적 가수 프랭크 시나트라의 미망인(→ **부인**)이자 자선 활동가인 바버라 시나트라가 25일 별세했다고 CNN이 전했다.

바라다/바래다

‘바라다’는 ‘생각이나 바람대로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가졌으면 하고 생각하다. 어떤 것을 향하여 보다’라는 뜻이며, ‘바래다’는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가는 사람을 일정한 곳까지 배웅하거나 바라보다’라는 뜻이다.

‘바래다’를 ‘바라다’의 뜻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바라다’에서 파생된 명사 또는 명사형으로 ‘바람’을 써서는 안 된다. 맞는 표기는 ‘바람’이다. 또 서술, 물음, 명령, 청유를 나타내는 활용형은 ‘바래’가 아니라 ‘바라’이다.

- ▶ 행정의 속성을 빠르게 파악해 시민의 바람(→ **바람**)을 시정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바치다/받치다/받히다/받치다

‘바치다’는 ‘신이나 웃어른에게 드리다’, ‘반드시 내거나 물어야 할 돈을 가져다주다’,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의 뜻을, ‘받치다’는 ‘어떤 물건의 밑에 다른 물건을 대다’, ‘겉옷의 안에 다른 옷을 입다’, ‘옷의 색깔이나 모양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다’, ‘어떤 일을 잘하도록 뒷받침해 주다’, ‘우산이나 양산을 펴 들다’의 뜻을, ‘받히다’는 ‘받다’의 피동사로서 ‘떠받음을 당하다’의 뜻을, ‘받치다’는 ‘발다’를 강조하는 말로서 ‘체 따위로 거르다’의 뜻을 나타낸다.

▶ 식은 문어를 체에 받쳐(→ **받쳐**) 물기를 다 뺄 때까지 또 반나절.

반증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또는 그런 증거’이다. ‘증거’, ‘증명’, ‘반증’ 대신 써서는 안 된다.

▶ 20여 년 전 한국어가 한 이슬람 국가의 학교 정규과목으로 채택됐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다. 한국어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반증으로(→ **증거로**) 해석됐다.

배상/보상

‘배상(賠償)’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이며 ‘보상(補償)’은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代償)’을 뜻한다.

보냉/보온

‘보온(保溫)’은 ‘주변의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함’의 뜻이므로 따로 ‘보냉(保冷)’이라고 쓸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보온병은 차면 찬 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기구다. 따뜻한 것을 넣는 보온병, 찬 것을 넣는 보냉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제품을 겨울엔 보온병이라고, 여름엔 보냉병이라고 이름 붙여 파는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로 ‘保冷’이라고 하더라도 ‘보랭’이라고 적는 것이 옳다.

▶ 지난달 13일 오후, 은박지로 싸여 반짝거리는 보랭(→ **보온**)가방을 들고 서울 신길동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의실로 들어섰다.

보험금/보험료

‘보험금’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돈을 뜻하며, ‘보험료(保險料)’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뜻한다. 보험료의 비율을 뜻하는 ‘保險料率’은 ‘보험료율’로 적는다.

- ▶ 지난해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손해사정사 A 씨가 과수원을 경영하는 지주 B 씨와 실경작자 C에게 농작물 피해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본인이 직접 서리 피해 손해평가를 실시해 보험료(→ **보험금**) 2억 4000여 만 원을 타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 ▶ 건강보험은 실질적인 소득에 맞춰 보험요율(→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의료쇼핑 예방도 강화해야 한다.

붓물

‘붓물’은 ‘보(洩)에 끈 물’, ‘또는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을 뜻한다. 즉, ‘붓물’은 괴어 있는 잔잔한 상태의 물이나, 농작물을 경작하는 데 필요한 적정량만 흘러보내는 물이다. ‘붓물’, ‘붓물을 이루다’ 같은 표현은 어떤 사물이 갑작스럽게 또는 역동적으로 불어나는 현상을 나타내는 데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상황에는 ‘붓물 터지다’, ‘밀물’, ‘홍수’ 같은 말이 적절하다.

- ▶ 민주화 요구가 붓물을 이루던(→ **붓물 터지듯 하던**) 1987년 6월 항쟁 이후 1990년대 중·후반까지의 전환기에 건축계의 태도는 안일했다.

부분/부분

‘부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거나 나누어 놓은 범위’로 ‘갈래’의 뜻이며, ‘부분(部分)’은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로 ‘토막’의 뜻이다.

- ▶ 이미 각 사업 부분(→ **부분**)별로 경영능력이 입증된 전문 경영진이 있고 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반도체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부인/아내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므로 자신의 아내를 이룰 때는 ‘부인’ 대신 ‘아내’, ‘안사람’, ‘집사람’ 같은 말을 쓴다. 인터뷰 기사 등에서 인터뷰 대상자의 말을 직접 인용문으로 전할 때 그 사람의 아내를 기자의 관점으로 ‘부인’이라고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릴 때는 아주 무섭게 비평하셨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제 연주가 다 좋다고 하세요. 형은 뭐 하러 전곡을 또 했느냐고 하더군요. 결혼 20년 차를 맞은 부인이(→ **아내가**) 저의 최고 음악적 동반자입니다.”

부치다/붙이다

‘부치다’는 ‘힘이 미치지 못하다’, ‘부채 따위를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다’, ‘편지 또는 물건을 보내다’, ‘논밭을 다루어서 농사를 짓다’, ‘번철에 기름을 바르고 저냐 따위를 익혀 만들다’, ‘어떤 문제를 의논 대상으로 내놓다’, ‘원고를 인쇄에 넘기다’, ‘몸이나 식사 따위를 의탁하다’의 뜻이며, ‘붙이다’는 ‘붙게 하다’, ‘서로 맞닿게 하다’, ‘두 편의 관계를 맺게 하다’, ‘암컷과 수컷을 교합시키다’, ‘불이 옮겨 타게 하다’, ‘노름이나 싸움 따위를 어울리게 만들다’, ‘달려 붙게 하다’, ‘습관이나 취미 등이 익어지게 하다’, ‘이름을 가지게 하다’, ‘뺨이나 볼기를 손으로 때리다’의 뜻을 나타낸다.

- ▶ 경매 전문업체 필립스가 지난 1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경매에 붙인(→ **부친**) 결과 8분 만에 506만 427달러(약 56억 9000만 원)에 낙찰된 ‘바오다이 롤렉스’의 모습.

분향소/빈소

‘분향소(焚香所)’는 ‘향을 피우면서 제사나 예불 의식 따위를 행하는 장소’로서 시신을 안치하지 않고 고인을 애도하며 분향할 수 있도록 차려 놓은 곳이다. ‘빈소(殯所)’는 ‘상여가 나갈 때까지 관을 놓아두는 방’이다. 따라서 분향소는 여러 군데에 있을 수 있지만 빈소는 한 군데밖에 없다.

- ▶ 삼성그룹은… 27일 오전 사장단 협의회가 끝난 뒤 여건이 되는 계열사 사장들이 서울역사박물관 빈소(→ **분향소**)를 찾기로 했다.

불다/불다/붓다

‘불다’는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의 뜻이고, ‘붓다’는 ‘살가죽이나 어떤 기관이 부풀어 오르다’, ‘성이 나서 뽀로통해지다’, ‘액체나 가루 따위를 다른 곳에 담다’, ‘납부금, 이자, 갚돈 따위를 일정한 기간마다 내다’의 뜻을 나타낸다. 또 ‘불다’는 ‘바람이 일어나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다’, ‘유행 풍조 변화 따위가 일어나 휩쓸다’, ‘입을 오므리고 바람을 일으키다’, ‘입을 오므리고 숨을 내쉬어 소리를 내다’, ‘관악기를 입에 대고 숨을 내쉬어 소리를 내다’, ‘풀무, 풍구 따위로 바람을 일으키다’, ‘숨겼던 죄나 비밀을 털어놓다’의 뜻을 나타낸다.

이 세 낱말은 활용형을 쓸 때 주의해야 한다.

‘불다’는 ‘불고, 불으니, 불으면, 불어, 불지’로 활용한다. ‘불고, 불면, 불지’처럼 활용해서는 안 된다. 명사형은 ‘불음’이다.

‘붓다’는 ‘붓고, 부으니, 부으면, 부어, 붓지’로 활용한다. 명사형은 ‘부음’이다.

‘불다’는 ‘불고, 부니, 불면, 불어, 불지’로 활용한다. 명사형은 ‘불’이다.

특히 팔다리 등 몸의 일부분이 부은 상태를 나타낼 때는 ‘붓기’라고 해서는 안 된다. 몸이 부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부기(浮氣)’이다.

- ▶ 지난달 31일 밤 폭우가 쏟아져 강물이 불고(→ **불고**) 산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자고 있던 시민 최소 206명이 사망하고 220명 이상이 실종됐다.

비껴가다/비끼다/비키다

‘비껴가다’는 ‘비스듬히 스쳐 지나다’, ‘어떤 감정, 표정, 모습 따위가 얼굴에 잠깐 스쳐 지나가다’의 뜻을, ‘비끼다’는 ‘비스듬히 놓이거나 늘어지다’, ‘비스듬히 비치다’, ‘얼굴에 어떤 표정이 잠깐 드러나다’, ‘비스듬히 놓거나 차거나 하다’의 뜻을 나타내고, ‘비키다’는 ‘무엇을 피하여 있던 곳에서 한쪽으로 자리를 조금 옮기다’, ‘방해가 되는 것을 한쪽으로 조금 옮겨 놓다’, ‘무엇을 피하여 방향을 조금 바꾸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있던 자리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다’의 뜻을 나타낸다.

태풍 관련 기사 등에서 태풍의 진로가 특정 지역을 직접 지나지 않고 주변으로 스치듯이 지나갈 때는 ‘비껴가다’라고, 영향을 거의 주지 않고 멀리 지나갈 때는 ‘비켜 가다’라고 표현한다.

-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빚겨갔던(→ **비켜 갔던**) 오스트리아·스위스·독일 등 유럽의 주택 정책을 분석했다.
- ▶ 애초 노루는 이번 주말 제주 먼바다를 지나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진로를 수정하면서 한반도를 비껴가게(→ **비켜 가게**) 됐다.

비추다/비치다

‘비추다’는 ‘빛을 보내 밝게 하다’, ‘빛을 받게 하거나 빛이 통하게 하다’, ‘거울 따위에 빛을 나타내다’, ‘건주어 보다’의 뜻이며, ‘비치다’는 ‘빛이 나서 환하게 되다’, ‘빛을 받아 모양이 나타나 보이다’, ‘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이다’, ‘뜻이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다’, ‘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다’, ‘사람 몸속의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상태가 되다’,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되다’, ‘얼굴이나 눈치 따위를 잠시 또는 약간 나타내다’, ‘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던지시 깨우쳐 주다’의 뜻을 나타낸다.

- ▶ 여기에 홍준표·유승민 후보마저 안 후보를 향해 얼치기 좌파, 민주당 2중대 운운하며 “단일화는 말도 안 된다. 완주하겠다”라는 뜻을 강하게 비추고(→ **비치고**) 있다.

빌다/빌리다

‘빌다’는 ‘신이나 사람, 사물 따위에 간청하다’, ‘잘못을 용서하여 달라고 호소하다’,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다’의 뜻을 나타내며, ‘빌리다’는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고 남의 물건을 얻어다 쓰다’, ‘남의 도움을 받거나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믿고 기대다’, ‘일정한 형식이나 이론, 또는 남의 말이나 글 따위를 취하여 따르다’의 뜻을 나타낸다.

- ▶ 그 옆에는 37세로 요절한 작가 구본주의 역작 ‘갑오농민전쟁’이 설치돼 있다. 역사적 사건을 빌어(→ **빌려**) 인체 조형의 솟구치는 힘을 저항의 에너지로 표현한 작품이 알뜨르비행장의 역사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감동을 준다.

빠르다/이르다

‘빠르다’는 움직이는 속도가 보통 정도보다 큰 것을 뜻한다. 반대말은 ‘느리다’이다. ‘이르다’는 정해진 시각보다 앞선 상태임을 뜻한다. 반대말은 ‘늦다’이다.

산자락

‘자락’은 ‘아랫부분’을 뜻한다. ‘소맷자락’, ‘옷자락’, ‘치맛자락’이 각각 소매, 옷, 치마의 아랫부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산자락’은 산의 아랫부분을 나타낸다. 산자락을 ‘봉우리’나 ‘능선’ 등으로 오해하여 ‘산자락을 오르다’같이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다.

▶ 신라 서라벌의 진산인 남산은 동서 4km, 남북 8km가량의 장방형의 산자락(→ **작은 산**)에 불과하다.

상행선/하행선

‘상행선’은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도로나 선로, 교통편을, ‘하행선’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는 도로나 선로, 교통편을 이르는 말이다. 서울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도로 등에는 상행선, 하행선의 개념이 있을 수 없다. 다소 전근대적인 느낌이 있는 표현이므로 ‘서울 방향’, ‘서울 방면’처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2일 오후 5시 33분쯤 충북 단양군 적성면 각기리 중앙고속도로 상행선을(→ **중앙고속도로에서 춘천 방면으로**) 달리던 관광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5m 언덕 아래로 추락해 버스 운전사 이모 씨가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새다/새우다

‘새다’는 ‘날이 밝아 오다’의 뜻을 나타내는 자동사이며, ‘새우다’는 ‘한숨도 자지 아니하고 밤을 지내다’의 뜻을 나타내는 타동사이다. ‘새다’에는 ‘날’, ‘밤’ 같은 말이 주어로, ‘새우다’에는 ‘밤’, ‘날밤’ 같은 말이 목적어로 어울린다.

▶ 소름끼치는 미래가 옆에 와 있는데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 일로 날 새고(→ **날밤을 새우고**) 있다.

생살여탈권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와 주고 빼앗을 수 있는 권리’이다. ‘살리고 죽임’은 ‘생살(生殺)’이므로 ‘삶과 죽음’을 뜻하는 ‘생사(生死)’를 써서 ‘생사여탈권’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독립’ 피디라는 말이 참으로 무색하다. 독립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 생사여탈권(→ **생살여탈권**)을 진 갑에게 철저히 종속된 저임금 하청노동자인 것이 현실이다.

선산/선영

‘선산(先山)’은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 또는 ‘조상의 무덤’을 뜻하며, ‘선영(先塋)’은 ‘조상의 무덤’을 뜻한다. ‘선산’은 ‘선영’과 같은 뜻으로도 쓸 수 있지만 ‘선영’은 ‘무덤’만을 뜻한다. 따라서 부고 기사 등에서 ‘장지는 선영’ 같은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선영’ 대신 ‘선산’ 또는 ‘선영 하(下)’라고 해야 한다.

▶ 장지는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선영(→ **선산/선영 하**)이다.

선친

‘선친(先親)’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남에게 이르는 말’이다. 기사 문장에서 ‘~의 선친’처럼 써서는 안 된다. 당사자의 말을 직접 인용할 때 인용문 안에서만 쓸 수 있다. 또 남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룰 때는 ‘선고장(先考丈)’, ‘선대인(先大人)’ 따위의 말이 있으나 기사 문장에서는 ‘~의 (돌아가신) 아버지(부친)’ 정도로 쉽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남 지사는 운수업을 하던 선친(→ **부친**) 고 남평우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31살 때부터 내리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바로 경기지사에 당선했다.

수도세/전기세

‘수도세(水道稅)’, ‘전기세(電氣稅)’가 ‘수도료’, ‘전기료’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표현이기는 하나 수돗물과 전기를 쓰고 그 대가로 내는 돈이지 ‘세금’은 아니므로 기사 문장에서는 ‘수도료/수도 요금’, ‘전기료/전기 요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남는 에너지를 팔아 나오는 이윤은 입주민 전기세(→ **전기료**)를 낮춰 주는 데 쓰인다.

수입산

‘-산(産)’은 ‘(지역을 나타내는 말 뒤에 붙어) 거기에서 산출된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한국산’, ‘제주산’, ‘중국산’, ‘외국산’처럼 써야 한다. ‘수입(輸入)’은 ‘지역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므로 접미사 ‘-산’을 붙일 수 없다. 해당 물건이 산출된 지역이나 국가 이름에 붙이거나, ‘수입품’처럼 표현해야 한다.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19일 수입산(→ **수입/외국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의 구제조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스러운

‘-스럽다’는 일부 명사에 붙어 그런 성질이 있음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다. ‘-스럽다’가 붙은 형용사는 ‘ㅂ불규칙용언’이 되므로 ‘ㅂ’이 ‘우’로 바뀌어 ‘-스런’이 아니라 ‘-스러운’으로 활용한다.

- ▶ 가증스러운/맛깔스러운/사랑스러운/쑥스러운/예스러운/을씨년스러운/자랑스러운/자연스러운/자유스러운/좁스러운/짜증스러운/천연덕스러운/탐스러운/태연스러운/허접스러운/혼란스러운.
- ▶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민간금융까지 확대해 달라는 곤혹스런(→ **곤혹스러운**) 요청도 나왔다.

식해/식혜

‘식해(食醃)’는 생선을 소금, 쌀, 좁쌀 등과 함께 섞어 숙성시킨 식품이며, ‘식혜(食醢)’는 밥을 엇기름으로 삭힌 음료다.

신문/심문

‘신문(訊問)’은 ‘검찰, 변호인이 증인이나 피의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묻는 일’이며, ‘심문(審問)’은 ‘법원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이다.

실업난

‘난(難)’은 ‘어려움’ 또는 ‘모자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다. ‘급수난’, ‘자재난’처럼 어떤 사물이 모자라서 겪는 어려움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실업난(失業難)’은 ‘실업’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이 되므로 잘못이다. ‘구직난’, ‘취업난’, ‘실업 사태’처럼 표현한다.

- ▶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역시 여전히 많으며, 특히 청년층(15~29세)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사상 최악의 실업난(→ **취업난/구직난/실업 사태**)에 처해 있다.

심도

‘심도(深度)’는 ‘깊은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심도 있다’는 ‘심도 깊다’, ‘심도 얕다’, ‘깊이(가) 있다’처럼 표현하여야 한다. 따뜻함의 정도를 나타낼 때 ‘온도 있다’라고 하지 않고 ‘온도가 높다’, ‘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 경찰의 관심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 쏠려 있어 대공수사권 이관에 관한 문제를 경찰과 심도 있게(→ **심도 깊게/깊이 있게**) 논의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씩이다/씩하다

‘씩이다’는 ‘씩다’의 사동사로서 ‘걱정이나 근심 따위로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가 되도록 하다’의 뜻을 나타내며, ‘씩하다’는 역시 ‘씩다’의 사동사로서 ‘유기물이 분해됨으로써 원래의 성질을 잃고 나쁜 냄새가 나며 형체가 뭉개지는 상태가 되도록 하다’, ‘물건이나 사람 또는 사람의 재능 따위가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내버려진 상태가 되도록 하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떤 곳에 얹매어 있도록 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 ▶ 이제 아버 어머니 속 좀 작작 썩여라.//먹고 남은 음식을 썩혀서 거름을 만들었다./기술자가 부족해 아까운 장비를 썩히고 있다./불경기로 취직하지 못해 재능을 썩히는 젊은이들이 널렸다./군대에 가는 게 젊음을 썩히는 일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아는 척하다/알은척하다

‘알은척하다’는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짓다’의 뜻으로 한 낱말이므로 붙여 쓴다. ‘아는 척하다’는 ‘지식 따위가 없으면서 있는 듯이 거짓으로 꾸미다’의 뜻으로 한 낱말이 아니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알은척하다’와 ‘아는 척하다’는 ‘알은체하다’, ‘아는 체하다’처럼 ‘척’을 ‘체’로 바꿔 쓸 수 있다.

- ▶ 그 사람이 뭐래도 알은척하지 마라./길에서 마주쳤는데도 그 친구가 나를 알은척하지 않더라.//저이는 똥이든 아는 척하고 나서길 좋아한다.
- ▶ 그런데 잠깐이고, 마주치면 ‘안녕, 너가 현준이구나’, ‘반가워’, ‘잘생겼다’, 하고 먼저 인사를 하고 아는 척(→ **알은척**)을 해 주더라고요.

아니오/아니요

‘아니오’는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에 하오체의 종결어미 ‘-오’가 결합한 것이며, ‘아니요’는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감탄사 ‘아니’에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요’가 결합한 것이다. ‘아니’는 ‘응’에, ‘아니요’는 ‘예’에 대응하는 말이다.

- ▶ 이건 내 도끼가 아니오./당신이 한 짓 아니오?//네, 아니요로 답하시오./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 ▶ 가장 간단한 유형은 제시된 문항에 대해 예, 아니오(→ **아니요**)로 답하는 방식이다.

아버님-아버지/어머님-어머니

‘아버님’, ‘어머님’은 ‘아버지’, ‘어머니’의 높임말이지만 자식이 자신의 친부모를 직접 이르거나 부를 때는 쓰지 않는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이르거나 부를 때, 사위가 장인, 장모를 이르거나 친근하게 부를 때, 다른 사람의 부모를 부르거나 직접 가리킬 때 쓴다. 다만, 돌아가신 부모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에게 올리는 편지글에서도 쓸 수 있다. 자신의 부모를 직접 이르거나 부를 때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한다. 사위가 처부모를 부르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장인’, ‘장모’, ‘장인어른’, ‘장모님’이다. 인터뷰 기사 등에서 인터뷰 대상자가 자신의 부모나 처부모를 언급하는 대목에서는 이러한 화법에 맞춰 표현해 주어야 한다. 기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부모나 처부모를 지칭할 때는 ‘(~의) 아버지’, ‘(~의) 어머니’, ‘(~의) 장인’, ‘(~의) 장모’라고 표현한다.

- ▶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사위가 처부모에게) 아버님, 안녕히 주무세요./어머님, 진지 드세요./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처부모를 직접 가리키며) 아버님 어머님 차례입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를, 사위가 처부모를 다른 이에게 지칭하며) 아버님 어머님은 지금 여행 중이십니다.// (편지글에서) 아버님 전 상서./ (친구 등 다른 이에게) 자네 아버님은 평안하신가?
- ▶ 신 전 부회장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아버님(→ **아버지/부친**)의 악화한 건강 등을 참 작해 달라”라고 짧게 말했다.

안되다/안 되다

‘일 · 현상 ·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를 뜻하면 동사, 또는 ‘섭섭하거나 가엾어 마음이 언짢다’, ‘근심이나 병 따위로 얼굴이 많이 상하다’를 뜻하면 형용사로서 한 낱말이므로 ‘안되다’로 붙여 쓰지만, ‘되지 아니하다’를 뜻하면 한 낱말이 아니므로 ‘안 되다’로 띄어 쓴다.

- ▶ 그 가게는 장사가 안돼서 휴업 중이다./ 자식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는가?/ 아무리 안돼도 우리 가운데 세 명은 완주해야 한다./ 그 사람 너무 안됐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지 얼굴이 참 안돼 보였다.// 그곳에 가면 안 된다.
- ▶ 백 씨는 “다들 참 안 됐다는(→ **안됐다는**) 이유로 막연히 시작한 기부지만 지금은 주위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한테 밥 얻어먹고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기부는 계속한다’고 말하고 다닌다”라고 얘기했다.

않다

보조용언 ‘않다’는 동사 뒤에서는 보조동사로서 ‘않는다’, ‘않느냐’, ‘않는가’로 활용하고, 형용사 뒤에서는 보조형용사로서 ‘않다’, ‘않으냐’, ‘않은가’로 활용한다.

- ▶ 내일은 출근하지 않는다./왜 여태 떠나지 않느냐?/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되지 않는가?//너는 절대 나쁘지 않다./그 친구 참 멋지지 않느냐?/참 아름답지 않은가?
- ▶ 초등학교 시절엔 공격수 포지션이었지만, 큰 키에 걸맞지 않는(→ **않은**) 민첩함 덕분에 골키퍼로 전향했다.

애틁다/애틁다

‘애틁다’는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의 뜻을 나타내며, ‘애틁다’는 ‘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워 속이 끊는 듯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 ▶ 그 노부부는 자식을 앞세우고 애틁는 슬픔에 잠겨 있다.//자식의 소식을 몰라 애틁는 하소연을 하였다.
- ▶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횡사한 아들을 가슴에 묻고 긴 추석 연휴를 보내야 했던 그의 나지막한 음성에선 피뎀을 잃은 애틁는(→ **애틁는**) 심정이 묻어났다.

애환

‘애환(哀歡)’은 ‘슬픔과 기쁨’을 아울러 이르는, ‘희비(喜悲)’와 뜻이 비슷한 말이다. ‘슬픔’만을 뜻할 때는 ‘애환’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즉, ‘애환을 달래다’는 ‘달래다’의 목적어로 슬픔과 기쁨을 아우르는 ‘애환’이 올 수 없으므로 ‘슬픔을 달래다’처럼 표현해야 한다.

- ▶ 말뚝이가 양반의 권위의를 조롱하며 애환(→ **슬픔/설움**)을 달래듯 볼리비아 공연단은 식민시대 은광에서 일하던 토착민의 고통을 담고 있다.

엄니

‘엄니’는 크고 날카롭게 발달한 포유류의 이빨이다. 호랑이, 사자, 멧돼지 따위의 엄니는 송곳니가 발달한 것이며, 코끼리의 엄니는 앞니가 발달한 것이다. 특히 ‘상아(象牙)’를 ‘코끼리의 어금니’처럼 표현하면 안 된다.

- ▶ 병들어 죽은 새끼를 어금니로(→ **엄니**) 들어 운반한 코끼리도 있다.

에/에게

‘에’와 ‘에게’는 체언에 붙어 부사어를 만드는 조사이다. 사람과 동물처럼 감정이 있으면 ‘에게’를, 그 밖의 모든 사물에는 ‘에’를 쓴다.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이라도 특정 부분을 이룰 때는 ‘에게’가 아닌 ‘에’를 쓴다.

- ▶ 이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다./온 국민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그가 관리에게 뇌물을 주었다./어느 쥐가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아 주겠는가./나에게 손대지 마라.//이 글의 저작권은 언론진흥재단에 있다./어느 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그가 관리의 손에 뇌물을 쥐여 주었다./온 나라에 기쁜 소식을 전했다./내 몸에 손대지 마라.
- ▶ 리그 최하위 삼성에게(→ **삼성에**) 마지막 남은 ‘희망’이 하나 있다면, 좌완 투수 백정현의 존재다.

-에요/-예요

‘-예요’는 ‘이다’,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 설명·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이다. ‘이다’의 어간에 ‘-예요(-어요)’가 붙은 ‘-이에요(-iero)’는 받침 없는 체언 뒤에서는 ‘-예요(-여요)’로 줄어든다. 사람 이름에 받침이 있으면 보조사 ‘이’가 붙으므로 받침 없는 체언과 마찬가지로 ‘-예요(-여요)’를 붙이게 된다. 다시 말해 ‘영철’은 받침 있는 이름이지만 보조사 ‘이’를 붙인 ‘영철이’에다 ‘-예요(-여요)’를 붙여 ‘영철이에요(영철iero)’로 쓴다. ‘아니다’는 체언이 아닌 용언이므로 조사 ‘이다’가 붙을 수 없다. 따라서 바로 ‘-예요’를 붙이므로 ‘아니예요(아니iero)’가 아니라 ‘아니예요(아니iero)’가 된다. ‘아니예요(아니iero)’는 ‘아녜요(아녀yo)’로 줄일 수 있다.

- ▶ 이것은 책이에요(책iero)/막 돌아가려는 참이에요(참iero)/제 이름은 영숙이에요(영숙iero)/제 이름은 영희예요(영희iero)/이건 옳은 일이 아니예요(아니iero · 아녜요 · 아녀yo).
- ▶ 대형 쇼핑몰만 골목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예요(→ **아니예요**).
- ▶ 한국 원자력계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 기관의 보고서도 왜곡한단 말예요(→ **말이에요**).
- ▶ ““고사리 꺾기”라고 사람들이 고사리 모양으로 움직이며 안과 밖이 연결되는 대동놀이에요(→ **대동놀이예요**).”

-여

‘-여(餘)’는 수량을 뜻하는 말 뒤에 붙어 ‘그 수를 넘음’을 뜻하는 접미사이다. 따라서 ‘10여 명 이상’, ‘100여 개 남짓’처럼 ‘이상’, ‘남짓’ 따위의 말을 덧붙이지 않고 ‘10여 명’, ‘100여 개’라고 표현한다. 또 ‘수십여 명’, ‘수백여 개’처럼 불특정수를 나타내는 말과도 함께 쓰지 않고 ‘수십 명’, ‘수백 개’라고 한다.

- ▶ 29일 오후 7시 청와대 사랑채 앞 자로에 수백여(→ **수백**) 명이 모여 앉았다.

역임

‘역임(歷任)’은 ‘여러 직위를 두루 거쳐 지냄’을 뜻하는 말이다. 하나의 직위만을 지낸 것은 ‘역임’이라고 할 수 없다. 특정인의 약력을 소개할 때는 둘 이상의 직위를 나열한 뒤 ‘역임했다’라고 해야 한다.

- ▶ 그는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 ▶ 스웨덴 출신인 앤더슨 총장은 노벨 화학상 심사위원장을 역임한(→ **지낸/맡았던**) 저명한 학자다.

연비

‘연비’는 한자로는 ‘燃比’와 ‘燃費’로 적는바, 그 뜻이 서로 다르다. ‘燃比’는 ‘자동차의 단위 연료당 주행 거리의 비율’이며, ‘燃費’는 ‘자동차가 단위 주행거리 또는 단위 시간당 소비하는 연료의 양’이다. 예컨대 ‘燃比’는 ‘연료 1L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며, ‘燃費’는 ‘1km를 가는 데 얼마나 많은 연료를 소비하는지’를 나타낸다. 두 낱말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뜻하므로 ‘연비가 높다’, ‘연비가 낮다’ 식의 표현은 그 의미가 막연해진다. ‘燃比’가 높으면 같은 양의 연료로 더 멀리 갈 수 있지만 ‘燃費’가 높으면 같은 거리를 가는 데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게 된다. ‘연비’ 대신 ‘연료 소비 효율’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부인/영식/영애

‘영부인(令夫人)’ 남의 아내를 높이는 말이다. 흔히 ‘대통령의 부인’을 뜻하는 말로 오해하는데 ‘영(令)’은 남을 높이는 데 쓰는 말이다. 이때의 ‘令’은 대통령(大統領)의 ‘令’과는 관련 없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아들을 ‘영식(令息)’이라 하고, 딸을 ‘영애(令愛)’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식’, ‘영애’도 대통령의 아들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초청장 따위에서 ‘同 令夫人’이라고 하면 부인과 함께 오라는 뜻이 된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아내도, 필부의 아내도 남이 높여 부를 때는 모두 ‘영부인’이 된다.

- ▶ 숙명여고 출신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단연 문 대통령의 영부인(→ **부인**) 김정숙 여사다.

외중

‘외중(渦中)’은 본디 ‘흐르는 물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의 뜻이며 여기에서 ‘일이나 사건 따위가 시끄럽고 복잡하게 벌어지는 가운데’라는 뜻이 생겼다. 따라서 ‘조용한 외중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외중에’ 같은 표현은 옳지 않다.

- ▶ 그가 무용 영화제를 꾸리게 된 것은 평생 우리 무용 발전에 헌신하는 외중에도(→ **중에도**) 무용의 율타리를 뛰어넘는 새로운 실험에 꾸준히 도전해 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외골수/외궂

‘외골수(-骨髓)’는 ‘단 한 곳으로만 파고드는 사람’을 뜻하며, ‘외궂’은 ‘단 한 곳으로만 통하는 길’을 뜻한다. ‘외궂’은 ‘외궂으로’의 꼴로 쓰여 ‘단 하나의 방법이나 방향’을 나타낸다.

- ▶ 그 사람은 공부밖에 모르는 외골수 학자일세./사람이 외궂으로만 생각해선 안 되네.
- ▶ 지난 1월 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를 급랭시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3일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며 외골수로(→ **외궂으로**) 가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우방국

‘우방국(友邦國)’의 ‘邦’과 ‘國’은 모두 ‘나라’를 뜻하는 한자다. 따라서 ‘우방국’은 겹말이다. ‘우방’이라고만 한다. ‘우방국가’도 마찬가지로.

- ▶ 이란은 최근 시아파 정권인 시리아 등 전통적 우방국(→ **우방**)뿐 아니라 카타르 등 수니파 국가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운명/유명

‘운명(殞命)’은 ‘사람의 목숨이 끊어짐’을 뜻하며, ‘유명(幽明)’은 저승과 이승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사람이 죽었음을 표현할 때는 ‘운명하다’ 또는 ‘유명을 달리하다’라고 한다. ‘운명을 달리하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또 ‘유명’의 한자를 병기할 때는 ‘저승’을 뜻하는 ‘幽冥’으로 적지 않도록 주의한다.

- ▶ 다리를 펴고 누울 자리조차 안 되는 크기의 작은 움막에서 지내며 가족의 평안을 위해 탑을 쌓은 차 씨는 2011년 운명(→ **유명**)을 달리했다.

운영/운용

‘운영(運營)’은 ‘조직,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함’,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나감’을 뜻하며, ‘운용(運用)’은 ‘무엇을 움직이거나 부리어 씬’을 뜻한다.

- ▶ 기업체 운영./대학의 학사 운영./자본의 운용./법의 운용.
- ▶ 최근 5년간 이 제도의 운영(→ **운용**) 현황을 보면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간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월등

‘월등(越等)’은 ‘수준이 정도 이상으로 뛰어남’을 뜻하는 말이다. ‘월등히 나쁘다’처럼 수준이 낮거나 모자를 나타낼 때는 쓸 수 없다. 또 ‘월등히 많다’처럼 수준과 관련 없는 표현에도 써서는 안 된다. ‘월등히 많다’는 ‘훨씬 많다’처럼 쓴다. 또 ‘월등히 좋다’도 겹말이 되므로 ‘월등하다’, ‘훨씬 좋다’처럼 표현한다.

- ▶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보다 월등히(→ **훨씬**) 낮아 ‘로또 아파트’ 부작용을 불러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유명세

‘유명세(有名稅)’는 ‘세상에 널리 알려져 당하는 불편이나 곤욕’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유명세를 타다’처럼 유명해진다는 뜻으로는 쓸 수 없다. ‘유명세를 치르다’, ‘유명세가 따르다’처럼 불편을 당하거나 곤욕스러운 처지가 됨을 표현할 때 써야 한다. ‘유명세를 치르다’, ‘유명세가 따르다’도 유명해진다는 뜻으로 써서는 안 된다.

- ▶ 옆에 있는 한우식당도 유명 오락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한때 유명세를 치렀던(→ **유명해졌던**) 곳이지만 테이블 네 개에만 손님이 있었다.

유명한 일화

‘일화(逸話)’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를 뜻하는 말이다. 따라서 ‘일화’는 유명할 수 없고, ‘유명하면’ 일화일 수 없다. 실제로 유명한 일에 대한 이야기면 ‘유명한 이야기’처럼 표현하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면 ‘일화’라고만 표현해야 한다. ‘잘 알려진 일화’ 같은 표현도 마찬가지로 마땅하지 않다.

- ▶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30대의 젊은 지방 간부인 왕양을 직접 불러 면담하고 격려한 건 유명한 일화다(→ **유명한 일이다/잘 알려진 얘기다**).

의붓-/이복-/이부-

어머니가 다르면 ‘이복형제(異腹兄弟)’라 하고, 아버지가 다르면 ‘이부형제(異父兄弟)’라 한다. ‘의붓-’은 ‘의붓아버지’, ‘의붓어머니’, ‘의붓아들’, ‘의붓딸’, ‘의붓자식’처럼 부모-자식의 관계에만 쓴다. ‘의붓형제’, ‘의붓형’, ‘의붓동생’처럼 써서는 안 된다.

- ▶ 이번 사건으로 김정은은 의붓형(→ **이복형**) 김정남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자리를 넘볼 잠재 위험을 없앨 수 있을진 모르지만 국제사회 내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견을 좁히다

‘이견(異見)’은 서로 다른 의견을 뜻하므로 좁힐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견이 있다’, ‘이견이 생기다’, ‘이견이 없다’, ‘이견을 없애다/해소하다’처럼 쓴다. 의견이 서로 다른 정도를 줄인다는 뜻으로는 ‘견해차를 좁히다’, ‘의견 차를 좁히다’처럼 표현한다.

- ▶ 교육부의 입학금 폐지 요구에 일부 사립대가 그 대신 허용 범위 내에서 등록금이라도 인상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의견 차를 좁히지/견해차를 좁히지/이견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착의

‘인상(人相)’은 ‘사람의 얼굴 생김새’를, ‘착의(着衣)’는 ‘옷을 입음’을 뜻하므로 ‘인상착의’는 ‘얼굴 생김새와 옷차림’을 함께 나타내는 말이다. ‘얼굴 생김새’나 ‘옷차림’ 가운데 하나만을 밝히고 ‘인상착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경찰은 범인이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했으며 검은 점퍼와 청바지를 입었다고 인상착의를 밝혔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얼굴 생김새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인상착의’라고 할 수 없다.

- ▶ 범인의 인상착의(→ **신체 특징**)에 대해서는 한 명은 키가 크고 다른 한 명은 키가 작았다고만 설명했다.

일구다

‘일구다’는 ‘논밭을 만들기 위하여 땅을 파서 일으키다’라는 뜻이다. ‘어떤 대상이 일정한 상태나 결과를 생기게 하거나 일으키거나 만들다’라는 뜻을 나타내려면 ‘이루다’, ‘이룩하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한강의 기적을 일궜다’, ‘노점에서 시작해 번듯한 사업체를 일궜다’ 같은 표현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이룩했다)’, ‘노점에서 시작해 번듯한 사업체를 이뤘다(키워 냈다)’라고 해야 한다.

- ▶ 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도 스스로의 힘으로 부를 일궜(→ **쌓아/축적해/모아**) 세계 최고 자산가 반열에 오른 인물이 여럿 있다.

일절

‘일절’과 ‘일체’는 한자로는 똑같이 ‘一切’라고 적지만 ‘일절’은 ‘아주, 전혀’의 뜻으로 부인하거나 금지할 때 쓰는 부사이며, ‘일체’는 ‘전부’를 뜻하는 명사 또는 ‘모든 것을 다’를 뜻하는 부사이다.

- ▶ 오늘부터 이 방은 일절 출입을 금지한다./일절 참견하지 마라./그는 재산 일체를 사회에 기부하였다./오늘은 공부 걱정은 일체 털어 버리고 즐겁게 놀아라.

잃다/잊다

‘잃다’는 ‘가졌던 물건이 자신도 모르게 없어지다’, ‘땅이나 자리가 없어지다’, ‘가까운 사람이 죽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기회나 때가 사라지다’, ‘몸의 일부분이 잘려 나가거나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다’, ‘의식이나 감정 따위가 사라지다’, ‘본디의 모습이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다’, ‘길을 못 찾거나 방향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다’, ‘같이 있던 사람을 놓쳐 헤어지게 되다’, ‘의미나 의의가 없어지다’, ‘경기나 도박에서 저 돈 따위를 빼앗기다’, ‘신용이나 점수가 깎이다’를 뜻하며, ‘잊다’는 ‘기억이 없어지다’, ‘해야 할 일을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하다’, ‘단념하고 생각하지 않다’, ‘본분이나 은혜 따위를 저버리다’, ‘일에 골몰하여 잠이나 끼니 따위를 제대로 취하지 않다’를 뜻한다.

▶ 버스에서 지갑을 잃었다./구조조정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조국을 잃다./병으로 조강지처를 잃었다./그 사건 때문에 친구도 후원자도 잃었다./어려운 형편이어서 공부할 기회를 잃었다./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다./시력을 잃다./입맛을 잃다./용기를 잃다./이성을 잃다./균형을 잃다./그 집안은 옛 명성을 잃었다./산속에서 길을 잃었다./복잡한 지하도에서 방향을 잃었다./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잃었다./존재의 의의를 잃었다./노름판에서 돈을 잃었다./제때 돈을 갚지 못해 신용을 잃었다.//그 책의 제목을 잊었다./깜빡 약속을 잊었다./시름을 잊다./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인터넷에 빠져 침식도 잊고 지낸다.

임대(료)/임차(료)

‘임대(賃貸)’는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을 뜻하며, ‘임차(賃借)’는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임대료’는 주인이 빌린 사람에게서 받는 돈이며, ‘임차료’는 빌린 사람이 주인에게 내는 돈이다.

▶ 그 사람은 부동산 임대 수입으로 생활한다./임대료 수입이 제법 짹짹하다.//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다./임차료가 비싸 생활비 벌기도 빠듯하다.
▶ 월세 상한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등 저소득층의 임대료(→ **임차료**) 부담을 덜어 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산부/임신부

‘임산부(妊産婦)’는 아이를 뱀 임부(妊婦)와 아이를 갓 낳은 산부(産婦)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며, ‘임신부(妊娠婦)’는 ‘아이를 뱀 여자’, 즉 ‘임부’를 이르는 말이다. ‘임산부’를 ‘임신부’의 뜻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고위험 임신이 진단된 임산부(→ **임신부**)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두 진료과의 긴밀한 협진 아래 치료와 분만을 결정한다.

잇달다/잇따르다

‘뒤를 이어 따르다’, ‘어떤 사건이나 행동 따위가 연이어 발생하다’의 뜻일 때는 자동사로서 동의어인 ‘잇달다’와 ‘잇따르다’를 모두 쓸 수 있으나, ‘일정한 모양의 사물을 잇대어 달다’라는 뜻의 타동사로 쓰일 때는 ‘잇달다’만을 쓴다. ‘잇달다’는 ‘잇달아’, ‘잇단’, ‘잇다니’, ‘잇다오’처럼, ‘잇따르다’는 ‘잇따라’, ‘잇따른’, ‘잇따르니’, ‘잇따르오’처럼 활용한다. 특히, 관형형인 ‘잇단’, ‘잇따른’을 ‘잇딴’으로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자 추모 행렬이 잇달았다(잇따랐다)/청소년들의 또래 폭행 사건이 잇달아(잇따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화물차를 객차 뒤에 잇달았다.
- ▶ 한국·대만 등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와 잇딴(→ **잇단/잇따른**) 스마트폰 출시 등으로 수출 호조가 예상되며, 물가 상승에 애먹던 이머징 국가들도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 들어 상당 부분 완화됐다.

자문

‘자문(諮問)’은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이라는 뜻이다. ‘조언, 설명’의 뜻으로 써서는 안 된다. 특히 ‘자(諮)’에는 ‘높은 이가 낮은 이에게 문의함’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 써야 한다. ‘자문’은 묻는다는 뜻으로만 쓰여 ‘자문을 구하다’는 ‘자문하다, 묻다, 도움을 구하다’와 같이, 아랫사람이윗사람의 물음에 대응하거나 전문적인 설명을 할 때는 ‘자문에 응하다’, ‘물음에 답하다’, ‘조언하다’, ‘설명하다’와 같이 쓰여진다. ‘자문위원’, ‘자문역’, ‘자문번호사’ 등은 그가 속해 있는 기관·단체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사람이다.

- ▶ 그 회사는 매사를 전문가에게 자문한 뒤 결정한다./그 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했다.//교수님의 조언을 구했다.
- ▶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제도 운용 과정에서 고교에 필요한 자문(→ **지원/조언**)을 해주는 기관이 다음 달 선정돼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자정

‘자정(子正)’은 하루가 시작되는 ‘0시’의 뜻으로 쓰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25일 자정’은 하루가 끝나는 ‘25일 밤 12시’가 아니라 하루가 시작되는 ‘25일 0시’를 나타낸다. 기사 문장에서는 읽는 이가 자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24시간’의 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정’보다는 ‘0시’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어떤 일이 계속되는 상황을 표현할 때는 ‘자정을 넘기다’라고 할 수 있겠다. ‘자정’은 ‘자시(子時·23시부터 이튿날 어시까지)’의 한가운데임을 나타내며 12간지의 시작이 ‘자(子)’이므로 자정을 ‘마침’이 아닌 ‘시작’의 뜻으로 쓰는 것이 마땅하다.

작렬/작열

‘작렬(炸裂)’은 ‘포탄 따위가 터져서 사방으로 흩어짐’을 뜻하며, ‘작열(灼熱)’은 ‘불 따위가 이글이글 타오름’을 뜻한다. ‘작렬’은 운동 경기에서 공격 따위가 포탄 터지듯 하거나 박수 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 많이 쓰인다. 이때 ‘작열’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 ▶ 그는 작렬하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쳐 전우들의 생명을 구했다.//7월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 벌어진 경기에서 그렇게 많은 홈런이 작렬한 것은 드문 일이다.
- ▶ 길게는 29일 동안 인간의 노동이 수반되지만 같은 기간 작렬하는(→ **작열하는**) 태양과 젖은 소금을 말리는 바람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장본인

‘장본인(張本人)’은 ‘어떤 일을 피하여 일으킨 바로 그 사람’이란 뜻으로 통상 부정적인 일을 이끈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다. ‘쿠데타를 이끈 장본인’처럼 쓰며 ‘민주화를 이끈 장본인’처럼 쓰지 않는다. ‘민주화’처럼 긍정적인 일을 앞장서서 한 사람은 ‘주역, 주인공’처럼 쓰는 것이 좋다. 중립적인 표현으로는 ‘당사자’가 있다.

- ▶ 돌고 돌아 대통령 선거 캠프 출신 정치권 인사라 아쉬운 감도 있지만, 대선 과정에서 중기부 신설 공약을 만든 장본인(→ **주역/당사자**)이니 기대 또한 남다르다.

장애/장해

‘장애(障礙)’는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거치적거리게 하거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함. 또는 그런 일. 신체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 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 유선통신이나 무선통신에서 유효 신호의 전송을 방해하는 잡음이나 혼신 따위의 물리적 현상’을, ‘장해(障害)’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아서 방해함. 또는 그런 것’을 뜻한다.

- ▶ 의사소통의 장애./신체장애./호흡 장애./방송 중에 송신 시설의 이상으로 여러 차례 장애가 나타났다.//그 절벽을 오르는 데 별다른 장해는 없다./큰 장해를 받지 않고 목표 지점까지 나아갔다.
- ▶ 부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서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 범위에서 장해등급(→ **장애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장이/쟁이

‘-장이’는 일부 명사 뒤에서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며, ‘-쟁이’는 일부 명사 뒤에서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장인(匠人)의 뜻이 있으면 ‘-장이’로, 없으면 ‘-쟁이’로 쓴다. 예를 들어 ‘갓장이’는 갓을 만드는 사람을, ‘갓쟁이’는 갓을 즐겨 쓰는 사람을 뜻한다.

- ▶ 간판장이/땀장이/양복장이/옹기장이/칠장이//겹쟁이/고집쟁이/떼쟁이/멋쟁이/무식쟁이/점쟁이.
- ▶ 고독사로 시신이 부패해 가는 왕년의 떠돌이 옹기쟁이가(→ **옹기장이가**) 과거 ‘지상에 남은 마지막 사람’을 생각하며 바닥에 작은 새를 그려 넣었던 술병이다.

재연/재현

‘재연(再演)’은 ‘연극이나 영화를 다시 상연함. 한 번 하였던 행위나 일을 다시 되풀이함’을 뜻하며, ‘재현(再現)’은 ‘다시 나타나거나 다시 나타냄’을 뜻한다.

- ▶ 연쇄 살인범 강호순이 현장검증에서 태연하게 범행을 재연했다.//고궁에서 수문장 교대 의식을 재현하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기한 듯 관람하고 있다.

저희 나라

국가는 상대방에게 낮출 대상이 아니므로 겸양의 뜻이 있는 ‘저희’를 쓰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써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 낱말이므로 붙여 쓴다.

절대절명/절체절명

몸도 목숨도 다 되었다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는 궁박한 처지를 나타내는 말은 절체절명(絕體絕命)이다. ‘절대적으로’ 따위의 말에 이끌려 ‘절대절명(絕對絶命)’으로 써서는 안 된다.

- ▶ 탄핵과 대선 패배로 당이 절대절명(→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홍 대표는 인적 청산으로 당을 혁신한 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접수

‘접수(接受)’는 ‘신청, 신고, 돈, 물건 따위를 받음’을 뜻한다. 즉, ‘입사 원서를 접수하다’라고 하면 접수하는 주체는 ‘회사’가 되므로 ‘홍길동 씨가 ○○그룹에 입사 원서를 접수했다’처럼 쓸 수 없다. 이때는 ‘홍길동 씨가 ○○그룹에 입사 원서를 제출했다’처럼 써야 한다. 또 모집 공고 등에 ‘방문 접수’라고 하는 일이 있는데 공고를 낸 주체가 특정인이나 특정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원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틀린 표현이다. 지원자가 회사를 찾아와 내는 행위는 ‘방문 제출’이라고 해야 옳다.

- ▶ 24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서 아무개 씨는 지난달 7일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위법하게 수용됐다면 법무부에 투자자-국가소송제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제출했다**).

제·개정

‘제정’과 ‘개정’에 한글로는 ‘정’이 공통으로 들어 있으나 한자로는 ‘制定’과 ‘改正’의 ‘정’ 자가 서로 다른 글자이므로 ‘제·개정’처럼 일부를 생략할 수 없다.

- ▶ 민주노총은 노동법 전면 제·개정(→ **제정 및 개정**)을 사회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정부가 11월 12일까지 구체적 견해와 실행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조리다/졸이다

‘조리다’는 ‘고기나 생선, 채소 따위를 양념하여 바삭하게 끓이다’의 뜻을 나타내며, ‘졸이다’는 ‘찌개, 국, 한약 따위의 물을 증발시켜 분량이 적어지도록 하다. 위협적이거나 압도하는 대상 앞에서 겁을 먹거나 기를 펴지 못하다’의 뜻을 나타낸다.

- ▶ 생선을 조리다./멸치와 고추를 간장에 조렸다.//국물이 싱거우니 좀 더 졸여라./마음을 졸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다.

조정/조종

‘조정(調整)’은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을 뜻하며, ‘조종(操縱)’은 ‘비행기나 선박, 자동차 따위의 기계를 다루어 부림.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 부림’을 뜻한다.

- ▶ 선거구 조정/버스 노선의 조정/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많은 부서가 재편되었다.//비행기 조종. 원격 조종. 배후 조종.

쫓다/쫓다

‘쫓다’는 ‘목표, 이상, 행복 따위를 추구하다. 남의 말이나 뜻을 따르다. 규칙이나 관습 따위를 지켜서 그대로 하다. 눈여겨보거나 눈길을 보내다. 생각을 하나하나 더듬어 가다. 남의 이론 따위를 따르다’의 뜻을 나타내며, ‘쫓다’는 ‘어떤 대상을 잡거나 만나기 위하여 뒤를 급히 따르다. 어떤 자리에서 떠나도록 몰다. 밀려드는 줄음이나 잡념 따위를 물리치다’의 뜻을 나타낸다. 통상 실제적인 공간의 이동이 없으면 ‘쫓다’를,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쫓다’를 쓴다.

- ▶ 명예를 쫓는 젊은이/부모님의 의견을 쫓기로 했다./관례를 쫓아서 했을 뿐이다./달려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쫓았다./그는 걸으면서 마을의 옛 모습을 쫓고 있었다./그는 스승의 학설을 쫓을 뿐이었다./한밤 도심에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다./황소가 꼬리를 흔들며 파리를 쫓았다./허벅지를 꼬집으면서 잠을 쫓았다.

주기/주년

‘주기(週忌/周忌)’는 ‘사람이 죽은 뒤 그 날짜가 해마다 돌아오는 횟수를 나타내는 말’이다. ‘죽은 뒤 그 날짜’란 바로 ‘제삿날’, ‘기일(忌日)’을 뜻한다. 따라서 ‘주기’는 몇 번째 기일인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주년(周年/週年)’은 ‘1년을 단위로 돌아오는 돌’을 뜻한다. 즉, ‘주년’은 어떤 일이 일어난 날이 1년 단위로 돌아오는 것을 뜻한다.

‘주기’는 ‘내일이 할아버지의 25주기가 되는 날이다’처럼 쓰거나 죽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충무공 ○○○주기’처럼 쓴다. 흔히 ‘주기’를 ‘줄지 않은 일이 1년 단위로 돌아오는 돌’로 오해하여, 예컨대 ‘세월호 참사 4주기’, ‘세월호 4주기’처럼 표현하면 안 된다. 이는 ‘세월호 참사 4주년’처럼 표현해야 한다. 또 ‘세월호’는 어떤 ‘일’이 아니라 배 이름이므로 ‘세월호 4주년’이라고도 할 수 없다.

- ▶ 세월호 참사 3주기를(→ **3주년을**) 맞은 16일 전국이 ‘노란 물결’로 뒤덮였다.

죽음을 당하다/죽임을 당하다

‘죽음을 당하다’는 자연재해 따위에서처럼 죽이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동물이 실재하지 않거나 막연할 때 쓰며, ‘죽임을 당하다’는 죽이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동물 등이 실제로 존재할 때 쓴다.

- ▶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강도에게 죽임을 당했다.
- ▶ 일제강점기 말 일본 남단 오키나와에 군무원으로 끌려왔다가 일본군 등에 억울하게 죽음(→ **죽임**)을 당한 박희태 씨 등 한인 15명이 70여 년 만에 위령을 받게 됐다.

지/-ㄴ지/-ㄹ지/-는지/-은지/-을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ㄴ지’, ‘-ㄹ지’, ‘-는지’, ‘-은지’, ‘-을지’는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

- ▶ 고향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선생님을 뵈 지도 꽤 오래됐다./그 사람은 얼마나 성실한지 모르겠다./고향을 떠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무엇이 틀렸는지 알아보자./신랑감이 건강은 좋은지 모르겠다./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 좀 해 보라.

참가/참석/참여

‘참가(參加)’는 ‘모임이나 단체 또는 일에 관계하여 들어감’을, ‘참석(參席)’은 ‘모임이나 회의 따위의 자리에서 참여함’을, ‘참여(參與)’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을 뜻한다. ‘참여’는 어떤 일의 진행 과정에 개입돼 있음을, ‘참석’은 모임이나 회의에 출석하는 행위를, ‘참가’는 어떤 일과 관련하여 출석뿐만 아니라 참여의 과정에 있음을 나타낸다.

-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 1주년 행사에 참여했다(→ **참가했다**).

초토

‘초토(焦土)’는 ‘불에 타서 그을린 땅’을 뜻한다. 여기에서 ‘불에 탄 것처럼 황폐해지고 못 쓰게 된 상태’의 뜻이 파생되었다. 따라서 홍수나 태풍 등 불과 관련 없는 재해를 당한 곳과 관련하여 표현할 때 ‘초토화됐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 화재, 전쟁 등 불과 관련된 재해로 잿더미가 된 현상을 나타낼 때, 또는 그런 것에 비유할 수 있는 상황이나 사회 현상을 표현할 때 써야 한다. 불과 관련 없이 쓰인 ‘초토’는 ‘쑥대밭’, ‘폐허’ 같은 말로 나타낼 수 있다.

- ▶ 카리브해 섬들을 초토화한(→ **폐허로 만든/쑥대밭으로 만든**) 허리케인 ‘어마(irma)’가 미국 본토인 플로리다주를 휩쓸며 북상하고 있다.

출사표

‘출사표(出師表)’는 장수가 출병할 때에 그 뜻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던 글이다. 중국 삼국시대의 촉나라 재상인 제갈량(제갈공명)이 왕에게 올린 ‘출사표’가 유명하다. 이처럼 ‘출사표’는 임금에게 ‘올리던’ 글이므로, 요즘 선거 등에 출마하면서 출마의 변을 발표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출사표를 던지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왕조 시대가 아니라 해도 그 원 뜻을 고려할 때도 그렇고, 선거 등에 출마하는 사람이 자신이 섬겨야 할 국민 등을 향해서 출사표를 던진다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출사표를 올리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출사표를 내다’, ‘출사표를 발표하다’, ‘출마를 선언하다’처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에 출사표를 던지다’ 식의 표현도 옳지 않다.

- ▶ 문 전 대표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공식 홈페이지(moonjaein.com)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출사표를 던졌다(→ **출사표를 발표했다/출사표를 냈다/출마를 선언했다**).
- ▶ LG전자가 ‘셀프 피부관리’ 시장 확대에 따라 ‘홈 뷰티’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타산지석

‘타산지석(他山之石)’은 다른 산의 나쁜 돌도 자신의 옥돌을 가는 데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언행도 자신이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바람직하고 좋은 언행으로 자신의 수양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귀감(龜鑑)’, ‘본보기’라고 한다.

- ▶ SK이노베이션이 매년 임금인상률을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연동하기로 했다...(중략)...노사 교섭 때 밀고 당기기식의 소모적인 관행을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중략)...국내의 대표적 자동차기업 노사들은 SK이노베이션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탄신일

‘탄신일(誕辰日)’은 ‘탄신’을 ‘탄생(誕生)’의 높임말로 오해해서 생긴 말이다. ‘신(辰)’은 ‘일(日)’과 뜻이 같은 글자다. 따라서 ‘탄일(誕日)’, ‘탄생일(誕生日)’, ‘탄신(誕辰)’이 모두 ‘임금이나 성인이 태어난 날’을 가리키는 말이다. ‘생일(生日)’과 ‘생신(生辰)’이 같은 말인 것과 마찬가지로. 또 ‘주년(周年)’ 같은 말과 어울릴 때는 ‘탄생’, ‘출생’을 써야 한다.

- ▶ 성균관대학생과 일부보존회 회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 대성전에서 공자탄신일(→ **공자 탄생**) 2568주년을 맞아 전통 춤인 팔일무를 추고 있다.
- ▶ 우당 탄신(→ **탄생**) 150주년이 되는 올해, 진정한 애국의 길이 무엇인지 고뇌한 조선 후기 지도층의 활동과 당대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전시품 110점을 모았다.

터울

‘터울’은 한 어머니가 먼저 낳은 아이와 그다음에 낳은 아이의 나이 차를 나타내는 말이다. 따라서 한 어머니의 아이들이 아닌 사람 사이의 나이 차를 나타내는 데 써서는 안 된다. 이복 형제자매 사이의 나이 차를 나타낼 때도 쓸 수 없다.

- ▶ 3살 터울의(→ **나이 차가 3살인**) 연상·연하 커플인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해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다. 연인 사이로 나와 ‘송송 커플’로 불린 두 사람은 이 드라마로 KBS 연기대상을 공동 수상하고 베스트 커플상을 받았다.
- ▶ 신생아가 아닌 은비는 양부모에게 선택받지 못했다. 입양기관에서 생활한 지 1년이 지나서야 두 남자가이가 있는 한 가정에서 입양을 희망했다. 친자녀와 터울이 적당하고(→ **나이 차가 적당히 나고**) 예쁜 여자아이여서 입양하고 싶다고 했다.

퍼센트/퍼센트포인트

‘퍼센트(%)’는 기존 수량을 기준으로 증가된 수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고, ‘퍼센트포인트(%)’는 기존의 백분율 수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표시한 것이다.

평가하다(評價-)

‘평가하다’는 ‘...을 ...으로 평가하다’, ‘...을 -게(-이·-히) 평가하다’, ‘...을 -고 평가하다’, ‘-고 평가하다’의 형식으로 써야 한다. ‘우리는 이번 남북 합의를 평가한다’처럼 ‘어떻게’에 해당하는 부사어 없이 써서는 안 된다. ‘평가’의 결과는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청와대는 지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통화가 알려진 지 3시간 만에 “양 정상의 적극적인 노력을 평가한다(→ **노력을 높이/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예문의 직접 인용 부분은 청와대 발표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해서 밝혀 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표지(標識)

‘識’은 ‘알다’의 뜻이면 ‘학식(學識)’, ‘상식(常識)’처럼 ‘식’으로, ‘알리다’의 뜻이면 ‘도로표지(道路標識)’, ‘표지종(標識種)’처럼 ‘지’로 읽는다. 따라서 ‘標識’을 ‘표식’으로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를 하여 외부에 드러내 보이는 것은 ‘표시(標示)’이다.

- ▶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생체칩 인체 주입은 문명적으로는 인간의 사이보그화, 종교적으로는 ‘짐승의 표식(→ **표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피난/피란

‘피난(避難)’은 ‘재난을 피하여 멀리 옮겨 감’을 뜻하며, ‘피란(避亂)’은 ‘난리를 피하여 옮겨 감’을 뜻한다. 즉, 지진, 해일, 화재, 홍수 따위의 재난을 피하는 것은 ‘피난’이라고 하며, 전쟁을 피하는 것은 ‘피란’이라고 한다.

- ▶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장진호 용사들의 놀라운 투혼 덕분에 10만여 명의 피난민(→ **피란민**)을 구출한 흥남철수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다. 그때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오른 피난민(→ **피란민**) 중에 저의 부모님도 계셨다”며 가정사를 소개했다.

피다/피우다

‘피다’는 ‘꽃봉오리 따위가 벌어지다’, ‘연탄이나 숯 따위에 불이 일어나 스스로 타다’, ‘사람이 살이 오르고 혈색이 좋아지다’, ‘구름이나 연기 따위가 커지다’, ‘가정이 수입이 늘어 형편이 나아지다’, ‘냄새나 먼지 따위가 퍼지거나 일어나다’, ‘천에 보풀이 일어나다’, ‘웃음이나 미소 따위가 겉으로 나타나다’, ‘곰팡이, 버짐, 검버섯 따위가 생겨서 나타나다’, ‘액체가 종이나 천에 묻어 퍼지다’의 뜻을 나타내는 자동사이며, ‘피우다’는 ‘꽃봉오리 따위가 피게 하다’, ‘연탄이나 숯 따위에 불을 붙여 타게 하다’, ‘연기 따위가 생기게 하다’, ‘냄새나 먼지 따위가 퍼지거나 일어나게 하다’, ‘웃음이나 미소 따위가 나타나게 하다’, ‘어떤 물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내보내다’, ‘(일부 명사와 함께 쓰여) 그 명사가 뜻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나타내다’의 뜻을 나타내는 타동사다. 목적이 있으면 타동사인 ‘피우다’를 써야 한다. ‘피우다’를 쓸 곳에 ‘피다’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 박정희 대통령과 거리낌 없이 맞담배 피던(→ **피우던**) 관료들의 대부분이 아버지와의 갓 사회에 얼굴을 내민 전두환과는 비교조차 안 됐습니다.

피로 회복

‘회복(回復)’은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피로 회복’은 ‘피로를 되찾음’이라는 뜻이 되므로 ‘피로를 없애다’라는 뜻으로 쓰기에 부적절하다. ‘피로 해소’, ‘원기 회복’, ‘피로 풀기’처럼 써야 한다.

- ▶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수분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피로 회복(→ **피로 해소/원기 회복**)과 면역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
- ▶ 지압도 건강한 모발 관리에 도움된다. 손가락의 지문이 있는 쪽으로 두피를 눌러주면 모근이 튼튼해지고 피로가 회복된다(→ **풀린다/해소된다**).

한글/한국어

‘한글’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나라 고유의 문자를 일컫는 말이다. 나라말을 뜻하는 ‘국어’, ‘한국어’, ‘우리말’과는 다른 개념이다. ‘한글을 배운다’라고 하면 한국 고유의 글자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 된다. 영어가 아니라 알파벳을 배운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단비’, ‘빛나’, ‘새샘’ 같은 이름은 ‘한글 이름’이 아니라 ‘순우리말 이름’ 또는 ‘고유어 이름’이다.

- ▶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라틴어로 된 학명만 있고 한글(→ **우리말**) 이름이 없는 국내 곤충 2513종에 한글(→ **우리말**) 이름을 지어 주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한번/한 번

‘어떤 일을 시험 삼아 시도함, 기회 있는 어떤 때’를 뜻하면 한 낱말이므로 붙여 쓰고, ‘번’이 ‘차례나 일의 횟수’를 뜻하면 한 낱말이 아니므로 띄어 쓴다. ‘한번’ 대신 ‘두 번, 세 번’으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붙여 쓴다.

- ▶ 단속에 걸려 추방될까 봐 도래 친구들이 좋아하는 놀이동산 한 번(→ **한번**) 못 갔다.

한참/한창

‘한참’은 ‘두 역참 사이의 거리’에서 비롯한 말로,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을 뜻하며, ‘한창’은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 또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은 때’를 뜻하며 부사로도 쓰인다.

- ▶ CES 관련 행사가 한참(→ **한창**)이던 2주 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선 그렇지 않았다.

햇볕/햇빛

‘햇볕’은 ‘해의 뜨거운 기운’을 뜻하며, ‘햇빛’은 ‘해의 빛’을 뜻한다. ‘햇볕’은 ‘뜨겁다’, ‘따뜻하다’처럼 온도와 관련된 말과 어울리고 ‘햇빛’은 ‘환하다’, ‘밝다’처럼 조도와 관련된 말과 어울린다.

- ▶ 이윽고 성별에 관계없이 비슷해진 짧은 머리들, 그 위로 좀 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햇볕(→ **햇빛**)만이 환하게 쏟아졌다.

확 · 포장

‘확장(擴張)’과 ‘포장(鋪裝)’에 한글로는 ‘장’이 공통으로 들어 있으나 한자로는 ‘장’ 자가 서로 다른 글자이므로 ‘확 · 포장’처럼 일부를 생략할 수 없다.

- ▶ 화천 사내면 용담리와 하남면 계성리를 잇는 13.5km 구간은 허리가 끊긴 채 23년째 확 · 포장(→ **확장 및 포장**)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나. 금기어 및 피해야 할 어휘-표현

성적으로 차별하거나, 장애인·인종 및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뜻이 있는 용어, 특정 직업을 낮추어 부르는 말은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과격하거나 저속한 표현도 피해야 한다. 속담이나 관용 표현이라도 될 수 있으면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

- 간호원 → 간호사
- 검둥이 → 흑인
- 광부 → 광원
- 구두닦이 → 구두미화원
- 권력의 시녀 → 권력의 앞잡이
- 귀머거리 → 청각장애인
- 꿀 먹은 벙어리(×)
- 노가다 → 막일꾼
- 농아자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띠따라 → 연예인
- 말단 공무원 → 일선 공무원
- 목 잘리다 → 해고되다
- 벙어리 냉가슴 앓듯 → 냉가슴 앓듯
- 벙어리 → 언어장애인
- 불구자 → 장애인
- 소경 → 시각장애인, 맹인
- 수위 → 경비원
- 시각장애자 → 시각장애인, 맹인
- 시간을 죽이다 → 시간을 보내다
- 신체장애자 → 지체장애인
- 언어장애자 → 언어장애인
- 우체부 → (우편)집배원
- 운전수 → 운전사
- 장님 → 시각장애인, 맹인
- 장님 문고리 잡듯(×)
- 장님 코끼리 만지듯(×)
- 장애자 → 장애인
- 절름발이 → 지체장애인
- 절름발이 행정(×)
- 정신박약 → 정신지체
- 지체장애자 → 지체장애인
- 집달리 → 집달관
- 처녀림 → 원시림
- 처녀비행 → 첫 비행, 최초 비행
- 청각장애자 → 청각장애인
- 청소부 → 청소원
- 청소부 → 환경미화원
- 코쟁이 → 서양인
- 터키탕 → 증기탕, 한증막
- 튀기 → 훈혈인
- 피 튀기다 → 치열하다

다. 일본어 투 어휘-표현

-고(高)

흔히 ‘잔고(殘高)’, ‘생산고(生産高)’, ‘판매고(販賣高)’처럼 ‘-고’로써 ‘금액’, ‘양(量)’을 나타낼 때 쓰는데 이는 일본어 투이다. 예를 들어 ‘잔고’가 남은 돈을 나타낼 때는 ‘잔액’ 또는 ‘잔금’으로, 남은 규모나 정도를 나타낼 때는 ‘잔량’으로 쓴다.

- ▶ 강렬한 문체, 압도적 서사로 국내 스릴러 장르문학으로서는 이례적인 50만 부라는 판매고를 올렸다
(→ **이례적인 50만 부 판매량을 기록했다/이례적으로 50만 부를 판매했다**).

고수부지(高水敷地)

‘둔치’, ‘강터’으로 순화.

- ▶ 충북 진천군민 1500여 명이 10일 진천읍 백곡천 고수부지(→ **둔치**)에서 미군 독도법 훈련장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했다.

굴삭기(掘削機)

‘굴착기(掘鑿機)’로 순화. ‘굴삭기’는 일본어에서 ‘鑿’과 ‘削’을 모두 ‘삭’으로 발음함에 따라 ‘削’으로 바뀌는 것을 들여와 그대로 우리 한자음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참고로 ‘포클레인’은 상표명이므로 ‘굴착기’ 대신 쓰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 ▶ 현대건설기계는 사물인터넷(IoT)을 현장에 접목했다. 굴삭기(→ **굴착기**)에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이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기라성(綺羅星)

흔히 ‘기라성 같은’처럼 쓰는데 이는 일본어 투이므로 ‘쟁쟁한’, ‘훌륭한’, ‘겉출한’, ‘뛰어난’ 등으로 순화한다.

- ▶ 박정환, 신진서, 최철한, 이지현, 원성진, 신민준, 김지석 등 기라성 같은(→ **쟁쟁한**) 강자들과 함께 1조에서 겨루는데 중위권을 유지 중이다.

내역(内譯)

‘명세(明細)’, ‘내용(内容)’으로 순화. 국어사전에서는 ‘명세’로 순화하도록 하였으나, 단순히 ‘명세’로 바꾸면 어색할 때가 있기도 하다. 그런 때는 ‘내용’으로 바꾸면 무리가 없다. ‘명세’와 ‘내용’ 가운데 적절한 말로 바꿔 쓰면 된다. 흔히 나타나는 쓰임새로 ‘통화 내역’이 있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명세’, ‘내용’,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 ▶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에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며, 국회 차원에서 KBS와 방문진 이사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명세/내용)에 대한 조사를 벌이자고 주장했다.

다름 아니다

일본어 ‘にほかならない’를 번역한 표현이다. ‘~에 다름 아니다’는 ‘~와 다름없다’, ‘~나 다름없다’, ‘~와 마찬가지로’처럼 표현한다.

- ▶ 나아가 이 사안에 대해 대립을 증폭시키려는 조짐마저 보이는 것은 정파적 이익만을 도모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것과 다름없다/것이나 다름없다/것과 마찬가지로).

부(ぶ)

‘8부 능선, 칠부바지’ 같은 말에 쓰이는 ‘부’는 10분의 1을 뜻하는 ‘분(分)’의 일본어 ‘ぶ’의 음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8푼 능선, 칠푼바지’처럼 ‘푼’으로 쓴다. ‘푼’ 대신 ‘분’으로 쓰기도 한다.

- ▶ 이 산길은 태기산의 8부(→ 8푼) 능선인 해발 980m를 넘어 이어진 ‘양구두미재’로 지역 사람들은 양구데미라 부른다.

사양(仕様)

‘품목(品目)’, ‘제원(諸元)’, ‘설명(説明)’으로 순화.

- ▶ 르노삼성 SM6D는 깔끔하고 차별화한 디자인, 고급 안전·편의 사양(→ 품목) 등으로 지난해 첫 등장과 함께 중형차 시장에 파란을 일으켰다.
- ▶ 국내 휴대폰 시장에서 높은 사양(→ 제원)과 가격이 특징인 프리미엄폰 비중이 해외보다 3배가량 높아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先)

‘거래선(去來先)’, ‘수입선(輸入先)’처럼 쓰이는 ‘선’은 일본어 투이다. ‘-처(處)’로 순화.

- ▶ 무역협회는 “사드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중국 업체들이 부품소재 수입선을(→ 수입처를) 다른 국가로 대체하고, 중국 기업의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선착장(船着場)

‘나루’, ‘나루터’로 순화.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부두’, ‘선창’, ‘포구’ 같은 말로 바꿔 쓸 수 있다.

- ▶ 장 회장은 대학생 등 방문단과 함께 이날 독도 선착장(→ 나루터/부두)에서 ‘홀로아리랑’ 합창, 천연 염색 한복패션쇼, 태극기 퍼포먼스 등을 펼쳤다.

세대(世帶)

‘가구(家口)’, ‘호(戶)’, ‘채’로 순화. ‘가구’는 인적 구성을 나타내므로 집의 수효를 나타낼 때는 ‘호’나 ‘채’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목동 신시가지 휴엔하임’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34층 5개 동, 총 1282세대(→ 채) 규모이며 전용 면적별로는 59㎡ 878세대(→ 채), 74㎡ 404세대(→ 채)로 구성된다.
- ▶ ‘목동 신시가지 휴엔하임’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세대주(→ 가구주)이거나 소형주택 소유자면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시합(試合)

‘경기’, ‘겨루기’로 순화.

- ▶ “...태권도 시합(→ 경기) 땀 한 대 맞아도 두 대 때리면 되는데, 안 보이는 데서 선배들이 체벌하는 게 싫었죠.”

십팔번(十八番)

‘단골 장기’, ‘단골 노래’, ‘애창곡’으로 순화.

- ▶ 전 여사가 술자리에서 부르는 십팔번(→ 애창곡)은 ‘단장의 미아리고개’다.

언도(言渡)

‘선고(宣告)’로 순화.

- ▶ 1910년 2월 14일 일제가 안중근에게 사형을 언도하자(선고하자) “이토 히로부미가 많은 우리 국민을 죽였으니, 이토 한 사람을 죽인 게 무슨 죄냐”며 “일본 재판소가 외국인 변호사를 거절한 것은 무지의 극치”라고 항의했다.

입장(立場)

‘처지(處地)’로 순화. ‘입장’은 본래의 뜻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다양한 뜻으로 쓰이는바 각 상황에 적절한 말로 바꿔 줄 필요가 있다. 전혀 필요하지 않은 곳에도 남용하는 경향이 강한 말이기도 하다.

- ▶ 의원입법으로 하되 법무부가 법사위 의원들과 긴밀히 의논해 정부 입장(→ **의견/방침**)을 법안에 최대한 반영시키겠다는 것이다.
- ▶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양쪽의 구애를 받는 입장이(→ **상황이**) 됐다.··· 당장 박지원 의원은 바른정당과의 공동교섭단체 논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고 부정적 입장을(→ **견해를**) 밝혔다.
- ▶ 미국 입장에선(→ **미국으로선**) 북한 핵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실려 미 본토로 날아오는 게 레드라인(red line)이다.··· 북핵에 대비해 미국의 핵우산 사용을 건의하는 현장 지휘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인데도 정부는 연합사령부를 조기에 해체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침이다**).

잉꼬(鸚哥 · いんこ) 부부

‘잉꼬’는 ‘앵무새’를 뜻하는 일본어이다. ‘잉꼬 부부’는 ‘원앙 부부’로 순화.

- ▶ 중진 동양화가인 서울대 미대 김병중 교수와 화려한 문체의 소설가 정미경 작가는 금실 좋은 잉꼬부부였다(→ **원앙 부부였다**).

전향적(前向的)

‘앞서감’, ‘적극적’, ‘진취적’으로 순화. 이 밖에도 상황에 따라 ‘긍정적’, ‘미래 지향적’ 같은 말로 바꿀 수 있다.

- ▶ 일부 기업은 전향적인(→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현대모비스는 사외이사 평가와 집행임원제는 필요하면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 이 같은 중국의 전향적(→ **적극적**) 대북 제재 조치의 배경에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28일 3박 4일 일정으로 방중 길에 오른 데 이어 오는 11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달(調達)

‘대어 줌’, ‘마련함’으로 순화.

- ▶ 민간 아파트에도 후분양제가 의무화될 경우 건설사가 추가로 조달해야(→ **마련해야**) 하는 자금이 연 평균 4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진검승부(眞劍勝負)

‘생사 겨루기’, ‘정면대결’ 등으로 순화.

- ▶ 기아(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가 22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정규리그 1위 자리를 놓고 ‘진검승부’를(→ 정면대결을/한판 승부를/맞대결을) 펼친다.

현해탄(玄海灘)

흔히 대한해협을 ‘현해탄’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일본 후쿠오카 주변의 해상 국정(國定)공원인 겐카이나다(玄海灘 또는 玄界灘)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것이다. 겐카이나다, 즉 현해탄은 대한해협에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대한해협과는 관련이 없는 해역이다. 또 대한해협의 가운데에 있는 쓰시마섬을 기준으로 동쪽(일본 쪽)은 ‘대한해협 동수도’이며, 서쪽(한국 쪽)은 ‘대한해협 서수도’라고 한다. ‘동수도’를 일본에서는 따로 ‘쓰시마해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 김 할머니는 ‘돈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꽃다운 14살 나이에 현해탄을 건넜지만(→ 대한해협을 건넜지만/일본으로 갔지만) 광복 때까지 전투기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렸다.

혹성(惑星)

‘행성(行星)’으로 순화.

- ▶ 차를 달려 빨리 오브 파이어 주립공원을 찾았다. 거기 들어서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든다. 외계의 혹성(→ 행성)에 온 게 아닌지….

1.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에 따라 적는다.

〈국제 음성 기호와 한글 대조표〉

자음			반모음		모음	
국제 음성 기호	한글		국제 음성 기호	한글	국제 음성 기호	한글
	모음 앞	자음 앞 또는 어말				
p	ㅍ	ㅍ, 프	j	이*	i	이
b	ㅂ	브	ɥ	위	y	위
t	ㅌ	ㅌ, 트	w	오, 우*	e	에
d	ㄸ	드			ø	외
k	ㅋ	ㄱ, ㅋ			ɛ	에
g	ㄱ	그			ẽ	앵
f	ㅍ	프			œ	외
v	ㅂ	브			œ̃	외
θ	ㅅ	스			æ	애
ð	ㄸ	드			a	아
s	ㅅ	스			ɑ	아
z	ㅈ	즈			ã	앙
ʃ	시	슈, 시			ʌ	어
ʒ	ㅈ	지			ɔ	오
ts	ㅈ	츠			õ	옹
dz	ㅈ	즈			o	오
tʃ	ㅈ	치			u	우
ɕ	ㅈ	지			ə**	어
m	ㅁ	ㅁ			ɶ	어
n	ㄴ	ㄴ				
ɲ	ㄴ*	뉴				
ŋ	ㅇ	ㅇ				
l	ㄹ, ㄹㄹ	ㄹ				
r	ㄹ	ㄹ				
h	ㅎ	ㅎ				
ç	ㅎ	히				
x	ㅎ	흐				

* [j], [w]의 ‘이’와 ‘오, 우’, 그리고 [ɲ]의 ‘니’는 모음과 결합할 때 각각 영어 독어 프랑스어 표기 세칙에 따른다.

** [ə]는 독일어에서 ‘에’, 프랑스어에서 ‘으’로 적는다.

2.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예) 굳바이(×) → 굿바이(○)
워크슌(×) → 워크슌(○)

3.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ㄲ, ㄸ, ㅃ, ㅆ, ㅈ)를 쓰지 않고 거센소리(ㅋ, ㆁ, ㅌ, ㅍ)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본어에서는 ‘ㅆ’, 중국어에서는 ‘ㅆ, ㅈ’를 허용한다.

예) 톨스토이(×) → 톨스토이(○)
빠리(×) → 파리(○)
꼬낙(×) → 코낙(○)

4.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동남아시아 3개 언어에서는 된소리 표기를 인정한다. 또 이들 언어의 관용 표기는 인정하지 않고 모두 고시된 외래어표기법(문화관광부 고시 제2004-11호)에 따라 쓴다.

예) 푸켓 → 푸켓, 호치민 → 호찌민

5. 인명은 원어에서 띄어 쓴 대로 표기하며, 지명은 모두 붙여 적는다.

6. ‘-land형’의 지명은 음가에 관계없이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에서는 ‘랜드’로,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란트’로, 그 밖의 언어권에서는 ‘란드’로 적는다.

예) Scotland 스코틀랜드
Saarland 자를란트
Lapland 라플란드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 사전·국어지식 → 외래어표기법’에서 언어별 표기 세칙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례를 찾을 수 있다.

ㄱ

가다랑이 → 가다랑어(-魚).

가디건(← cardigan) → 카디건.

-가량: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가물다: 활용에 주의. [활용] 가물고, 가물면(가물으며×), 가무니(가물으니×), 가문(가물은×), 가뭇(가뭇×, 가뭇음×). 다만, 오랫동안 계속하여 비가 내리지 않아 메마른 날씨를 나타내는 명사는 '가뭇' 또는 '가물'이다.

가운데발가락 → 가운데발가락.

가운데손가락 → 가운데손가락.

가재미 → 가자미.

가진 고생 → 갇은 고생, 온갖 고생.

간재미 → 간자미.

갈다: 활용에 주의. [활용] 갈고, 갈면(갈으며×), 가니(갈으니×), 갠(갈은×), 갇(갈×, 갈음×).

감질맛나다: 감질나다. 감칠맛나다.

갑갑하다: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갑갑지(갑갑치×), 갑갑다(갑갑타×).

갇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수 없으며 이때는 본말('가지다')의 활용형을 쓴다. [활용] 갇고, 가지면(갇으며×), 가질(갇일×), 가진(갇인×).

같이 하다 → 같이하다. 다만, '같이'가 부사로 쓰였으면 띄어 쓴다.

개과(-科) → 갯과.

개나리봇짐 → 괴나리봇짐.

개별 → 갯별, 개떨.

개소(個所) → 곳. 군데. '개소'는 일본어 투.

개주검 → 개죽음.

객적다(客-) → 객쩍다.

객주집(客主-) → 객줏집.

갯수(個數) → 개수.

거닐다: 활용에 주의. [활용] 거닐고, 거닐며(거닐으며×), 거닌(거닐은×), 거니니(거닐으니×), 거뉘(거닐×, 거닐음×).

거들다: 활용에 주의. [활용] 거들고, 거들며(거들으며×), 거든(거들은×), 거드니(거들으니×), 거뉘(거들×, 거들음×).

거래선(去來先) → 거래처(去來處). 일본어 투.

거북하다: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거북지(거북치×).

거칠다: 활용에 주의. [활용] 거칠고, 거치며(거칠으며×), 거친(거칠은×), 거치니(거칠으니×), 거침(거침×, 거침음×).

건강하세요/건강해라/건강하자(健康-) →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기 바랍니다. 형용사는 명령형, 청유형으로 쓸 수 없다.

건들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수 없으며 이때는 본말('건드리다')의 활용형을 쓴다. [활용] 건들고, 건드리면(건들이면×), 건드릴(건들일×), 건드린(건들인×), 건뉘(건들×, 건들임×).

걸다: 활용에 주의. [활용] 걸고, 걸며(걸으며×), 걷(걸은×), 거니(걸으니×), 걸(걸음×). 다만, '걷다'의 명사형 및 파생 명사는 '걸음'이다.

게 셋거라 → 게 섰거라. ‘거기 서 있거라’가 줄어든 말.
 게으름장이 → 게으름쟁이.
 격이 없다 → 격의(隔意) 없다.
 견마(牽馬) → 경마.
 견본(見本) → 본. 본보기. 일본어 투.
 견습(見習) → 수습(修習). 일본어 투.
 견양(見樣) → 서식. 보기. 본. 본보기. 일본어 투.
 견적(見積) → 어림셈. 추산(推算). 일본어 투.
 결단나다 → 결판나다.
 결재(決裁):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참조] 결제.
 결제(決濟):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내는 일. [참조] 결재.
 겸연적다(慚然-) → 겸연쩍다.
 겹불: 겨울 태우는 불. ♣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은 켜지지 않는다. [참조] 결불.
 경귀(警句) → 경구.
 경합(競合) → 경쟁(競爭). 일본어 투.
 겹불: 언어 짚는 불. ♣ 그는 정류장 옆에서 겹불을 켜며 차가 오기를 기다렸다. [참조] 겹불.
 고개마루 → 고갯마루.
 고개짓 → 고갯짓.
 고기덩어리(고기덩이) → 고깃덩어리(고깃덩이).
 고기사리 → 고기 추가분. ‘사리’는 ‘국수, 새끼, 싼 따위를 동그랗게 포개어 감은 뭉치’임.
 고기집 → 고깃집.
 고난이도(高難易度) → 고난도(高難度).
 고냉지(高冷地) → 고랭지(高冷地).
 고랫적 → 고릿적.
 고바이(勾配・こうばい) → 물매. 기울기. 오르막.
 비탈. [참조] 구배.
 고비길 → 고빋길.

고수부지(高水敷地) → 둔치. 강터. 일본어 투.
 고시레 → 고수레.
 고아원(孤兒院) → 보육원(保育院).
 고양이과(-科) → 고양이과.
 고유값(固有-) → 고윳값.
 고자질장이(告者-) → 고자질쟁이.
 고주알미주알 → 고주알미주알. 미주알고주알.
 고추가루 → 고춧가루.
 고추잎 → 고춧잎.
 곤로(焔爐) → 풍로(風爐). 화로(火爐). 일본어 투.
 곤욕(困辱): 심한 모욕. 참기 힘든 일. ♣ 곤욕을 치르다. [참조] 곤혹.
 곤이(困-) → 곤히.
 곤혹(困惑): 곤란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고 당황했다. [참조] 곤욕.
 곤혹(困惑)을 치르다 → 곤욕(困辱)을 치르다.
 골덴(←corded velveteen) → 코르덴.
 골에리어(goal area) → 골에어리어.
 골치거리 → 골칫거리.
 골치덩어리(골치덩이) → 골칫덩어리(골칫덩이).
 곰살굿다 → 곰살궂다.
 곰배기 → 곰빼기.
 곰추 → 꾹추. 꾹사등이. 척추장애인. 척추후만증 장애인.
 공동장소(共同場所) → 공공장소(公共場所).
 공드리다(功-) → 공들이다.
 공붓방(工夫房) → 공부방.
 공손이(恭遜-) → 공손히.
 과반수(過半數)를 넘다 → 반수를 넘다. 과반수이다.
 과반수(過半數) 이상(以上) → 반수 이상. 과반수.
 관자노리(貫子-) → 관자놀이.
 괄세 → 괄시(挾視).
 광폭(狂暴) → 광포. ‘暴’는 사나울 포.

광장(宏壯): 아주 크고 훌륭함, 보통 이상으로 대단함을 뜻하므로 ‘작다’, ‘적다’, ‘미미하다’, ‘하찮다’ 같은 말과 어울려 써서는 안 된다.

구구절절히(句句節節-) → 구구절절이. 구구절절.

구데타(←coup d'état) → 쿠데타.

구독점(句讀點) → 구두점.

구렛나루 → 구레나룻.

구리빛 → 구릿빛.

구배(勾配) → 물매. 오르막. 비탈. 기울기. 일본어 투. [참조] 고바이.

구설수(口舌數)에 오르다 → 구설에 오르다. 구설수에 휘말리다.

국수집 → 국숫집.

곰뱅이 → 굴뱅이.

굽신거리다 → 굴실거리다.

권(勸)커니 자커니 → 권커니 잣거니. 권커니 잡거니.

귀가길(歸家-) → 귀갓길.

귀가 트이다 → 귀가 뜨이다.

귀절(句節) → 구절.

그대 있음에 → 그대 있으며.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는 ‘-으며(-매)’이다.

그릇치다 → 그르치다.

그리고 나서 →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는 → 그러고는. 그렇게 하고는.

그리고서 → 그러고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슬다: 불에 걸만 약간 타게 하다. ‘그슬다’에 어미 ‘-은’이 연결되면 ‘그슨’이 된다. [참조] 그을다.

그을다: 햇볕이나 연기 따위를 오래 쬔어 검게 되다. ‘그을다’에 어미 ‘-은’이 연결되면 ‘그은’이 된다. [참조] 그슬다.

극대값(極大-) → 극댓값.

극소값(極小-) → 극솟값.

근근히(僅僅-) → 근근이.

근사값(近似-) → 근삿값.

근속년수(勤續年數) → 근속연수.

금슬(琴瑟) → 금실. 부부간의 사랑. 다만, 거문고와 비파를 아울러 이룰 때는 ‘금슬’임.

급급(汲汲)하다: ‘급급하다’는 형용사이므로 ‘급급하느’, ‘급급한다면’처럼 쓸 수 없다. ‘급급한’, ‘급급하다면’처럼 쓴다.

기대값(期待-) → 기댓값.

기뒤통(祈禱-) → 기도발. ‘-발’은 효과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접미사 앞에는 사이시옷을 받치지 않는다.

기막히는(氣-) → 기막힌. ‘기막히다’는 형용사이므로 관형사형 어미는 ‘-니’이다.

기반하다(基盤-) → 기반을 두다. ‘기반’에는 접미사 ‘-하다’를 붙일 수 없다.

기사거리(記事-) → 기삿거리.

기여코 → 기어코(期於-)

기울다: 활용에 주의. [활용] 기울고, 기울며(기울으며×). 기운(기울은×). 기우니(기울으니×). 기웁(기움×, 기울음×).

기지개를 키다 → 기지개를 켜다.

기지개를 펴다 → 기지개를 켜다.

김치국 → 김칫국.

김치독 → 김칫독.

김치소 → 김칫소.

김치속 → 김칫소.

까불다: 활용에 주의. [활용] 까불고, 까불며(까불으며×). 까분(까불은×). 까부니(까불으니×). 까뿔(까뿔×, 까뿔음×).

간에는 → 댐에는.

깎다: 활용에 주의. [활용] 깎고, 깎며(깎으며×). 깎(깎은×). 까니(깎으니×). 깎뿔(깎음×).

깜박이 → 깜빡이.

강보리밥 → 콩보리밥.
 강충강충 → 강충강충.
 강충하다 → 강충하다. 치마나 바지 따위의 옷이 좀 짧다.
 깨가루 → 깻가루.
 깨끗하다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깨끗지(깨끗치×), 깨끗다(깨끗타×).
 껌질채 → 껌질째.
 고지 → 고지. 꼬치. ‘고지’는 ‘호박, 박, 가지, 고구마 따위를 납작납작하거나 잘고 길게 썰어 말린 것’이며, ‘꼬치’는 ‘꼬챙이에 꿰 음식물’이다.
 꼭지점(黒点) → 꼭짓점.
 꼬나불 → 꼬나풀.
 끝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끌고, 끌며(끌으며×), 끈(끌은×), 꼬니(끌으니×), 꿂(끌×, 끌음×).
 끝임없다 → 끊임없다.
 끼니거리 → 끼닛거리.
 끼어들다 → 끼어들다.

L

나꿔채다 → 낚아채다.
 나뉘어지다 → 나누어지다. 나뉘다.
 나대지(裸地) → 빈 집터. 일본어 투.
 나라돈 → 나랏돈.
 나라빚 → 나랏빚.
 나라일 → 나랏일.
 나랏말 → 나라말.
 나룻터 → 나루터.
 나무결 → 나뭇결.
 나무등결 → 나뭇등결.
 나무래다 → 나무라다.
 나무조각 → 나뭇조각.
 나염 → 날염(捺染).

나이 값 → 나잇값.
 나직히 → 나직이.
 낚시대 → 낚싯대.
 낚시바늘 → 낚싯바늘.
 낚시배 → 낚싯배.
 낚시줄 → 낚싯줄.
 낚싯터 → 낚시터.
 날개 돋히다 → 날개 돋치다.
 날개죽지 → 날갯죽지.
 날개짓 → 날갯짓.
 날더러 → 나더러.
 날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날고, 날며(날으며×), 나는(날은×), 나니(날으니×), 났(남×, 날음×).
 남의 집 살이 → 남의집살이. 한 낱말이므로 붙여 쓴다.
 납득(納得) → 이해(理解). 일본어 투.
 낭떨어지 → 낭떠러지.
 낫설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낫설고, 낫설며(낫설으며×), 낫선(낫설은×), 낫서니(낫설으니×), 낫셈(낫셈×, 낫설음×).
 낫판대기 → 낫바대기.
 날날히 → 날날이.
 내노라 하다 → 내로라하다.
 내딛다 :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수 없으며 이때는 본말(‘내디디다’)의 활용형을 쓴다.
 [활용] 내딛고, 내디디면(내딛으면×), 내디딜(내딛을×), 내디딘(내딛은×).
 내뺄아 → 내뺄어.
 내흉(内凶) → 내송.
 낸들 → 난들.
 냄새(를) 피다 → 냄새(를) 피우다. 냄새피우다.
 냉이국 → 냉잇국.
 너그러히 → 너그러이.
 너까짓 → 네까짓.

너끈이 → 너끈히.

너머 :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 ㉠ 재 너머에 있는 논. 담 너머. [참조] 넘어.

넉넉하다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넉넉지(넉넉치×). 넉넉다(넉넉타×).

넉다운 → 녹다운(knockdown)

넌센스(nonsense) → 난센스.

넌즈시 → 넌지시.

넠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넠고. 넠며(넠으며×). 너는(넠으는×). 너니(넠으니×). 넠(넠×, 넠음×).

넠더러 → 너더러.

넠판지 → 넠판자. 넠빤지. 넠판때기.

넠이뛰기 → 멀리뛰기.

넠적넠적 → 넠적넠적.

넠직하다 → 넠찍하다.

넠어 : 동사 '넠다'의 활용형. 동작을 나타냄. ㉠ 산 넠어 산. [참조] 너머.

넠적다리 → 넠적다리.

넠닷새 → 네닷새.

노란자(위) → 노른자(위).

노래가락 → 노랫가락.

노래가사(-歌辭) → 노랫말. 가사.

노래말 → 노랫말.

노래소리 → 노랫소리.

노랑이 → 노랑이.

노레지다 → 노래지다. 누레지다.

노리개감 → 노리갯감.

노릿노릿 → 노릇노릇.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 → 노블레스 오블리주.

노스탤지(nostalgia) → 노스탤지어.

노우하우(knowhow) → 노하우.

노자돈(路資-) → 노잣돈. 노자.

노털(←老頭兒) → 노틀.

노틀담(Notre Dame) → 노트르담. 다만, 영어권일 때는 '노터데임'으로 적는다.

녹녹하다 → 녹록하다.

녹두나물 → 녹두전.

녹록하다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녹록지(녹록치×). 녹록다(녹록타×).

녹슬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녹슬고. 녹슬며(녹슬으며×). 녹슨(녹슬은×). 녹스니(녹슬으니×). 녹썸(녹숨×, 녹슬음×).

놀래미 → 노래미.

놀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놀고. 놀며(놀으며×). 노니(놀으니×). 놀(놀×, 놀음×). 다만, '놀이'를 뜻하는 명사는 '놀음'이다.

놀이감 → 장난감.

놈팡이 → 놈팡이.

농사길(農事-) → 농삿길.

농삿일(農事-) → 농사일.

농짓거리(弄-) → 농지거리.

농투산이(農-) → 농투성이.

높혀 → 높여.

농다 : '농다'의 활용형 '농아', '농아라', '농았다'는 '놔', '놔라', '놔다'로 줄여 쓸 수 있다. 그러나 '농은', '농음'은 '논', '놈'으로 줄일 수 없다.

뇌갈이다 → 뇌까리다.

뇌졸증 → 뇌졸중(腦卒中). 뇌중풍(腦中風).

누래지다 → 누레지다. 노래지다.

누룽밥 → 누룽지.

누와르(noir) → 누아르.

눈꼬리 → 눈초리. 다만, 눈의 생김새를 표현할 때는 '눈꼬리'도 표준어이다.

눈꼴 사납다 → 눈꼴사납다. 한 낱말이므로 붙여 쓴다.

눈멀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눈멀고, 눈멀며(눈멀
으며×), 눈먼(눈멀은×), 눈머니(눈멀으니
×), 눈몹(눈몹×, 눈몹음×).

눈부시는 → 눈부신. ‘눈부시다’는 형용사이므로 관
형사형 어미는 ‘-ㄴ’이다.

눈설미 → 눈썰미.

눈섭 → 눈썹.

눈에가시 → 눈엣가시.

눈쌀 → 눈살.

눈 여겨 보다 → 눈여겨보다. 한 낱말이므로 붙여
쓴다.

눈요기감(-療飢-) → 눈요깃감.

눈요기거리(-療飢-) → 눈요깃거리.

눈의 가시 → 눈엣가시.

눈치밥 → 눈칫밥.

눈탱이 → 눈통이.

놀다 → 놀다. ㄷ불규칙용언이므로 활용형을 ‘놀고’,
‘놀이’처럼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활용] 놀고,
놀이. 놀는, 놀어, 놀으니, 놀으면, 놀은, 놀음.

놀러볼다 → 놀어볼다.

누엇누엇 → 뉘엿뉘엿.

느즈막하다 → 느지막하다.

느지막히 → 느지막이.

느 커녕 → 느커녕. 하나의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늘상 → 늘.

늘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늘고, 늘며(늘으며×), 는
(늘은×), 느니(늘으니×), 늙(늙×, 늙음×).

-능(陵) : 고유어 다음에서는 ‘-능’으로, 한자어 다
음에서는 ‘-릉’으로 적는다. ㉠ 아기능. 정
릉. 태릉.

늦깎기 → 늦깎이.

니끼하다 → 느끼하다.

닐리리 → 뉘리리.

님 → 임. ㉠ 임의 침묵.

ㄷ

다듬이돌 → 다듬잇돌.

다듬이방망이 → 다듬잇방망이.

다디 달다 → 다디달다.

다락논 → 다랑논. 다랑이.

다랭이논 → 다랑논. 다랑이.

다리힘 → 다릿심.

다물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다물고, 다물며(다물
으며×), 다문(다물은×), 다무니(다물으니
×), 다뭍(다뭍×, 다뭍음×).

다시마국 → 다시맛국.

다시마자반 → 부각.

-다싶이 → -다시피. ㉠ 알다시피. 그는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다.

다알리아(dahlia) → 달리아.

다이나믹(dynamic) → 다이내믹.

다큐멘타리(documentary) → 다큐멘터리.

단간(單間) → 단칸. ㉠ 단칸방. 단칸살림. 단칸집.

단금질 → 담금질.

단단이 → 단단히.

단 돌 → 단돌. 한 낱말이므로 붙여 쓴다.

단 맛 → 단맛. 한 낱말이므로 붙여 쓴다.

단발마 → 단말마(斷末摩).

단언코 → 단연코(斷然-).

단오날(端午-) → 단옷날.

단청쟁이(丹青-) → 단청장이.

단출하다 → 단출하다.

단추구멍 → 단춧구멍.

달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달고, 달며(달으며×), 단
(달은×), 다니(달으니×), 뉘(담×, 달음×).

달달이 → 다달이.

달달하다 → 달콤하다.

달디달다 → 다디달다.

닭개장 → 닭개장.
 닭똥집 → (닭) 모래주머니.
 닭 벼슬 → 닭 볏.
 닭구다 → 닭그다. [활용] 닭근(닭근×), 닭가(닭귀×).
 닭뇨 → 닭요(糞-).
 담록색(淡綠色) → 담녹색.
 담박에 → 단박에.
 담배가게 → 담뱃가게.
 담배갑(-匣) → 담뱃갑.
 담배값 → 담뱃값.
 담배곽 → 담뱃갑.
 담배불 → 담뱃불.
 담배(를) 피다 → 담배를 피우다.
 담벽 → 담벼락.
 담장이 → 담쟁이.
 답답하다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답답지(답답치×), 답답다(답답타×).
 답을 맞추다 → 답을 맞히다. 다만, 정답과, 또는 둘 이상이 서로의 답과 비교하는 것은 '답을 맞추다'이다.
 당채 → 당최. '당초에'가 줄어든 말.
 당해년도(當該年度) → 당해연도.
 당혹(當惑) → 당황(唐惶). 일본어 투.
 대가집(大家-) → 대갓집.
 대구국(大口-) → 대국국.
 대귀(對句) → 대구.
 대노(大怒) → 대로. '怒'의 음은 본디 '노'이지만 속음으로 나는 때에는 속음으로 적는다.
 대단원의 막을 올리다(大單元-幕-) → 막을 올리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다.
 대들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대들고, 대들며(대들으며×), 대든(대들은×), 대드니(대들으니×), 대뒸(대듬×, 대들음×).
 대문짝(大門-) 만하다 → 대문짝만 하다.

대수로히 → 대수로이.
 대인배(大人輩) → 대인. '-배'는 '무리를 이룬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서 '불량배', '소인배', '폭력배'처럼 부정적인 뜻이 있는 명사에 붙는다.
 대잎 → 댓잎.
 대자(大-) → 대짜.
 대절(貸切) → 전세(專賣). 일본어 투.
 대중요법 → 대증요법(對症療法).
 대포술 → 대포술.
 대포잔(-盞) → 대포잔.
 대포집 → 대포집.
 대표값(代表-) → 대포값.
 댓가(代價) → 대가.
 댓귀(對句) → 대구.
 덕아웃(dugout) → 더그아웃.
 덜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덜고, 덜며(덜으며×), 던(덜은×), 더니(덜으니×), 뒸(덜×, 덜음×).
 덩쿨 → 덩굴. 념굴.
 도끼자루 → 도깃자루.
 도떼기시장(-市場) → 도떼기시장.
 도매값(都賣-) → 도맷값.
 도맷금(都賣金) → 도매금.
 도배쟁이(塗褙-) → 도배장이.
 도입하다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도입지(도입치×), 도입기로(도입키로×).
 도핀개핀 → 도긴개긴.
 도크(dock) → 독.
 돈나물 → 돌나물.
 돈구다 : 안경의 도수를 높게 하다.
 돈우다 : 도드라지거나 높아지게 하다.
 돈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돌고, 돌며(돌으며×), 돈(돌은×), 도니(돌으니×), 뒸(돌×, 돌음×).
 돌보미 → 돌봄이.
 돌뿌리 → 돌부리.

dot수(度數) → 도수.

동갑나기(同甲-) → 동갑내기.

동떨어지는 → 동떨어진. '동떨어지다'는 형용사이므로 관형사형 어미는 '-ㄴ'이다.

동병상린 → 동병상련(同病相憐).

동앗줄 → 동아줄.

동양난(東洋蘭) → 동양란.

동연배(同年輩) → 동년배.

-동이 → -둥이. ♣ 검둥이. 귀둥이. 귀염둥이. 늦둥이. 막내둥이. 막둥이. 바람둥이. 선둥이. 쌍둥이. 업둥이. 외둥이. 재간둥이. 재롱둥이. 칠삭둥이. 해방둥이. 흰둥이.

동지날(冬至-) → 동짓날.

동지달(冬至-) → 동짓달.

동치미국 → 동치밋국.

동태국(凍太-) → 동태국.

되돌이표(-標) → 도돌이표.

되려 → 되레. 도리어.

될 성 부르다 → 될성부르다. 한 낱말이므로 붙여 쓴다.

웁다 → 답다. 들입다.

두껍 → 두껍. 다만, 붓의 두껍은 '붓두껍'으로 쓴다.

♣ 쇠두껍. 연필두껍. 인도껍.

두껍다 : 두께의 정도, 사물의 높이나 집단의 규모가 보통보다 크다. ♣ 책이 두껍다. 두꺼운 옷. [참조] 두텁다.

두더쥐 → 두더지.

두둑히 → 두둑이.

두레일 → 두렛일.

두루말이 → 두루마리.

두부국(豆腐-) → 두붓국.

두부죽임(豆腐-) → 두부조림.

두텁다 : 신의, 믿음, 인정, 친분 따위가 굳고 깊다.

바둑과 관련하여 세력이 탄탄함을 나타낼 때 관용적으로 쓰기도 함. ♣ 두터운 신뢰. 친분이 두텁다. 세력이 두터운 바둑. [참조] 두껍다.

둘러쌔다 → 둘러싸다. 다만, 둘레를 빙 둘러서 쌓는 것은 '둘러쌓다'라고 한다. ♣ 한반도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였다. 화단 둘레를 돌로 둘러쌔었다.

둘르다 → 두르다. [활용] 두르고, 두르니, 두르면, 두른, 둘러.

둘째 가다 → 둘째가다. 한 낱말이므로 붙여 쓴다.

둥글넓적하다 → 둥글넓적하다.

둥글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둥글고, 둥글며(둥글으며×), 둥근(둥글은×), 둥그니(둥글으니×), 둥굴(둥글×, 둥글음×).

둥글레 → 둥굴레.

뒤꼭지 → 꼭뒤. 뒤통수.

뒤꼭지치다 → 뒤통수치다.

뒤덮히다 → 뒤덮이다.

뒤로 하다 → 뒤로하다. 한 낱말이므로 붙여 쓴다.

뒤 부분(-部分) → 뒷부분.

뒤설거지 → 뒷설거지.

뒤지느러미 → 뒷지느러미.

뒤쳐지다 → 뒤처지다. 다만, '뒤치다(엮어진 것을 젖혀 놓거나 자빠진 것을 엮어놓다)'의 피동형은 '뒤쳐지다'이다.

뒤치닥거리 → 뒤치다꺼리.

뒷걸 → 뒤걸.

뒷꿈치 → 뒤꿈치.

뒷끝 → 뒤끝.

뒷뜰 → 뒤뜰.

뒷목 → 목덜미.

뒷쪽 → 뒤쪽.

뒷차 → 뒤차.

뒗차기 → 뒤차기.

뒗채 → 뒤채.

뒗처리(-處理) → 뒤처리.

뒗축 → 뒤축.

뒗칸 → 뒤 칸. 한 낱말이 아니므로 띄어 쓴다.

뒗탈 → 뒤탈.

뒗통수 → 뒤통수.

뒗편(-便) → 뒤편.

뒗풀이 → 뒤풀이.

뒗힘 → 뒤심.

뒗굴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뒗굴고, 뒗굴며(뒗굴
으며×), 뒗구느(뒗굴으는×), 뒗군(뒗굴은
×), 뒗구니(뒗굴으니×), 뒗굴(뒗굴×, 뒗
굴음×).

드높히 → 드높이.

드라큐라(Dracula) → 드라큘라.

드리볼(dribble) → 드리블.

드물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드물고, 드물며(드물
으며×), 드문(드물으는×), 드무니(드물으니
×), 드뭇(드뭇×, 드물음×).

들깨잎 → 들깨잎.

들르다 : 지나는 길에 잠깐 들어가 머무르다. [활용]
들르니, 들르고, 들러, 들름. ㉠ 서점에 들러
책을 샀다. 친구 집에 들렀다. [참조] 들리다.

들리다 : ‘들다’의 피동사. ‘들다’의 피동사/사동사.
병이 걸리다. 귀신 따위가 덮치다. ㉠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신이 들린 듯이 숨씨가
좋다. 아이에게 책을 들려 보냈다. [참
조] 들르다.

들어닥치다 → 들이닥치다.

들어마시다 → 들이마시다.

들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들고, 들며(들으며×), 드
느(들으는×), 든(들은×), 드니(들으니×), 들
(들×, 들음×).

들이켜다 : 물 따위를 마구 마시다. ㉠ 물을 벌컥벌
컥 들이켈다. [참조] 들이키다.

들이키다 : 안쪽으로 가까이 옮기다. ㉠ 통로가 복잡하
니 발을 들이키면 좋겠다. [참조] 들이켜다.

들쳐메다 → 둘러메다.

들쳐업다 → 둘러업다.

등교길(登校-) → 등굣길.

등대불(燈臺-) → 등댓불.

등룡문(登龍門) → 등용문.

등살 : 등에 있는 근육. ㉠ 등살이 곳곳해졌다. [참
조] 등쌀.

등쌀 : 몹시 귀찮게 구는 짓. ㉠ 아이들 등쌀에 편히
쉬 수 없다. [참조] 등살.

딘다 :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수 없으며
이때는 본말(‘디디다’)의 활용형을 쓴다. [활
용] 딛고, 디디면(딛으면×), 디딜(딛일×), 디
딘(딛인×).

따 논 당상(堂上) → 따 놓은 당상. [참조] 놓다.

딱다구리 → 딱따구리.

팔래미 → 팔내미.

땀쟁이 → 땀장이.

땀땀이 무늬(←點點- · てんてん-) → 물방울무늬.

땀초 → 땀추. 땀추중.

떠들석하다 → 떠들썩하다.

떠들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떠들고, 떠들며(떠들
으며×), 떠드느(떠들으는×), 떠든(떠들은
×), 떠드니(떠들으니×), 떠듸(떠듬×, 떠
들음×).

떠벌리다 : 이야기를 과장하여 늘어놓다. ㉠ 실천도
못 하면서 떠벌리고 다니지 마라. [참조]
떠벌이다.

떠벌이다 : 굉장한 규모로 차리다. ㉠ 이것저것 사업을
떠벌여 놓고선 뒷감당을 제대로 못
한다. [참조] 떠벌리다.

떡사리 → 떡 추가분. '사리'는 '국수, 새끼, 실 따위
를 동그랗게 포개어 감은 뭉치'임.

떨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떨고, 떨며(떨으며×), 떠
는(떨으는×), 떼(떨은×), 떠니(떨으니×), 떨
(떨×, 떨음×).

떨은 맛 → **떨은맛**. 한 낱말이므로 붙여 쓴다.

뗏뗏하다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뗏뗏
지(뗏뗏치×).

떼 논 당상(堂上) → **떼 놓은 당상**. [참조] 놓다.

땡강(癲癇·てんかん) → **생떼**. '전간(癲癇)'은 '간질
(癇疾)', '지랄(병)'을 뜻하는 말이다. 병명은 '뇌전증
(腦癇症)'으로 순화.

또렷하다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또렷
지(또렷치×).

똑똑하다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똑똑
지(똑똑치×).

뚜렷하다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뚜렷
지(뚜렷치×).

ㄴ

라이선스(license) → **라이선스**.

라카(lacquer) → **래커**.

라카룸(locker room) → **라커룸**.

락(rock) → **록**.

락타제(lactase) → **락타아제**.

락토스(lactose) → **락토오스**.

럭키(lucky) → **러키**.

런닝(running) → **러닝**.

레인보우(rainbow) → **레인보**.

렌지(range) → **레인지**. †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렌트카(rent-a-car) → **렌터카**.

로맨티스트(romanticist) → **로맨티시스트**.

로봇(robot) → **로봇**.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 → **로스앤젤레스**.

로알제리(royal jelly) → **로열젤리**.

르노와르(Renoir) → **르누아르**.

리더십(leadership) → **리더십**.

리모콘(←remote control) → **리모컨**. 원격조종기.

ㅁ

마굿간(馬具間) → **마구간**.

마냥 : 언제까지나 줄곧. 부족함이 없이 실컷. 보통
의 정도를 넘어 몹시. '마냥'을 '처럼'의 뜻으
로 써서는 안 된다. † 이렇게 마냥 건다간 지
친다. 너마냥(→ 너처럼) 느긋한 사람은 없다.

마늘쫑 → **마늘쫑**.

마뜩하다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마뜩
지(마뜩치×).

마루바닥 → **마룻바닥**.

마르세이유(Marseille) → **마르세유**.

마리수(數) → **마릿수**.

마릴린(Marilyn) → **메릴린**.

막내누이 → **막넛누이**.

막내동생 → **막넛동생**.

막내사위 → **막넛사위**.

막내삼촌(三寸) → **막넛삼촌**.

막내손자(孫子) → **막넛손자**.

막내자식(子息) → **막넛자식**.

막연한 사이 → **막역한 사이**.

만두속(饅頭-) → **만두소**.

만들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만들고, 만들며(만들
으며×), 만드느(만들으느×), 만든(만들으
×), 만드니(만들으니×), 만듦(만들×, 만
들음×).

만석군(萬石-) → **만석꾼**.

만원사례(滿員謝禮)를 이루다 → **만원을 이루다**.

만화가게(漫畵-) → 만화가게.
 말쌩(을) 피다 → 말쌩(을) 피우다.
 말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말고, 말며(말으며×), 만
 (말은×), 마니(말으니×), 맏(맘×, 말음×).
 말타제(maltase) → 말타아제.
 말토스(maltose) → 말토오스.
 맑스(Marx) → 마르크스.
 맘모스(mammoth) → 매머드.
 맛갈나다 → 맛깁나다. 맛깁스럽다.
 맛사지(massage) → 마사지.
 망녕 → 망령(妄靈).
 매니아(mania) → 마니아.
 매무새 : 옷을 입은 맵시. ♣ 옷은 허름해도 매무새
 가 단정하다. [참조] 매무시.
 매무시 : 옷을 입을 때 매고 여미는 따위의 뒷단속.
 ♣ 옷매무시를 다시 하는 게 좋겠다. [참조]
 매무새.
 매입하다(買入-)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
 용] 매입지(매입치×).
 매출고(賣出高) → 판매액. 판매량. 일본어 투.
 맥베드(Macbeth) → 맥베스.
 맥주집(麥酒-) → 맥줏집.
 맴돌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맴돌고, 맴돌며(맴돌
 으며×), 맴돈(맴돌은×), 맴도니(맴돌으니
 ×), 맴똥(맴똥×, 맴똥음×).
 머구리(←潛・もぐり) → 잠수부(潛水夫).
 머리가 벗겨지다 → 머리가 벗어지다.
 머물다 :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수 없으며
 이때는 본말(머무르다)의 활용형을 쓴다.
 [활용] 머물고, 머무르면(머물으면×), 머
 물러(머물어×), 머문(머물은×), 머똔(머똥
 ×, 머똥음×)

머지않다 : 시간적으로 멀지 않다. 한 낱말이므로
 붙여 쓴다. ♣ 머지않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참조] 멀지 않다.
 먹이감 → 먹잇감.
 먼지털이 → 먼지떨이.
 멀지 않다 : '멀다'의 부정 표현으로 공간적 개념으
 로 쓴다. ♣ 회사가 이곳에서 멀지 않다.
 [참조] 머지않다.
 멀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멀고, 멀며(멀으며×), 먼
 (멀은×), 머니(멀으니×), 뭇(멈×, 멀음×).
 멧장이 → 멧쟁이.
 멧들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멧들고, 멧들며(멧들
 으며×), 멧든(멧들은×), 멧드니(멧들으니
 ×), 멧똥(멧똥×, 멧똥음×).
 메디칼(medical) → 메디컬.
 메세지(message) → 메시지.
 메이다 → 메다. ♣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
 메주덩어리(메주덩이) → 메줏덩어리(메줏덩이).
 메카니즘(mechanism) → 메커니즘.
 멤버십(membership) → 멤버십.
 멧돌 → 멧돌.
 며느리감 → 며느릿감.
 명확하다(明確-)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
 용] 명확지(명확치×).
 몇 일 → 며칠.
 몇일날 → 며친날. 며칠.
 모글(mogul) → 모굴.
 모기불 → 모깃불.
 모랫바람 → 모래바람.
 모이스춰(moisture) → 모이스처.
 모자르다 → 모자라다. [활용] 모자라고, 모자라는.
 모자란.

모지다 : 모양이 모가 나 있거나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다. [활용] 모지고, 모지면, 모진, 모짐.
㉠ 모진 식탁. 모진 성격. [참조] 모질다.

모질다 : 마음씨가 몹시 매섭고 독하다. 기세가 몹시 매섭고 사납다. 활용에 주의. [활용] 모질고, 모지며(모질으며×), 모진(모질은×), 모지니(모질으니×), 모짐(모짐×, 모질음×). [참조] 모지다.

목로집(木壚-) → 목룻집.

목아지 → 모가지.

몰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몰고, 몰며(몰으며×), 몬(몰은×), 모니(몰으니×), 뭍(몰음×).

몰아부치다 → 몰아붙이다.

몰잇꾼 → 몰이꾼.

몸둥이 → 몸통이.

몹쓸 : 몹시 못되고 고약한. ㉠ 몹쓸 병. 몹쓸 녀석. [참조] 못 쓸.

못 쓸 : ‘못 쓰다’의 관형사형. 띄어 쓴다. ㉠ 그 물건은 어디에도 못 쓸 정도로 낡았다. [참조] 몹쓸

못이 박히다 → 못이 박이다.

못지않는 → 못지않은. ‘못지않다’는 형용사이므로 관형사형 어미는 ‘-은’이다.

묘령(妙齡) : 스무 살 안팎의 여자 나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써서는 안 된다. ㉠ 묘령의 여인.

무뎃뽕(←無鐵砲·むてっぽう) → 무모(無謀). 막무가내. 무턱대고.

무색하다(無色-)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무색게(무색케×), 무색지(무색치×), 무색다(무색타×).

무식장이(無識-) → 무식쟁이.

무지개빛 → 무지갯빛.

무지랭이 → 무지렁이.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루다 → 문전성시이다.

문제거리(問題-) → 문젯거리.

물렀거라 → 물렸거라. ‘물러 있거라’를 줄인 말.

물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물고, 물며(물으며×), 문(물은×), 무니(물으니×), 뭍(물음×, 물음×). 다만, ‘문다’의 명사형 및 파생 명사는 ‘물음’이다.

몽기적거리다 → 몽그적거리다.

미끌거리다 → 미끈거리다.

미끌어지다 → 미끄러지다.

미니어춰(miniature) → 미니어처.

미수가루 → 미숫가루

미스테리(mystery) → 미스터리.

밀어부치다 → 밀어붙이다.

밀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밀고, 밀며(밀으며×), 민(밀은×), 미니(밀으니×), 뭍(밀음×, 물음×).

밀크셰이크(milkshake) → 밀크세이크.

바

바뀌어지다 → 바뀌다. 바꾸어지다.

바다가재 → 바닷가재.

바다모래 → 바닷모래.

바다물고기 → 바닷물고기.

바다바람 → 바닷바람.

바다새 → 바닷새.

바람피다 → 바람피우다.

바로 잡다 → 바로잡다. 한 낱말이므로 붙여 쓴다.

바리케이트(barricade) → 바리케이드.

바베큐(barbecue) → 바비큐.

바빠 → 바빠.

바위길 → 바윗길.

바위덩어리(바위덩이) → 바윗덩어리(바윗덩이).

바지가랑이 → 바짓가랑이.

바퀴자국 → 바퀴자국.

바하(Bach) → 바흐.
 박어 → 박아.
 박카스(Bacchus) → 바쿠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
 밖에 :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으로 쓰이면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날 도울 사람은 너밖에 없다. 주머니에 동전 몇 닢밖에 없다.
 반가히 → 반가이.
 반나(半裸) → 반라.
 반드시 : 꼭. 틀림없이. ♯ 약속은 반드시 지켜라. [참조] 반듯이.
 반듯이 : 반듯하게. 굽지 않고 바르게. ♯ 금을 반듯이 그어라. 책을 반듯이 놓아라. [참조] 반드시.
 반디불 → 반딧불.
 반말짓거리 → 반말지거리.
 반신불구(半身不具) → 반신불수(半身不隨).
 반에반(半-半) → 반의반.
 반주검(半-) → 반죽음.
 발을 굴리다(굴렀다) → 발을 구르다(굴렀다).
 발칸포(Vulcan砲) → 벌컨포.
 밥을 얹히다 → 밥을 안치다.
 밥힘 → 밥심.
 밧데리(battery) → 배터리.
 방아간(-間) → 방앗간.
 배멀미 → 뱃멀미.
 배이다 → 배다. [활용] 배고(배이고×). 배면(배이면×). 배어(배여×).
 배전판(配電板) → 배전반(配電盤).
 배추국 → 배춧국.
 백짓장(白紙張) → 백지장.
 벨아 → 벨어.
 버물리다 → 버무리다. [활용] 버무리고(버물리고×). 버무리려(버물려×). 버무리면(버물리면×).

번개불 → 번갯불.
 번짓수(番地數) → 번지수.
 벌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벌고. 벌며(벌으며×). 번(벌은×). 버니(벌으니×). 벌(벌×, 벌음×).
 벌칙금 → 범칙금(犯則金).
 벗어붙이다 → 벗어부치다.
 벗어제끼다 → 벗어젓하다.
 벗어제치다 → 벗어젓하다.
 베개머리 → 베갯머리.
 베개잇 → 베갯잇.
 베풀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베풀고. 베풀며(베풀으며×). 베푼(베푼은×). 베푼니(베푼으니×). 베푼(베푼×, 베푼음×).
 벼슬 → 벼. 닭이나 새 따위의 이마에 세로로 붙은 살 조각.
 병들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병들고. 병들며(병들으며×). 병든(병들은×). 병드니(병들으니×). 병듸(병듬×, 병듬음×).
 보답하다(報答-)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보답게(보답게×). 보답지(보답치×).
 보리가루 → 보릿가루.
 보리고개 → 보릿고개.
 보리자루 → 보릿자루.
 보울(bowl) → 볼.
 보이스카웃(Boy Scout) → 보이스카우트.
 보이코트(boycott) → 보이콧.
 보잘 것 없다 → 보잘것없다. 한 낱말이므로 붙여 쓴다.
 보전(保全) : 온전하게 보호하여 유지함. ♯ 환경 보전. [참조] 보존.
 보존(保存) :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 ♯ 유적지 보존. [참조] 보전.
 복다림(伏-) → 복달임.

본따다(本-) → 본뜨다. [활용] 본뜨고, 본뜨니, 본떠
(본따×)

불성 사납다 → 불쌍사납다.

부비다 → 비비다.

부썩지다 → 부서지다.

부자집(富者-) → 부잣집.

부지(敷地) → 대지(垞地). 땅. 용지(用地). 터. 토지.
일본어 투.

부풀다 : 활용에 주의. [활용] 부풀고, 부풀며(부풀
으며×). 부푼(부풀은×). 부푸니(부풀으니
×). 부푼(부푼×, 부푼음×).

복실복실 → 복슬복슬.

북어국(北魚-) → 북엇국.

불가사이 → 불가사의(不可思議).

불공들이다(佛供-) → 불공드리다.

불독(bulldog) → 불도그.

불리우다 → 불리다. [활용] 불리고(불리우고×). 불
리는(불리우는×). 불리면(불리우면×). 불려(불리워
×).

불연듯 → 불현듯.

불입(拂入) → 납부(納付). 냄. 치름. 일본어 투.

불하(拂下) → 매각(賣却). 팔아 버림. 일본어 투.

브라우스(blouse) → 블라우스.

브라자(brassiere) → 브래지어.

브러쉬(brush) → 브러시.

브릿지(bridge) → 브리지.

블럭(block) → 블록.

비누방울 → 비눗방울.

비듬나물 → 비름나물.

비밀(秘密)에 붙이다 → 비밀에 부치다.

비박(Biwak) → 비바크.

비석치기(碑石-) → 비사치기.

비소리 → 빗소리.

비스킷(biscuit) → 비스킷.

빛장이 → 빗쟁이.

빠루(←bar) → 배척. 노루발뭇뻘이. 일본어 투.

빠리(Paris) → 파리.

빨래감 → 빨랫감.

빨래비누 → 빨랫비누.

빨래줄 → 빨랫줄.

빠곡이 → 빼곡히.

빠앗어 → 빼앗아.

뺏아 → 뺏어.

빠속 → 뺏속.

빠조각 → 뺏조각.

뿌리채 → 뿌리째.

뽄뽄히 → 뽄뽄이.

쁘띠(petit) → 프티.

삐에로(pierrot) → 피에로.

ㅅ

사글세방(-貰房) → 사글셋방.

사단(事端)이 나다 → 사달이 나다.

사루비아(salvia) → 샬비어.

사십구제(四十九祭) → 사십구재(四十九齋).

사업년도(事業年度) → 사업연도.

사위감 → 사윗감.

사잇길 → 셋길.

사족을 못 쓰다 → 사족(四足)을 못 쓰다.

사진뺄(寫眞-) → 사진발.

삭월세(朔月貰) → 사글세.

삭월세방(朔月貰房) → 사글셋방.

산수갑산 → 삼수갑산(三水甲山).

산타크로스(Santa Claus) → 산타클로스.

삼가하다 → 삼가다.

삼오제 → 삼우제(三虞祭).

삿뽀로(札幌) → 삿포로.

상가집(喪家-) → 상갓집. 상가.
 상종가(上終價) → 상한가.
 새디즘(Sadism) → 사디즘.
 새침떼기 → 새침데기.
 색스폰(saxophone) → 색소폰.
 색시감 → 색식감.
 샌달(Sandal) → 샌들.
 샘통 → 뺨통.
 생각하다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생각
 기(생각키×). 생각지(생각치×). 생각다
 (생각타×).
 생노병사(生老病死) → 생로병사.
 생맥주집(生麥酒-) → 생맥줏집.
 생산고(生産高) → 생산액(生産額). 생산량(生産量).
 샤베트(sherbet) → 셔벗.
 샤브샤브(しゃぶしゃぶ) → 샤부샤부.
 샤시(chassis) → 새시.
 샤시(sash) → 새시.
 샵(shop) → 숍.
 섀도우(shadow) → 섀도.
 서더리탕 → 서덜탕.
 서둘다 :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수 없으며
 이때는 본말(‘서두르다’)의 활용형을 쓴다.
 [활용] 서둘고. 서두르면(서둘으면×). 서두
 를(서둘을×). 서두른(서둘은×). 서둘러(서
 둘어×). 서뒸(서뒸×, 서뒸음×).
 서슴치 않다 → 서슴지 않다.
 서울나기 → 서울내기.
 서툴다 :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수 없으며
 이때는 본말(‘서투르다’)의 활용형을 쓴다.
 [활용] 서툴고. 서투르면(서툴으면×). 서투
 를(서툴을×). 서투른(서툴은×). 서툴러(서
 툴어×). 서뒸(서뒸×, 서뒸음×).
 서포터즈(supporters) → 서포터스.

선행다 → 선행다. [활용] 선행고. 선행면. 선행니.
 선행어/선행.
 선지국 → 선짓국.
 설다 : 활용에 주의. [활용] 설고. 설며(설으며×). 선
 (설은×). 서니(설으니×). 센(센×, 센음×).
 설레이다 → 설레다. [활용] 설레고(설레이고×). 설
 레니(설레이니×). 설레어(설레여×). 설렌(설레인
 ×). 설렘(설레임×).
 설은 밥 → 선밥.
 섬머(summer) → 서머.
 섬씽(something) → 섬싱.
 섭섭하다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섭섭
 고(섭섭코×). 섭섭지(섭섭치×). 섭섭다
 (섭섭타×).
 섭하다 → 섭섭하다.
 섯거라 → 섯거라. ‘서 있거라’가 줄어든 말.
 섯다 → 섯다. 화투 노름의 하나.
 성대묘사(聲帶描寫) → 성대모사(聲帶模寫).
 세느강(seine江) → 센강.
 세라복(sailor服) → 세일러복.
 세레모니(ceremony) → 세리머니.
 세방(貰房) → 셋방.
 세배돈(歲拜-) → 세뱃돈.
 세빌라(Sevilla) → 세비아.
 세세년년(歲歲年年) → 세세연년.
 세세이(細細-) → 세세히.
 세수대야(洗手-) → 세숫대야.
 세수물(洗手-) → 세숫물.
 세수비누(洗手-) → 세숫비누.
 세숫수건(洗手手巾) → 세수수건.
 셰익스피어(Shakespeare) → 셰익스피어.
 세잔느(Sézanne) → 세잔.
 세컨 샷(second shot) → 세컨드 샷.
 세콰이어(sequoia) → 세쿼이아.

센티멘탈(sentimental) → 센티멘털.
 셀룰로스(cellulose) → 셀룰로오스.
 셸파(Sherpa) → 셰르파.
 셋트(set) → 세트.
 소개말(紹介-) → 소개말.
 소근소근 → 소곤소곤.
 소꿈 → 소꿌. ㄹ 소꿌놀이. 소꿌동무. 소꿌장난.
 소라색(空色・そら色) → 하늘색.
 소매값(小賣-) → 소매값.
 소매자락 → 소매자락.
 소방소 → 소방서(消防署).
 소세지(sausage) → 소시지.
 소숫점(小數點) → 소수점.
 소시적(少時-) → 소식적.
 소심줄 → 쇠심줄.
 소주집(燒酒-) → 소줏집.
 소줏잔(燒酒盞) → 소줏잔.
 손사레 → 손사래.
 손아래사람 → 손아랫사람.
 손아랫동서(-同壻) → 손아래 동서.
 손아랫처남(-妻男) → 손아래 처남.
 손위사람 → 손윗사람.
 손윗동서(-同壻) → 손위 동서.
 손윗처남(-妻男) → 손위 처남.
 손톱깎기 → 손톱깎이. 다만, 손톱을 깎는 일이나
 동작을 뜻하는 말은 '손톱 깎기'이다.
 솔직이(率直-) → 솔직히.
 송두리채 → 송두리째.
 송이국(松茸-) → 송이국.
 송화가루(松花-) → 송화가루.
 쇠고기국 → 쇠고기국.
 쇠소리 → 쇠소리.
 쇠조각 → 쇠조각.
 쇼윈도우(show window) → 쇼윈도.

수근수근 → 수군수군.
 수냉식(水冷式) → 수랭식.
 수도물(水道-) → 수돗물.
 수랏상(←水刺床) → 수라상.
 수출고(輸出高) → 수출량(輸出量). 수출액(輸出額).
 일본어 투.
 순대국 → 순댓국.
 웨이크(shake) → 셰이크.
 셰프(chef) → 셰프.
 십상 → 십상(十相). ㄹ 자기 좋은 대로만 행동하다
 간 따돌림 당하기 십상이다.
 슈가(sugar) → 슈거.
 슈퍼보울(super bowl) → 슈퍼볼.
 스낵(snack) → 스낵.
 스노우(snow) → 스노.
 스왑(swap) → 스와프. 맞교환.
 스카우터 → 스카우트(scout). 인재를 물색하고 발
 탁하는 일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스카우
 트'라고 한다.
 스카웃(scout) → 스카우트.
 스케줄(schedule) → 스케줄.
 스크류(screw) → 스크루.
 스킨십(skinship) → 스킨십.
 스탱(stop) → 스톱.
 스태미너(stamina) → 스태미나.
 스탠다드(standard) → 스탠더드.
 스탱(staff) → 스태프.
 스텐레스(stainless) → 스테인리스.
 스튜디어스 → 스튜어디스(stewardess)
 스트라우스(Strauss) → 슈트라우스.
 스트로우(straw) → 스트로. 빨대.
 스팟(spot) → 스폿.
 스프(soup) → 수프.
 스프링클러(sprinkler) → 스프링클러.

슬라브(slab) → 슬래브.
 슬로우(slow) → 슬로.
 승락(承諾) → 승낙.
 승전보(勝戰譜)를 올리다 → 승전고(勝戰鼓)를 울리다.
 시계바늘(時計-) → 시곗바늘.
 시계줄(時計-) → 시곗줄.
 시골나기 → 시골내기.
 시금치국 → 시금치국.
 시답잡다 → 시답잡다.
 시들다 : 활용에 주의. [활용] 시들고, 시들며(시들으며×), 시든(시들은×), 시드니(시들으니×), 시툼(시툼×, 시들음×).
 시들음병(-病) → 시들병.
 시라소니 → 스라소니.
 시래기국 → 시래깃국.
 시세조정(時勢調整) → 시세조종(時勢操縱)
 시엠립(Siem Reap) → 시엠레아프.
 시츄에이션(situation) → 시추에이션.
 시험(試合) → 경기. 겨루기. 일본어 투.
 신나(thinner) → 시너.
 신부감(新婦-) → 신붓감.
 신주단지(神主-) → 신줏단지.
 실내체육관(室內體育館) → 체육관.
 심난하다(心亂-) → 심란하다.
 심뽕(心-) → 심보.
 심포지움(symposium) → 심포지엄.
 싯가(時價) → 시가.
 싯귀(詩句) → 시구.
 싯점(時點) → 시점.
 싸가지 → 싸수.
 싸그리 → 깡그리.
 사이렌(siren) → 사이렌.
 사이코(psycho) → 사이코.

사이클(cycle) → 사이클.
 싸인(sign) → 사인.
 삼지돈 → 셋짓돈.
 쌍둥이(雙-) → 쌍둥이.
 쌍용(雙龍) → 쌍룡.
 썰다 : 활용에 주의. [활용] 썰고, 썰며(썰으며×), 썬(썰은×), 써니(썰으니×), 썰(썸×, 썰음×).
 쏘아부치다 → 쏘아붙이다.
 썰다 → 씹다. [활용] 씹고, 씹면, 씹어/썰. 씹니.
 쑥맥 → 숙맥(菰麥).
 쑥스럽다 → 쑥스럽다.
 쓸다 : 활용에 주의. [활용] 쓸고, 쓸며(쓸으며×), 쓴(쓸은×), 쓰니(쓸으니×), 씹(쓰×, 쓸음×).
 씹여지다 → 씹다. 쓰이다. 써지다.
 씨나락 → 썬나락.
 씨네마(cinema) → 시네마.
 싱크대(sink臺) → 싱크대.
 싱크탱크(think tank) → 싱크탱크.



아구 → 아귀. ㄱ아귀찜. 아귀탕.
 아니예요 → 아니예요.
 아다시피 → 알다시피.
 아더(Arthur) → 아서.
 아등바등 → 아등바등.
 아들래미 → 아들내미.
 아틀리에(atelier) → 아틀리에.
 아래마을 → 아랫마을.
 아래부분(-部分) → 아랫부분.
 아래입술 → 아랫입술.
 아래집 → 아랫집.
 아랫쪽 → 아래쪽.
 아랫층 → 아래층.

아물다 : 활용에 주의. [활용] 아물고. 아물며(아물
으며×). 아문(아물은×). 아무니(아물으니
×). 아뭇(아뭇×, 아물음×).

아물든 → 아무튼.

아밀라제(Amylase) → 아밀라아제.

아뿔사 → 아뿔싸.

아연질색 → 아연실색(啞然失色).

아우구스부르크(Augsburg) → 아우크스부르크.

아울렛(outlet) → 아웃렛.

아이새도우(eye shadow) → 아이섀도.

아이슬랜드(Iceland) → 아이슬란드.

아인트호벤(Eindhoven) → 에인트호번.

아젠다(agenda) → 어젠다.

아지랭이 → 아지랑이.

아취(arch) → 아치. 홍예.

아케이트(arcade) → 아케이드.

악세서리(accessory) → 액세서리.

악수(握手)를 나누다 → 악수하다.

안개속 → 안갯속.

안박 → 안팎.

안절부절하다 → 안절부절못하다.

안주감(按酒-) → 안줏감.

안주거리(按酒-) → 안줏거리.

안 하나만 못하다 → 안 하느니만 못하다.

알리미 → 알림이.

알맞는 → 알맞은.

알루미늄(aluminium) → 알루미늄.

알바트로스(albatross) → 엘버트로스.

알송달송 → 알쌍달쌍.

알아맞추다 → 알아맞히다.

알아채리다 → 알아차리다.

알카리(alkali) → 알칼리.

알콜(alcohol) → 알코올.

알타리김치 → 총각김치(總角-).

알타리무 → 총각무(總角-).

알함브라(Alhambra) → 알람브라.

암돼지 → 암태지.

앙케이트(enquête) → 앙케트.

앙코르왓(Angkor Wat) → 앙코르와트.

앙콜(encore) → 앙코르.

앞뒤집 → 앞뒤틀.

앞서거니 뒤서거니 → 앞서거니 뒤서거니.

애틀다 → 앳되다.

애처럽다 → 애처롭다.

액센트(accent) → 악센트.

앤드류(Andrew) → 앤드루.

앨링턴(Arlington) → 알링턴.

앰블런스(ambulance) → 앰블런스.

앰플(ampoule) → 앰플.

앵글부츠(ankle boots) → 앵글부츠.

야반도주 → 야반도주(夜半逃走).

야채사리(野菜-) → 야채 추가분. '사리'는 '국수, 새
끼, 실 따위를 동그랗게 포개어 감은 뭉치'임.

양노원(養老院) → 양로원.

양반다리(兩班-) → 책상다리(冊床-).

양견(兩-) → 양편(兩便). 양쪽(兩-).

양해(諒解) 말씀 → 사과(謝過) 말씀.

얘기거리 → 얘깃거리.

어드벤처(adventure) → 어드벤처.

어떻냐 → 어떠냐.

어떻느냐 → 어떠냐.

어떻니 → 어떠니.

어떻하다 → 어떡하다. 어떠하다. 어떻다.

어떻해 → 어떡해.

어리버리 → 어리바리. 어리어리.

어물쩍 → 어물쩍.

어제밤 → 어젯밤.

어좁잖다 → 어쭙잖다.

어쩔려고 → 어찌려고.
 언덕빼기 → 언덕배기. 언덕바지.
 언밸런스(unbalance) → 언밸런스.
 언젯적 → 언제 적.
 얼레리꼴레리 → 알나리깎나리.
 얼다 : 활용에 주의. [활용] 얼고, 얼며(얼으며×). 언
 (얼은×). 어니(얼으니×). 얹(얹×, 얹음×).
 다만, 물이 얼어서 된 고체를 나타내는 명사
 는 ‘얼음’이다.
 얼키고 설키다 → 얹히고설키다. 한 낱말이므로 붙
 여 쓴다.
 얼토당토하다 → 얼토당토않다.
 엇치락뒤치락 → 옆치락뒤치락.
 엇그제 → 엇그제.
 엇치락뒤치락 → 옆치락뒤치락.
 에니메이션(animation) → 애니메이션.
 에디오피아(Ethiopia) → 에티오피아.
 에딘버러(Edinburgh) → 에든버러.
 에로티즘(eroticism) → 에로티시즘.
 에리어(area) → 에어리어.
 에머랄드(emerald) → 에메랄드.
 에스트로젠(estrogen) → 에스트로겐.
 에어콘(←air conditioner) → 에어컨.
 엔돌핀(endorphin) → 엔도르핀.
 엔젤(angel) → 에인절. ♯ 에인절 투자.
 엘리노(el Niño) → 엘니뇨.
 엘보우(elbow) → 엘보.
 엠블렘(emblem) → 엠블럼. 상징(象徵).
 엷센스(essence) → 에센스.
 엷지(edge) → 에지.
 여나문 → 여남은.
 여물다 : 활용에 주의. [활용] 여물고, 여물며(여물
 으며×). 여문(여물은×). 여무니(여물으니
 ×). 여물(여물×, 여물음×).

여유돈(餘裕-) → 여윳돈.
 여지껏 → 여태껏.
 연거퍼 → 연거푸.
 연두빛(軟豆-) → 연둣빛.
 연산홍 → 영산홍(映山紅).
 연육교(連陸橋) → 연륙교.
 열변하다(熱辯-) → 열변을 토하다. 열변을 늘어놓
 다. 열변을 쏟다.
 열심으로(熱心-) → 열심히.
 열다 : 활용에 주의. [활용] 열고, 열며(열으며×). 연
 (열은×). 여니(열으니×). 얹(얹×, 얹음×).
 염두하다(念頭-) → 염두에 두다.
 염치불구(廉恥不拘) → 염치불고(廉恥不顧).
 엷장사 → 엷장수. 다만, 엷을 파는 상행위는 ‘엷 장
 사’이다.
 영낙없다(零落-) → 영락없다.
 예컨데(例-) → 예컨대.
 옐로우(yellow) → 옐로.
 염병할 → 염병할(染病-).
 옷다 → 옷다. ‘여기 있다’가 줄어든 말.
 옷부터 → 예부터.
 옷소 → 옷소. ‘여기 이소’가 줄어든 말.
 옷스럽다 → 예스럽다.
 오곡백화 → 오곡백과(五穀百果).
 오끼나와(沖繩) → 오키나와.
 오델로(Othello) → 오셀로.
 오도방정 → 오두방정.
 오돌뼈 → 오도독뼈.
 오딧세이(Odyssey) → 오디세이.
 오뚝이 → 오뚝이.
 오뚝하다 → 오뚝하다.
 오래 동안 → 오랫동안.
 오랜 동안 → 오랫동안.
 오랫동안 → 오랜만.

오르가즘(orgasm) → 오르가슴.
 오리지날(original) → 오리지널.
 오사까(大阪) → 오사카.
 오이따(大分) → 오이타.
 옥스포드(Oxford) → 옥스퍼드.
 올려부치다 → 올려붙이다.
 올바르다 → 올바르다.
 옴부즈만(ombudsman) → 옴부즈맨.
 옹기쟁이(甕器-) → 옹기장이.
 왁 더 독(wag the dog) → 왜그 더 도그.
 외가집(外家-) → 외가집.
 외환보유고(外換保有高) → 외환보유액(外換保有額).
 원종일(終日) → 온종일.
 요기거리(療飢-) → 요깃거리.
 요드(Jod) → 요오드.
 요리집(料理-) → 요릿집.
 용납하다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용납
 기(용납키×). 용납지(용납치×).
 우거지국 → 우거짓국.
 우겨넣다 → 옥여넣다.
 우레소리 → 우렛소리.
 우뢰 → 우레.
 우스개소리 → 우스갯소리.
 우유값(牛乳-) → 우윳값.
 우유빛(牛乳-) → 우윳빛.
 우윳값(牛乳匣) → 우윳값.
 우지 마라 → 울지 마라.
 울귀먹다 → 우러먹다.
 울다 : 활용에 주의. [활용] 울고, 울며(울으며×), 운
 (울은×), 우니(울으니×), 읊(읊×, 읊음×).
 다만, 우는 일, 또는 그런 소리를 나타내는
 명사는 '울음'이다.
 움추리다 → 움츠리다.
 웃긴 얘기 → 웃기는 얘기. 다만, 과거 사실을 표현

할 때는 '그때 우리를 웃긴 얘기가 있지'처럼 쓸 수
 있다.
 웃도리 → 윷도리.
 웃웃 : 맨 곁에 입는 웃. ♯ 날이 쌀쌀하니 웃웃을 입
 어라. [참조] 윷웃.
 원격조정 → 원격조종(遠隔操縱).
 원상복귀(原狀復歸) → 원상복구(原狀復舊).
 월등(越等)히 나쁘다 → 매우 나쁘다. 훨씬 나쁘다.
 '월등'은 '수준이 정도 이상으로 뛰어남'을 뜻하는 말.
 월등(越等)히 좋다 → 월등하다. 훨씬 좋다. '월등'은
 '수준이 정도 이상으로 뛰어남'을 뜻하는 말.
 월셋방(月貰房) → 월세방.
 윈도우(window) → 윈도우.
 윷웃 : 몸의 위쪽에 입는 웃. ♯ 바지는 많은데 윷웃
 은 별로 없다. [참조] 웃웃.
 윷쪽 → 위쪽.
 윷층(-層) → 위층.
 유니버설(universal) → 유니버설.
 유래없다(由來-) → 유례없다(類例-).
 윤활류 → 윤활유(潤滑油).
 으시시 → 으스스.
 이견(異見)을 좁히다 → 이견을 없애다. 의견 차를
 좁히다. 견해차를 좁히다.
 이래 봐도 → 이래 봐도.
 이럴려고 → 이러려고.
 이사짐(移徙-) → 이삿짐.
 이야기거리 → 이야깃거리.
 익숙하다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익숙
 지(익숙치×). 익숙게(익숙케×).
 인디안(Indian) → 인디언.
 인삿말(人事-) → 인사말.
 인스부르크(Innsbruck) → 인스브루크.
 인텔리젠트(intelligent) → 인텔리전트.
 임마 → 인마. '아놈아'의 준말.

입장(立場) 난처(難處)하다 → 난처하다.
 잇딴 → 잇단. 잇따른.
 잇점(利點) → 이점.
 잉꼬(鸚哥 · いんこ) → 앵무새.
 잉꼬부부(鸚哥夫婦 · いんこ-) → 원앙(鴛鴦) 부부.

ㅈ

자갈을 물리다 → 재갈을 물리다.
 자그만치 → 자그마치.
 자리세(-貰) → 자릿세.
 자리수(-數) → 자릿수. ㉑ 한 자릿수.
 자선남비(慈善-) → 자선냄비.
 자유(自由)케 하다 → 자유롭게 하다.
 자주빛(紫朱-) → 자줏빛.
 자켓(jacket) → 재킷.
 잔고(殘高) → 잔량(殘量). 잔액(殘額). 일본어 투.
 잔치날 → 잔칫날.
 잔치상(-床) → 잔칫상.
 잔치집 → 잔칫집.
 잠구다 → 잠그다. [활용] 잠그고. 잠그면. 잠가. 잠
 그니.
 잠들다 : 활용에 주의. [활용] 잠들고. 잠들며(잠들
 으며×). 잠든(잠들은×). 잠드니(잠들으니
 ×). 잠들(잠듬×, 잠들음×).
 장난끼 → 장난기(-氣).
 장농(橫籠) → 장롱.
 장돌뱅이(場-) → 장돌뱅이.
 장마날 → 장맛날.
 장마비 → 장맛비.
 장사속 → 장삿속.
 재롱을 피다 → 재롱을 피우다.
 재미거리 → 재밋거리.
 재미 들리다 → 재미 들이다.

재주를 피다 → 재주를 피우다.
 재털이 → 재떨이.
 장르(genre) → 장르.
 저럴려고 → 저러려고.
 저물다 : 활용에 주의. [활용] 저물고. 저물며(저물
 으며×). 저문(저물은×). 저무니(저물으니
 ×). 저물(저뭍×, 저물음×).
 저으기 → 적이.
 저자거리 → 저잣거리.
 저질르다 → 저지르다. [활용] 저지르고. 저지르니.
 저지르면. 저지르는. 저지르지. 저질러.
 저희 나라 → 우리나라.
 적합하다(適合-)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
 용] 적합지(적합치×). 적합게(적
 합케×).
 전기불(電氣-) → 전깃불.
 전기줄(電氣-) → 전깃줄.
 전세집(專貰-) → 전셋집.
 전셋방(傳貰房) → 전세방.
 절대값(絶對-) → 절댓값.
 절더러 → 저더러.
 절둑거리다 → 절뚝거리다.
 절다 : 활용에 주의. [활용] 절고. 절며(절으며×). 전
 (절은×). 저니(절으니×). 절(점×, 절음×).
 절잡다 → 점잡다.
 점잔을 피다 → 점잔을 피우다.
 접지르다 → 접질리다.
 정들다 : 활용에 주의. [활용] 정들고. 정들며(정들
 으며×). 정든(정들은×). 정드니(정들으니
 ×). 정들(정듬×, 정들음×).
 정성껏(精誠-) → 정성껏.
 정성드리다(精誠-) → 정성 들이다.
 정안수 → 정화수(井華水).
 정한수 → 정화수(井華水).

정확하다(正確-)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정확지(정확치×), 정확계(정확계×).

제-(第-) : 한자어 수사(數詞) 앞에서 그 숫자에 해당하는 차례를 뜻하는 접두사이다. 접두사이므로 항상 뒷말과 붙여 쓴다. 수사나 숫자 뒤의 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다. ㉠ 제51사단. 제51사단. 제3학년. 제3학년.

제사날(祭祀-) → 제삿날.

제사밥(祭祀-) → 제삿밥.

제삿상(祭祀床) → 제사상.

제스처(gesture) → 제스처.

저버리다 → 저버리다.

조개국 → 조갯국.

조개살 → 조갯살.

조기국 → 조갯국.

조용하세요/조용해라/조용하자 → 조용히 있으세요. 조용히 있기 바란다. 조용히 있자. 형용사는 명령형, 청유형으로 쓸 수 없다.

존대말(尊待-) → 존댓말.

존망(存亡)을 위협(威脅)하다 → 생존을 위협하다.

존망(存亡)이 위태(危殆)롭다 → 생존이 위태롭다.

졸다 : 활용에 주의. [활용] 졸고, 졸며(졸으며×), 졸느(졸으는×), 졸니(졸으니×), 졸(졸×, 졸음×). 다만, 잠이 오는 느낌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는 '졸음'이다.

좀이 쏜다 → 좀이 쏜다. '쥐나 좀 따위가 옷가지나 종이를 잘게 물어뜯다'를 뜻하는 낱말은 '쏜다'이다.

좀체로 → 좀체. 좀처럼.

종가집(宗家-) → 종갓집.

종이장(-張) → 종잇장.

종이조각 → 종잇조각.

죄값(罪-) → 죄값.

죄반다(罪-) → 벌반다(罰-).

주구장창 → 주야장천(晝夜長川).

주루룩 → 주르르.

주머니돈 → 주머닛돈.

주사바늘(注射-) → 주삿바늘.

주야장창 → 주야장천(晝夜長川).

주위(周圍)가 산만(散漫)하다 → 주의(注意)가 산만하다.

죽으라 하고 → 죽어라 하고. 죽어라고.

줄다 : 활용에 주의. [활용] 줄고, 줄며(줄으며×), 준(줄은×), 주니(줄으니×), 줄(줄×, 줄음×).

줄어들다 : 활용에 주의. [활용] 줄어들고, 줄어들며(줄어들으며×), 줄어든(줄어들은×), 줄어드니(줄어들으니×), 줄어듸(줄어듬×, 줄어들음×).

줍다 → 줍다. [활용] 줍고, 주워, 주우면, 주우니, 주운.

줘어주다 → 줘여 주다.

줘어지내다 → 줘여지내다.

쥬니어(junior) → 주니어.

쥬라기(jura紀) → 쥐라기.

쥬스(juice) → 주스.

쥬얼리(jewelry) → 주얼리.

즈러밟다 → 지르밟다.

지게작대기 → 지겟작대기.

지그시 : 슬며시 힘을 주는 모양. 조용히 참고 견디는 모양. ㉠ 눈을 지그시 감다. 지그시 밟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다. 아픔을 지그시 참다. [참조] 지긋이.

지긋이 : 나이가 비교적 많아 듬직한 모양. 참을성이 많아 끈진 모양. ㉠ 그 신사는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였다. 지긋이 앉아 있어라. [참조] 지그시.

지붕을 잇다 → 지붕을 이다. '기와나 볏짚, 이엉 따위로 지붕 위를 덮다'를 뜻하는 말은 '이다'이다.

지키미 → 지킴이.
 진도개(珍島-) → 진돗개.
 진력(盡力)을 다하다 → 진력하다. 전력(全力)을 다하다.
 질다 : 활용에 주의. [활용] 질고, 질며(질으며×). 진(질은×). 지니(질으니×). 짚(짐×, 질음×).
 짐작하다(斟酌-)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짐작건대(짐작컨대×). 짐작기(짐작키×). 짐작지(짐작치×).
 집채 만한 파도(波濤) → 집채만 한 파도.
 칭기스칸(Chingiz Khan) → 칭기즈칸.
 짚시(Gypsy) → 집시.
 짜집기 → 찌집기.
 짜투리 → 자투리.
 짝궁 → 짝궁.
 짝수날(-數-) → 짝숫날.
 짹짹 → 짹짹.
 짱아찌 → 장아찌.
 재즈(jazz) → 재즈.
 찢다 → 절다.
 찢은 → 전. [참조] 절다.
 찢달리다 → 찢들리다.
 쪽진 머리 → 쪽 찢 머리.
 찢들다 : 활용에 주의. [활용] 찢들고, 찢들며(찢들으며×). 찢든(찢들은×). 찢드니(찢들으니×). 찢듸(찢듬×, 찢들음×).
 찢뿌등하다 → 찢뿌드드하다.

차

차간(車間) → 차간.
 차갑다 → 차갑다.
 차비(差備) → 채비.
 차상(茶床) → 차상.

차이코프스키(Chaikovskii) → 차이콥스키.
 차잎(茶-) → 차잎.
 차주전자(茶酒煎子) → 차주전자.
 착잡하다 → 착잡하다(錯雜-).
 찰라 → 찰나(刹那).
 창란 → 창난.
 창란젓 → 창난젓.
 채이다 → 차이다. 채다. [활용] 차이고/채고. 차이면/채면. 차여/채여. 차인/채인.
 책걸이(冊-) → 책거리. 책씻이.
 챔버(chamber) → 체임버.
 챔피언(champion) → 챔피언.
 챗바퀴 → 챗바퀴.
 챔피언하다 → 챔피언하다.
 차밍(charming) → 차밍.
 차트(chart) → 차트.
 처가집(妻家-) → 처갓집.
 처들어가다 → 처들어가다.
 천도제(薦度祭) → 천도재(薦度齋).
 천릿길(千里-) → 천 리 길.
 천만(千萬)에 말씀 → 천만의 말씀. 다만, 남의 말을 부정하거나, 남의 말에 경양의 뜻을 나타내는 감탄사는 ‘천만에’이다.
 천상 → 천생(天生). 하늘로부터 타고남, 또는 그런 바탕. 타고난 것처럼 아주. 이미 정하여진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다만, ‘하늘 위’를 뜻하는 말은 ‘천상(天上)’이다. ♪ 그는 천생이 얌전하다. 천생 여자처럼 생겼다. 여기부터는 천생 걸어가야 한다.
 천인공로 → 천인공노(天人共怒).
 천정 → 천장(天障).
 철썩갈다 → 철썩갈다(鐵石-).
 청솔모 → 청설모(靑鼠毛).
 체면 불구(體面不拘) → 체면 불고(體面不顧).
 체신머리 → 채신머리.

체탈도첩 → 치탈도첩(褫奪度牒).
 쳐넣다 → 처넣다.
 쳐먹다 → 처먹다.
 쳐박다 → 처박다.
 쳐부시다 → 처부수다.
 초가삼간 → 초가삼간(草家三間).
 초기값(初期-) → 초깃값.
 초죽음(初-) → 초죽검.
 초코렛(chocolate) → 초콜릿.
 초콜렛(chocolate) → 초콜릿.
 축축히 → 축축이.
 초점(焦點) → 초점.
 총류탄(銃榴彈) → 총유탄.
 총뿌리(銃-) → 총부리.
 최고값(最高-) → 최곳값.
 최대값(最大-) → 최댓값.
 최류탄 → 최루탄(催淚彈).
 최소값(最小-) → 최소값.
 최저값(最低-) → 최저값.
 초이스(choice) → 초이스.
 추스리다 → 추스르다. [활용] 추스르고, 추스르니.
 추스르면, 추스르는, 추스르지, 추슬러.
 추어올리다 : 위로 끌어 올린다. 실제로보다 높여 칭찬하다. ㉠ 바지를 추어올려야겠다. 그 사람은 추어올려 주면 제가 최고인 줄 안다. [참조] 추켜올리다. 추켜세우다. 치켜세우다.
 추측하다(推測-)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추측건대(추측컨대×). 추측기(추측키×). 추측지(추측치×).

추켜세우다 : 위로 치올려 세우다. ㉠ 눈썹을 추켜세우다. 몸을 추켜세우다. [참조] 추어올리다. 추켜올리다. 치켜세우다.
 추켜올리다 : 위로 솟구어 올린다. ㉠ 치맛자락을 추켜올리다. [참조] 추어올리다. 추켜세우다. 치켜세우다.

축축히 → 축축이.
 출세길(出世-) → 출셋길.
 추리닝(training) → 트레이닝. 추리닝. 운동복. '훈련'을 뜻할 때는 '트레이닝'으로 쓰며, '운동복'의 뜻으로는 '추리닝'을 인정한다.
 치고 박다 → 치고받다.
 치루다 → 치르다. [활용] 치러(치뤄×). 치르니(치루니×). 치른(치룬×). 치렀다(치뤘다×). 치름(치룸×).
 치마바람 → 치맛바람.
 치마자락 → 치맛자락.
 치켜세우다 : 옷깃이나 눈썹 따위를 위쪽으로 올리다. 정도 이상으로 크게 칭찬하다. ㉠ 옷깃을 치켜세우다. 영웅으로 치켜세우다. [참조] 추어올리다. 추켜올리다. 추켜세우다.

치켜올리다 → 추어올리다. 추켜올리다. [참조] 추어올리다. 추켜올리다. 추켜세우다. 치켜세우다.
 칠흙 같다 → 칠흑(漆黑) 같다.
 칫수(-數) → 치수.
 칭기스칸(Chingiz Khan) → 칭기즈칸.

ㄱ

카라멜(caramel) → 캐러멜.
 카스테라(castella) → 카스텔라.
 카운셀러(counsellor) → 카운슬러.
 카운셀링(counselling) → 카운슬링.
 카운터파트너 → 카운터파트(counterpart).

카추사(KATUSA) → 카투사.
 카톨릭(Catholic) → 가톨릭.
 카펫(carpet) → 카펫.
 카프카스(Kavkaz) → 캅카스.
 칼라(color) → 컬러. 다만, 'collar'는 '칼라'이다.
 칼럼리스트 → 칼럼니스트(columnist).
 칼스루에(Karlsruhe) → 카를스루에.
 칼치 → 갈치.
 캐년(canyon) → 캐니언. ♣ 그랜드캐니언.
 캐롤(carol) → 캐럴.
 캐리커처(caricature) → 캐리커처.
 캐비닛(cabinet) → 캐비닛.
 캐비어(caviar) → 캐비아.
 캐쉬(cash) → 캐시.
 캐주얼(casual) → 캐주얼.
 캐피탈(capital) → 캐피탈.
 캠브리지(cambridge) → 케임브리지.
 캡처(capture) → 캡처.
 카바레(cabaret) → 카바레.
 커닝(cunning) → 커닝.
 콘서트(concert) → 콘서트.
 컨셉트(concept) → 콘셉트.
 콘택트(contact) → 콘택트.
 컨테스트(contest) → 콘테스트.
 콘텐츠(contents) → 콘텐츠.
 컨퍼런스(conference) → 콘퍼런스.
 컬처(culture) → 컬처.
 콤플렉스(complex) → 콤플렉스.
 케익(cake) → 케이크.
 케첩(ketchup) → 케첩.
 켄 → 편(便). 쪽. ♣ 오른쪽. 오른쪽. 한편. 한쪽.
 코리언(Korean) → 코리안.
 커뮤니케(communiqué) → 코뮈니케.
 코사지(corsage) → 코르사주.

코코넛(coconut) → 코코넛.
 콘소시엄(consortium) → 컨소시엄.
 컨테이너(container) → 컨테이너.
 콘트롤(control) → 컨트롤.
 콜럼비아(Columbia) → 콜롬비아(나라 이름). 컬럼비아(미국 도시 이름).
 컬렉션(collection) → 컬렉션.
 콧털 → 코털.
 콩깍지를 까다 → 콩꼬투리를 까다.
 콩코드광장(Concord廣場) → 콩코르드광장.
 콩쿨(concours) → 콩쿠르.
 칼라룸푸르(Kuala Lumpur) → 쿠알라룸푸르.
 쿠로시오(黒潮・くろしお) → 구로시오.
 쿠데타(coup d'état) → 쿠데타.
 퀴바디스(Quo Vadis) → 쿠오바디스.
 퀘퀘하다 → 퀴퀴하다.
 큐슈(九州) → 규슈.
 큐피트(Cupid) → 큐피드.
 크레딧(credit) → 크레딧.
 클리닉(clinic) → 클리닉.
 클리닝(cleaning) → 클리닝.
 크리스찬(Christian) → 크리스천.
 클래스(class) → 클래스.
 클라이막스(climax) → 클라이맥스.
 키트(kit) → 키트.

ㄷ

타겟(target) → 타깃.
 타올(towel) → 타월.
 타이페이(臺北) → 타이베이.
 탈렌트(talent) → 탤런트.
 탐탁하다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용] 탐탁지(탐탁치×).

태고적(太古-) → 태곳적.
 텍없다 → 텅없다. ㅍ 텅없는 소리. 텅도 없는 소리.
 터미널(terminal) → 터미널.
 터주대감(-主大監) → 터줏대감.
 털복숭이 → 털복숭이.
 털다 : 활용에 주의. [활용] 털고, 털며(털으며×), 튄
 (털은×), 터니(털으니×), 튼(툼×, 툼음×).
 테임즈강(Thames江) → 템스강.
 테이프(tape) → 테이프.
 테잎(tape) → 테이프.
 테크놀로지(technology) → 테크놀로지.
 텔레비전(television) → 텔레비전.
 토탈(total) → 토털.
 통채 → 통째.
 통털어 → 통틀어.
 튜울립(tulip) → 튕립.
 트레블(travel) → 트래블.
 트롯(trot) → 트로트.
 틀다 : 활용에 주의. [활용] 틀고, 틀며(틀으며×), 튄
 (틀은×), 트니(틀으니×), 튼(툼×, 툼음×).
 티벳(Tibet) → 티베트.
 팀웍(teamwork) → 팀워크.

ㅍ

파고라(tergola) → 퍼걸러. 그늘막.
 파라독스(paradox) → 패러독스. 역설(逆說).
 파래국 → 파랏국.
 파레트(palette) → 팔레트.
 파토 → 파투(破圖).
 파트너십(partnership) → 파트너십.
 판넬(panel) → 패널.
 판매고(販賣高) → 판매액(販賣額). 판매량(販賣量).
 일본어 투.

판매선(販賣先) → 판매처(販賣處).
 판이(判異)하게 다르다 → 판이하다. 매우 다르다.
 판자집(板子-) → 판잣집.
 판토마임(pantomime) → 팬터마임.
 팔다 : 활용에 주의. [활용] 팔고, 팔며(팔으며×), 판
 (팔은×), 파니(팔으니×), 팔(팜×, 팔음×).
 팔장 → 팔짱.
 팜파탈(femme fatale) → 팜파탈. 악녀(惡女). 요부
 (妖婦).
 팜플렛(pamphlet) → 팸플릿.
 팡파레(fanfare) → 팡파르.
 패감 → 팻감.
 파이다 → 파이다. 패다. [활용] 파이고/패고, 파이
 면/패면. 파여/패어. 파인/팬. 파임/팸.
 패취(patch) → 패치.
 팩키지(package) → 패키지.
 팬더(panda) → 판다.
 팬타지(fantasy) → 판타지.
 팡팡이 → 팡팡히.
 펜실베니아(Pennsylvania) → 펜실베이니아.
 펠로우(fellow) → 펠로.
 펠로우십(fellowship) → 펠로십.
 편들다 : 활용에 주의. [활용] 편들고, 편들며(편들
 으며×), 편든(편들은×), 편드니(편들으니
 ×), 편둠(편듬×, 편들음×).
 평양감사(平壤監司) → 평안감사(平安監司).
 포르쉐(Porsche) → 포르셰.
 포르투갈(Portugal) → 포르투갈.
 포물라(formula) → 포물러.
 포소리(砲-) → 포소리.
 포스타.poster) → 포스터.
 포탈(portal) → 포털.
 폭팔 → 폭발(爆發).
 푸마(puma) → 퓨마.

푸슈킨(Pushkin) → 푸시킨.
 푸켓(Phuket) → 푸켓.
 풀다 : 활용에 주의. [활용] 풀고, 풀며(풀으며×), 푼(풀은×), 푸니(풀으니×), 품(품×, 풀음×).
 퓨레(purée) → 퓨레.
 프라그(plaque) → 플라크. 치태(齒苔).
 플라스틱(plastic) → 플라스틱.
 프라자(plaza) → 플라자.
 프랑소와(François) → 프랑수아.
 프랑카드(placard) → 플래카드.
 프러듀서(producer) → 프로듀서.
 프로이드(Freud) → 프로이트.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 → 프레젠테이션.
 플라즈마(plasma) → 플라스마.
 플래티늄(platinum) → 플래티늄.
 플로트(plot) → 플롯.
 플루트(flute) → 플루트.
 피니쉬(finish) → 피니시.
 피어리어드(period) → 피리어드.
 피오르드(fjord) → 피오르.
 피쳐(pitcher) → 피쳐.
 필름(film) → 필름.
 필요(必要)로 하다 → 필요하다.

ㅎ

하관(下觀)이 빠르다 → 하관이 빨다. ㉠ 하관이 빠른 얼굴. 하관이 빨아 가름한 얼굴.
 하교길(下校-) → 하굣길.
 하구둑(河口-) → 하굿둑.
 하구언(河口堰) → 하굿둑. 일본어 투.
 하롱베이(Ha Long bay) → 할롱베이.

하릴없다 :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조금도 틀림이 없다. ㉠ 직장을 잃고 하릴없이 놀고 지낸다. 그 사람과 한 약속은 하릴없이 지켜야 한다. [참조] 할 일 없다.

하마트면 → 하마터면.
 하바나(Havana) → 아바나.
 하바드(Harvard) → 하버드.
 하바로프스크(Khabarovsk) → 하바롭스크.
 하사관(下士官) → 부사관(副士官).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 하이델베르크.
 하이티(Haiti) → 아이티.
 하일라이트(highlight) → 하이라이트.
 하종가(下終價) → 하한가(下限價).
 학부형(學父兄) → 학부모(學父母).
 학(瘡)을 띠다 → 학을 떼다. ㉠ 남자에게 얼마나 학을 떼는지 선조차 보려 하지 않는다.
 한가닥 하다 → 한가락 하다. ㉠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한가락 하는 사람이다.
 한냉(寒冷) → 한랭.
 한켠 → 한편(一便). 한쪽.
 한햇동안 → 한 해 동안.
 할려고 → 하려고.
 할 일 없다 : 해야 할 일이 없다. ㉠ 더 할 일 없으면 가서 쉬어라. [참조] 하릴없다.

해꼬지 → 해코지.
 해수(-數) → 햇수.
 햇님 → 해님.
 햇쌀 → 햅쌀.
 햇썩 → 해썩.
 햇참외 → 해참외.
 햇콩 → 해콩.
 햇파 → 해파.
 햇팔 → 해팔.
 햇포도(-葡萄) → 해포도.

행가래 → 행가래.

행복하세요/행복해라/행복하재(幸福-) → 행복하
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기 바란다. 행복하게 살자.

형용사는 명령형, 청유형으로 쓸 수 없다.

행선지(行先地) → 목적지(目的地). 갈 곳. 일본어 투.

향년 :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 살아 있는 사람의 나
이를 나타낼 때 써서는 안 된다.

허구헌(許久-) → 허구한.

허나 → 하나. 그러나.

허락하다(許諾-) : 활용형의 준말 표기에 주의. [활
용] 허락지(허락치×).

허물다 : 활용에 주의. [활용] 허물고, 허물며(허물
으며×), 허문(허물은×), 허무니(허물으니
×), 허뒀(허뒀×, 허뒀음×).

허위적거리다 → 허우적거리다.

허지만 → 하지만.

허투로 → 허투루.

헌데 → 한데. 그러한데.

헐리우드(Hollywood) → 할리우드.

헐다 : 활용에 주의. [활용] 헐고, 헐며(헐으며×), 헐
(헐은×), 헐니(헐으니×), 헐뒀(헐×, 헐음×).

헛딤다 :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을 수 없으며
이때는 본말('헛디디다')의 활용형을 쓴다.
[활용] 헛딤고, 헛디디면(헛딤으면×), 헛디
딜(헛딤일×), 헛디딘(헛딤인×).

헛점(虛點) → 허점.

헛탕 → 허탕.

헝겂 → 헝겂.

해프닝(happening) → 해프닝.

헬로우(hellow) → 헬로.

형(兄) 만한 아우 → 형만 한 아우.

호로자식(-子息) → 호래자식.

호일(foil) → 포일.

호치민(胡志明) → 호찌민.

훈구멍나다(魂-) → 혼꾸멍나다.

혼사길(婚事-) → 혼삿길.

혼신(渾身)을 다하다 → 혼신의 힘을 다하다.

혼자말 → 혼잣말.

혼줄나다 → 혼쥘나다.

홀수날(-數-) → 홀숫날.

홈즈(Holmes) → 홈스.

훗가(呼價) → 호가.

훗카이도(北海道) → 홋카이도.

화룡점점 → 화룡점정(畫龍點睛).

화물트럭(貨物truck) → 트럭. 화물차.

화운데이션(foundation) → 파운데이션.

화이버(fiber) → 파이버. 안전모.

화이팅(fighting) → 파이팅.

화인(fine) → 파인.

화일(file) → 파일.

화장빨(化粧) → 화장발.

환골탈퇴 → 환골탈태(換骨奪胎).

환타지(fantasy) → 판타지.

화병(火病) → 화병.

황토길(黃土-) → 황톳길.

황톳물(黃土-) → 황토물. 흙탕물. '황토물'은 황토
를 찌을 때 그 속에 고이는 맑은 물로 한의학에서
해독제로 쓴다. '흙이 풀려서 몹시 흐려진 물'은 '흙
탕물'이다.

회계년도(會計年度) → 회계연도.

회수(回數) → 횟수.

회집(膾-) → 횃집.

횡경막 → 횡격막(橫膈膜).

횡횡하다 → 횡행하다(橫行-).

후라이(fry) → 프라이. 튀김. 부침. 거짓말.

후라이팬(fry pan) → 프라이팬.

후래쉬(flash) → 플래시. 손전등.

후런트(front) → 프런트.

후레쉬(fresh) → 프레시.

후레자식(一子息) → 호래자식.

후추가루 → 후춧가루.

훼리(ferry) → 페리.

훼밀리(family) → 패밀리.

웬스(fence) → 펜스.

휘날레(finale) → 피날레.

휘닉스(phoenix) → 피닉스.

휘발류 → 휘발유(揮發油).

휘트니스(fitness) → 피트니스.

힉쓸다 : 활용에 주의. [활용] 힉쓸고, 힉쓸며(힉쓸
으며×). 힉쓰(힉쓸은×). 힉쓰니(힉쓸으니
×). 힉썰(힉쓰×, 힉쓸음×).

흐루시초프(Khrushchyov) → 흐루쇼프.

흔들다 : 활용에 주의. [활용] 흔들고, 흔들며(흔들
으며×). 흔든(흔들은×). 흔드니(흔들으니
×). 흔뒸(흔듬×, 흔들음×).

흥미거리(興味-) → 흥밋거리.

희노애락(喜怒哀樂) → 희로애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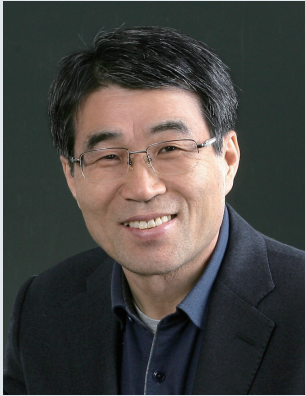
희희낙낙(喜喜樂樂) → 희희낙락.

히로인(heroine) → 헤로인, 여주인공.

힘들다 : 활용에 주의. [활용] 힘들고, 힘들며(힘들
으며×). 힘든(힘들은×). 힘드니(힘들으니
×). 힘뒸(힘듬×, 흔들음×).

히트(hit) → 히트.

저자소개



여규병

동아일보에서 어문연구팀장, 콘텐츠연구팀장을 지내면서 30여 년 동안 말글 다듬기에 진력했으며 2017년부터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어사정위원회, 말다듬기위원회 위원, 새국어 생활 편집위원, 국어문화학교 강사와 정부-언론외래어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2004년에는 국립국어원에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를 제안하고, 국립국어원과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주도했다. 또 흔히 잘못 쓰는 어휘를 모아 ‘긴가민가할 때 펼쳐 보는 바른 말 사전’을 펴냈으며 ‘동아일보 스타일북’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

현재는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바른 글쓰기 강의 등을 하며, 언론인 지망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바른 글을 쓰도록 지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 구상 중이다.

누리사랑방 ‘말글 돋보기’(<https://blog.naver.com/3springs>)에 우리말 관련 글을 올리고 있다.



이병갑

국민일보 기자로 26년간 재직하면서 잠시 취재 부서에 몸담은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기간을 교열부에서 일했다. 퇴임 후 브릿지경제 교열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새내기 교열기자 시절 ‘건물이 붕괴됐다’를 ‘건물이 붕괴했다’로 바꾸어야 한다는 선배들의 지적에 의문을 품은 것을 계기로 문장론 위주의 글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도 블로그 등을 통해 ‘붕괴했다’를 ‘붕괴됐다’로 쓰자며 마이너리티 캠페인을 벌인다. 술술 읽히는 글에 주안점을 두고 언어 현상을 바라보는 소논문들을 어문 잡지 등에 여러 편 기고했다. 국민일보에서 일하는 동안 신문에 말글 칼럼 ‘말 바로 글 바로’를 장기 연재했다.

저서에 ‘우리말 문장 바로 쓰기 노트’(민음사, 2009)가 있다. 이는 교열 일을 하면서 추출한 비문 악문들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진단 및 처방을 한 것이다. 이 밖에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한눈에 알아보는 신문 언어 바로 쓰기’, ‘이런 말에 그런 뜻이’ 등의 소책자에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교과서 출판 기업 미래엔의 의뢰를 받아 ‘초등학교 교과서 문장 분석 사례’ 연구 보고서를 내 왔다.

올바른 기사문장론

최초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처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홈페이지	www.journalismschool.kr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번호: 02-2001-7871~8• 팩스: 02-2001-7780• 이메일: jtt@kpf.or.kr
